

제416회 국회  
(임시회)

##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16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
2.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 ..... 1
2.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 ..... 1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인사청문 대상인 국세청장은 국가의 세입을 담당하는 조세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회가 정한 세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 임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민수 청장후보자께서도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7월 8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공직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
2.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

(10시06분)

○위원장 송언석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16일

공직후보자 강민수

○위원장 송언석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역량을 검증받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세입징수기관 장의 후보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국세행정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국민께서 내 주시는 세금 한 푼 한 푼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과 납세자가 혈세나 다름없는 세금을 기꺼이 내 주시려면 이를 집행하는 국세청이 국민께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제 역량과 열정을 다해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펼쳐 보겠습니다.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힘든 분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헤아려서 더 정성을 다해 국민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각종 문의를 하시는 납세자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편안한 납세 환경부터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세정 차원의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제때 마련되도록 세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세무 컨설팅의 품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현장 간담회는 한 번을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전달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세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혜택을 더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시간 소득과약제도는 사업자의 협력 비용을 최소화하고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민간 플랫폼의 장점들을 벤치마킹하여 경정 청구, 환급 신청 등의 방식도 더욱더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켜 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습니다.

경기 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세법 집행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와 적법 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권리 구제 절차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다만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의 실현은 성실납세 하시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자 국세청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신고 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하여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 상품 등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여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 과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국세청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세입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를 과감히 줄여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데 세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습니다.

보다 정교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하실 수 있게 하고, 신고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는 등 투입 자원 대비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세정 운영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신고부터 검증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국민과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과 업무환경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AI를 통한 세무 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여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적시에 추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종이 없는 세무서를 지향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세청 전산망 보안관제시스템을 전면 자동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저희 2만여 국세공무원들을 잘 보듬고 다독여서 납세자분들을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내는 조직이 되도록 이끌어 보겠습니다.

과중한 업무량, 승진 적체 등에 시달리는 저희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여전히 부족한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문화 속에서 보다 진솔하게 소통함으로써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내부 역량은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의 모든 성과는 청렴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세나 언행이 없도록 솔선수범하고 세법 집행 절차와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여 직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이 대우받고 조직 내에서 우수 인재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도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국세청장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청년 시절부터 간직했던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에 더해 그동안 고민해 온 국세청의 바람직한 방향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일 하나는 잘하는 조직으로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제게 주시는 귀중한 충고와 당부말씀은 가슴 깊이 새겨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불편부당함이 없는 자세로 공정과 상식에 맞는 조세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혀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오기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송언석 정태호 간사님이 손 드셨는데요, 다 하시겠어요?

○오기형 위원 저는 따로……

○신영대 위원 저도……

○위원장 송언석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오기형 위원 예, 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송언석 두 분 다?

○오기형 위원 예.

○신영대 위원 예.

○정태호 위원 제가 일단 먼저 할게요.

○위원장 송언석 예, 정태호 간사님.

○정태호 위원 오늘 인사청문회 날인데 아마 인사청문회 목적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또 도덕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검증 대상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해서 가족, 주변 분들에게까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언론 등에 이미 지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 이런 것들이 특별히 반드시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기재위의 역할은 그런 점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후보자께서는 저희 기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지만 국민에 대해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실한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첫출발은 결국 자료제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과 많은 상의를 해 본 결과,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 또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 관련 자료 그다음에 지방국세청장 시기 업무와 관련된 자료, 특히 주식회사 유창 등 배우자 가족 관련 기업 등에 관한 자료 이런 자료들이 되게 부실하게 제출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저희 위원들 내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원만한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라는 게 저희 당 기재위 소속 위원님들의 강력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에게 추가적인 자료 제출할 목록을 주셨고요. 제가 그 목록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목록을 위원장께 제출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오전 내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자료제출이 결국 원만한 인사청문회 진행의 출발이니까 후보자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자료제출입니까?

○오기형 위원 예.

○위원장 송언석 그러면 순서대로 신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지요.

○신영대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모두발언, 본인이 직접 쓰신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대 위원 제가 후보자들 모두발언을 보면 자기 의지들이 녹아 있는데 그런 의지가 녹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쭙본 겁니다, 본인이 직접 쓰신 건지.

그러면 이 내용에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투기 의혹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국세청장 후보자는 여러 가지 국세행정에 관련된 의혹이 있으면, 더불어서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 가족까지도 그런 의혹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렸는데 자료가 제출이 잘 안 돼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후보자님의 처가 일가 회사인 유창의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쪼개기 등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유창과 유창 관계사들에 속한 후보자 처가 가족들의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부과된 증여세 부과 및 납부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요.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로 유창과 유창 관계사들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서 받은 세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도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있고 투자세액공제도 있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술개발 지원 등 엄청 많습시다. 이런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받았던 세액공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농지 문제인데요.

후보자가 농지를 아버지로부터 2016년부터 증여받아서 2021년 농지은행에 맡기기 전까지 소유를 했었는데요. 이 시기까지, 2016년부터 2021년 농지은행에 맡기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 농지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실제 경작을 했으면 어떤 작물을 경작했는지 한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아버지가 계속 경작을 하셨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소유주가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소유주가 후보자기 때문에 실제 경작한 아버지와 맺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불어서 농지를 어쨌든 활용했다고 한다면, 경작했다고 한다면 발생한 수확물이 있을 거고 또는 수입금이 있을 텐데 이 내역도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이번에 후보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면서 이제 관심이 있고 또 국민을 대표해서 함께 질의해야 될 사항들로 후보자의 공직 수행과 배우자 관련 회사들, 배우자 특수관계인들의 사익 추구 사이에 충돌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질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이해충돌 상황에서 과연 어떤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창금속, 유창…… 특히 주식회사 유창이 가장 큰 기업인데 지난 5년 동안에 매출액만 해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주당순이익을 보니까 딱 5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해서 오천 얼마가 5만 3000 이렇게 증가해서, 특히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에 더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런 관련성이 있느냐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답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그 재산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다 제공하지 않았습시다.

먼저 지분 관계 확인서입니다. 배우자가 21년 4개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백지신탁하고 있다고 했고, 백지신탁 내용은 처음에는 필수지요. 그다음에는, 이번에 공직자 재산신고에도 반영은 안 됐습시다.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회사 말고 임직원으로서 몇 군데에 재직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2개 회사 재직증명서만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뒤져 보니까 6개 회사의 이사, 감사로 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 특수관계인 회사에 대해서 배우자가 지분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걸 배우자 본인 명의로 확인서 하나 떼어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그 관련 회사 법인 명의로, 주주 관계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주 관계 확인서 떼어 주면 된다, 이게 금방 댈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제공을 해 주셔야 된다. 차명주식 보유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잘못,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사후에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만 해 주시면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임직원 재직 현황에 대해서, 이 서면답변서에 있던 내용과 달리 뭔가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된다. 어디까지 돼 있는지 정리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임원 겸직 자체가 백지신탁 제도의 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실은 유창으로부터 한 1억 3000인가요 보수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 지분관계 없으니까 이해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과연 사적 이익추구와 괴리하고 독립할 수 있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오전 중으로 꼭 좀 반드시 제공해 주셔야, 그래야 오후에 어떤 식의 추가적인 논의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30초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3분을 하시는데 가급적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박수민 위원님 먼저.

○**박수민 위원**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제가 국회에 등원하면서 유권자와 많은 국민들로부터 꼭 요청받은 것이 대한민국 인사청문회가 제도 개선, 운영 개선에 한 단계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었습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검증은 1부 비공개로 하고 정책 역량에 대한 검증은 2부 공개로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를 오래 운영한 선진 민주주의 제도의 관례로 정착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 제출 요구하시는 그런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 등은 저희가 비공개로 했을 때 개인정보법의 취지에도 더 맞고 저희가 더 꼼꼼히 검증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다음에 꼭 여야가 공수가 바뀌면, 공히 느끼는 것이 최근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더 어려운 것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인사청문회,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국민을 대변해서 꼼꼼히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지만 개인 신상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 때문에 공직후보자로서 입후보 자체를 주저하는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유권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다.

이것이 제도 개선 사항인지 운영 개선 사항인지 제가 초선이라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식 자체는 꼭 전달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22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첫 인사청문회에서 말씀을 올리니 이 부분 경험 높으신 중진 위원님들이 꼭 지혜를 모아 주셔서 저희 기재위에서부터 어떤 관행, 제도 개선, 진화의 노력이 시도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알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저도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좀……

○위원장 송언석 정 위원……

○정일영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송언석 똑같은 것, 아까 정태호 간사께서 다 취합해 가지고 다 전달했는데……

○정일영 위원 아니,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위원장 송언석 그러면 사전에 미리 좀 말씀해 주셔야 되지.

○정일영 위원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송언석 일단 그러면 천하람 위원부터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저도 조금 황당한 일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후보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보유한 적이 없다라고 하다가 청문회 전날이 돼서야 보유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해당 가상계좌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확인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후보자가 가상자산 계좌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인사청문을 하는 기재위에 자료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을 가버리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당 업체에다가 확인을 요청해서라도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제대로 보고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위원장님 좀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동료·선배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배우자나 자녀 같은 분들 함께 거주를 하기 때문에 독립생계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컨대 자녀 국가장학금 수령 여부나 아니면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한 외화 반출 여부를 확인하려고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자료를 지금 다 동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거하는 배우자와 자녀의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도 동의를 못 해 가지고 어떻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동의를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앞서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인데요. 생략하고, 업비트 거래내역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빗썸 자료제출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자료제출 점심 때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자료는, 삼성SDI하고 후보자하고의 전세계약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2006년에 54평형 용산 신동아아파트를 증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다가 2014년에 대치동 삼성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거기서 살다가 2017년에, 비워 놔다가 그 아파트를 2017년에 삼성SDI하고 전세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이 8억 8000만 원에 계약이 되는데 그 당시 시가, 같은 평형 전세 실거래가는 7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SDI하고의 그 계약이 갑자기 또 한 10개월 남겨 놓고 해지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거기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때 후보자가 2016년 12월 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을 하고 그 당시에 또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서는 세무조사로 거액 추징이 예고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짚어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임대 전세계약서 사본하고 삼성SDI 그 당시 담당자, 계약했던 그 당시의 담당자 성함하고 직위, 그리고 계약을 갑자기 해지했는데 그 해지한 전세금이 어디로 입금됐는지 통장사본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홍근 위원 위원장님, 저 짧게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언석 잠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는데 자료제출 요구는 필요한 자료에 좀 집중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와 병적원부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병적기록표와 병적원부상의 중요 기재사항을 전부 가려 가지고, 지워 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병적기록표, 병적원부를 봐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안을 다 지워 버리면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슨 이런 자료제출이 있습니까? 저 인사청문회 많이 해 봤습니다만 병적기록표와 병적원부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것 제가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님, 즉각 조치해 주시고…… 이걸 아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을 테니까 오후로 넘어갈 것도 없이 즉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예.

대표님도 또 하시겠어요?

○박홍근 위원 짧게만.

○위원장 송언석 1분만……

○박홍근 위원 예.

○위원장 송언석 박홍근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우선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참조하라고 일부러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 당시에 여당 원내대표들께 오히려 이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2대 국회부터 적용하든지 아니면 다음 정부부터 적용하든지 간에 총선 전에 신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비공개로 검증하는 것 하자라고 오히려 저희가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제 원내대표 임기를 종료한 바가 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도, 정부를 누가 잡느냐와 무관하고 좋은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그동안의 하소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향후에 우리 22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딱 한 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출퇴근 시 이용하는 차량 운행기록부 있잖아요,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재산이나 관련된 세금 자료를 낸 것처럼 국세청장은 그만큼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언석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

○김영환 위원 하나만……

○위원장 송언석 중첩되는 것 아니에요?

○김영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송언석 다른 겁니까?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제가 서빙고 아파트하고 목동 아파트 증여 과정과 매입 과정에 증명할 수 있는, 어떻게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통장 거래내역 그 부분만 딱 찍어서라도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무런 대처 없이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여 과정과 매입 과정의 통장 거래내역 그것 꼭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근저당 말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말소를 시켰는지 거래내역을 꼭 보여 줘야 됩니다. 아니면 뭐든지 증명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 대처도 없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유창 감사보고서를, 그러니까 다트에 나온 감사보고서를 일일이 다 찾으면서 했어요. 안 알려 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니까 배우자, 장인, 처남,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관계를 도저히 알 수 없고 저희가 한 열댓 개 회사는 찾았습니까마는 나머지 회사들이 어디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 관련해서.

그래서 유창 관련된 계열회사들의 모든 특수관계인의 지분 관계, 회사들 내역 이것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죽 오랜 세월 동안 인사청문회를 해 왔기 때문에 앞서 많은 인사청문회

에서 장관후보자들이나 청장후보자들이 이미 제출했던 사례가 있을 겁니다. 잘 참조해서 가지고 청장후보자께서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서 청문회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조국혁신당 차규근입니다.

후보자님.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차규근 위원 후보자께서는 석사 논문으로 ‘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의 정치적 지위에 관한 연구’를 쓰셔서 1995년 2월에 발간하신 적이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차규근 위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복수의 논문을 인용 없이 짜깁기해 놓은 것이 확인되는데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은 1991년 2월에 김 모 씨가 쓴 ‘한국 헌법상 국무총리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라는 학위 논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이 후보자 논문인데요.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저 한자를 한글로 바꿔서 베껴 놓은 것이 확인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논문에서 형광펜으로, 저 PPT 화면에서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모두 인용 없이 베낀 것인데요. 그중에서 대통령제 설명 부분을 보면 보시다시피 한자를 한글로 바꾼 것 외에 내용이 동일하고 각주도 없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문 표절은 인사청문회의 단골 소재지만 다른 사람들이 빈번하게 잘못을 한다고 해서 표절이 아닌 게 되지는 않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차규근 위원 특히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께서 언론을 통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논문에 쓰인 ‘12·12 거사’라는 표현 사용하신 적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인용이 됐었습니다.

○차규근 위원 저희 연구실에 실무자들 오셔서 해명하기를 ‘한국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라는 1989년도 논문을 베껴 쓰다가 표현까지 그대로 쓴 것이라라고 해명하셨는데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런 뜻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차규근 위원 저는 두 가지 지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후보자가 잘못된 표현을 한 것보다 표절이라고 고백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역사관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큼 논문 표절도 윤리적으로 아주 큰 문제인 데 동의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이 두 가지 문제는 저울에 달아 보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대로 베껴 쓴다고 설명한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해명이 안 되는 점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홍 모 씨가 쓴 ‘한국 역대 대통령의 치적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라는 학위 논문입니다. 후보자와 같은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아까 전에 1991년도 김 모 씨, 91년 2월의 김 모 씨 논문을 후보자가 베껴 쓰다가 ‘12·12 거사’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 같다고 해명을 하셨는데 92년도에 홍 모 씨, 다른 사람입니다. 홍 모 씨가 쓴 ‘한국 역대 대통령의 치적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라는 학위 논문입니다. 이분도 후보자와 같이 91년 2월 달의 김 모 씨의 논문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사태’라고 표현된 것, ‘거사’라고 표현된 부분이 보입니다.

○차규근 위원 그렇지요. 후보자가 별생각 없이 베껴 썼다고 했던 91년도 논문에 있던 ‘12·12 거사’라는 부분을 홍 모 씨는 92년도에 발간을 하면서 ‘12·12 사태’로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 이후 시점인 1995년 2월에 발간한 논문에서 홍 모 씨와는 달리 ‘거사’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규근 위원 예, 말씀해 보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먼저 제가 30년 전에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80년대의 신문 기사를 갖다가 그대로 인용한 표현들로 인해서 여러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드린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표절 문제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표절률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프로그램을 돌려 봤습니다. 그리고……

○차규근 위원 시간관계상, 후보자님 미안합니다.

표절률이 낮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달리 제가 반박할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신문에 나온 내용을 인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명을 하시지만 신문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91년도 2월 달의 김 모 씨 논문을 그대로 베껴서 했다는 게 실무자들 해명이거든요.

보시면 후보자 논문 발간 이전 시점인 93년 5월 달 신문기사입니다. 이미 그 당시 정부가, 청와대가…… 오늘의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민주 정부라면서 12·12는 군사 쿠데타적 사건으로 이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2년 후인 95년 2월 달에 5·18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사’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이것 역사관을 의심하게 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도 80년대 후반에 대학 생활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또 그게 얼마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인 것 저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2·12 거사’라는 것이 후보자의 소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차규근 위원 부적절한 표현을 인정하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하여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분명 그런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수록하자는 입장이신데 2024년 현재 학살자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경남 합천, 제고향에 있는 공원인데요. 주민들이 계속 철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일해공원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일해공원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기는 좀 그렇고 저도 12·12……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규근 위원 그러면 ‘12·12 거사’라는 게 여전히 소신이라는 의미 아니신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위원님. 12·12 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사건으로 판결이 났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일해공원이 부적절하다는 데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장 송언석 정리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일해공원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드리기가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전두환 정권이라든지 12·12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의 제 표현과 그때의 제 가치관이나 성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차규근 위원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국민의힘 박성훈입니다.

아마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석사학위 논문의 표절하고 인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내 최대 규모 학술단체연합회라고 하는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표현과 인용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제정이 된지 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95년 12월에 특별법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지요. 95년 12월 21일입니다.

후보자가 논문을 제출한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95년 2월에 제출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위원장, 현 국민대학교 안경봉 교수께서는 이런 표현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1995년 2월에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지만 당시의 맥락에서는 일부 학자나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 이후로는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역사적으로도 정확한 표현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오늘날에는 학술적 정확성과 역사적 인식을 고려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고 살아 오신 유가족과 광주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30년 전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그 전에 있던 신문기사들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제가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논문 논란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께서 지금 사과를 말씀하셨고요. 또 이게 사건의 성격을 왜곡하거나 불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뉘앙스의 표현들이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후보자는 논문을 작성할 당시에 5·18, 당시 문헌이나 언론 기사를 큰 성찰 없이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표절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을 수가 있는데 표절이라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인용 표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군데군데 다 넣었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이 지금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다면 후보자가 일일이 인용한 출처를 기재했으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당시에 논문을 집필할 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그 논문이 역대 국무총리…… 그 당시에 제가 논문을 쓸 때 있었던 역대 국무총리 스물다섯 분에 대해서 썼습니다. 1948년 이범석 총리인가 그분부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총리의 재임 시나 퇴임 시나 재직 시에 있었던 사건을,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국회도서관에 와서 신문 자료를 하나하나 뒤지면서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의 언론들을 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용을 하는 데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유 여하를 떠나서 그런 건으로 해서 제가 논란이 되고 여러 분 마음을 아프게 한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석사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 언론을 찾아보니까 후보자는 해당 논문의 표절률이 4%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표절률 4%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듣기로는 10% 이내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결국 이게 어느 정도까지 표절을 용인할 수 있느냐라는 도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윤리적인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습적으로 보면 표절률이

25%를 넘을 경우 표절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한 용어의 반복 사용이나 관습적이거나 또는 방법론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언급하다가 나온 표절 같은 경우는 일부 용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라고 하는 수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학계에서는 4%라는 수준은 사실상 표절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적절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의 표현 말고도 후보자께서 지금은 표절이 아니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을 할 수 있는, 어떤 제시할 수 있는 물증이 있으신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제 논문에 대해서 표절 프로그램 외에 다른 걸로 평가하기는 좀 그래서, 지금 대학교나 대학원 논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는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위원회라는 곳을 확인을 해서 그쪽에다 한번 맡겨 본 적이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카피킬러라고 하는 유사도 수치 4%는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산출한 수치이므로 절대적 표절 판단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유사도 수치만 보면 현재의 연구윤리지침에 의하더라도 해당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에 요구되는 연구윤리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절과 관련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관련 지침이 언제 제정됐는지를 보니까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교육부훈령 제60호로서 2014년 3월 24일 날 제정이 되었고요.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은 2010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이 제출됐던 1995년 2월 당시만 하더라도 연구윤리에 관한 위 지침들이 제정되기 전이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엄격한 표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는 게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입니다.

제가 후보자의 표절률이 낮거나 높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전문적인 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사례 한번 들어 볼까 하는데요. A라는 사람이 재개발지역의 땅을 약……

메모해 놓으십시오, 후보자님.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재개발지역의 땅을 3억 9000만 원에 사서 몇 개월 후에 자신의 형제한 데 4억 1000만 원에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B 씨는 다시 A 씨의 자녀인 본인의 조카

C 씨한테 이 땅을 5억 5000만 원에 매도합니다. 이게 전부 다 2년 6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건데요.

이런 경우 예를 들면 A가 자녀 C 씨에게 직접적으로 증여를 할 때하고 친인척 간 매매 시에 어떤 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에서 그 하나하나의 어떤 양도 가격이나 그런 부분을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영대 위원** 가격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그 가격도 그 당시의 시가나 정당한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영대 위원** 후보자님이 누군지 알고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요. 보통의 경우들은 결국은 증여세보다는 친인척 간의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온다는 게 전체적인 세무행정의 기본입니다. 이게 지금 이분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탈세 의혹입니다.

후보자가 청장 되시면 조사할 의향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뭘 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신영대 위원** 뭐냐 하면 고위공직자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청장님이 조사 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정도의 규모, 일선 세무서에서라도 고의적인 탈세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아까 방금 전에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언론까지 보도된 내용이면 당연히 일선 세무서든 지방국세청에든 조사를 의뢰해야 되는 게 청장으로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말씀……

○**신영대 위원** 나중에 마지막에 답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쪼개기 뭘지 알고 계시지요, 세무행정 오래 하셨으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신영대 위원** 중소기업이 커지면, 중견기업이 되면 일정 정도 중소기업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자회사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합니다. 이게 옳은 행태는 아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이게 쪼개기라는 단어가 돼서 조금 부정적이기는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규모가 커지고 사업 다각화라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후보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투명한 과세행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모두발언과 배치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에 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업들을 설립할 수 있지요. 모기업에 어떤 사업 항목을 추가할 수 있지만 새롭게 기업들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종의 비슷한 기업의 계열사들을 계속 쪼개기 하는



것은 명백하게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질의한 의도를 아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원칙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제가 다…… 먼저 질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배우자인 조희정 씨가 유창에 근무하고 있지요, (㉠)유창에.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대 위원 이사로 재직 중이시고요, 장인께서는 대표로 재직 중인 거고.

유창이 현재 이런 모습을 보여서 말씀드린 건데요. 금감원 공시자료를 보니까 장인께서 운영하는 (㉠)유창과의 특수관계기업이 다 못 찾았습니다마는 24곳 정도가 보이고요 매출 규모가 연 8000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이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유창이앤씨, 세화내장건설, 유창엠앤씨, 보면 대부분 건축자재와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후보자가 어쨌든 98년도에 결혼하셨는데 그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대부분 철물, 알루미늄, 유리창호공사 등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건축자재 관련 업종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마 이렇게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쪼개면서 중소기업의 혜택을 많이 받았을 텐데 자료 요청했지만 아마 그 세제 혜택도 상당할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자료 요청에 대해서 꼭 답변 주시기 바라구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요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후보자 처남 조 모 씨가 운영하는 건축물 제작기업인 유창엠앤씨는 지난해 매출 93%가 처가 일가와 특수관계로 구성된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로부터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92%의 도급공사를 유창이앤씨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처가가 대주주인 로템코퍼레이션은 매출의 58.7%가 유창에서 발생합니다. 후보자 가족들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간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가족기업 간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입니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 정황 때문에 실제 세금도 부과를 받았는데요. 제가 제출한 자료 보니까 2023년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이익 과세요건이 발생해서 증여세 35만 원가량을 납부했던 게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 한 분만 해당된 게 아니라 가족이 여러 분 있을 텐데 다른 분들의 자료를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일감 몰아주기라고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일감 몰아주기가, 제가 저쪽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 맞는 것 같고.

일감 몰아주기가 위원님, 이게 어떤 거래비율이나 지분비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신고납부를 하면 되는 시스템이고,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제어하고자 지금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영대 위원** 제가 질의를 중간에 마무리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꼭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오전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그러면 제가 더 추가로, 금방 말씀하신 것에 말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 광주 5·18 민주화 성지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광주 동구남구를 안도걸 국회의원입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말 개봉해서 1300만 명의 국민이 관람한 ‘서울의 봄’의 한 장면입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라는 가장 화제가 된 대사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또 분노했던 장면이지요.

화면 봐 주십시오.

후보자가 1995년에 작성한 석사 논문의 일부입니다.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반헌법적 군사반란을 미화했습니다. 게다가 12·12 군사반란의 주동자인 전두환 씨를 ‘국가의 안정을 내세운 결정을 과감성 있게 발휘했고 리더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력하다’며 찬양한 것 같습니다.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전두환 씨를 반란수괴죄, 내란수괴죄, 살인, 뇌물수수 등을 적용해서 사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러한 전두환 씨를 후보자가,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미화했다라는 것은 심히 걱정이 되는 측면입니다. 후보자의 치우친 역사적 또 정치인식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됩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더 큰 문제가 있네요. 더 걱정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로 표현하고 폄훼했다는 점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이 우리에게서 무엇입니까? 신군부 세력이 광주시민을 향해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던 국가 폭력에 맞서서 광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평화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저항한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또 5·18민주화운동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계기가 되었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여정에 가장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폄훼한 배경을 두고 후보자께서는 단순히 그 당시의 언론 기사나 다른 논문을 인용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논문 작성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지요. 논문 작성되기 전 6년 전인 1988년도에 민주화합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했고 그해 4월에 ‘광주사태’라는 용어는 없어졌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제대로

올바르게 규정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어 국회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되면서 12·12 사태를 정치군인들의 정권 찬탈 행위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광주시민들이 벌였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한 진실들이 낱낱이 밝혀졌던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고 당시 후보자께서는 공직 입문 때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한 역사관, 국가관을 최소한 필요로 했던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후보께서는 여러 논문을 그때 인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용한 논문 중의 한 편을 보면 그 내용에는 ‘5·18’을 ‘광주5·18운동’, ‘12·12事態’를 ‘12·12사태’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께서는 여러 논문을 인용하셨는데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내용을 가진 논문들 간에 선택지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선택지 중에서 ‘12·12거사’와 ‘광주사태’라는 그 내용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는 12·12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시대정신에 대해 몽매했거나 아니면 후보자 본인의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후보의 어떤 사고적 유연성이랄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것은 본인의 부주의 그리고 결정적 과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본인께서는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린,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오신 우리 국민들, 특히 광주시민들께 깊은 사과를 한번 하셔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30년 전을 이렇게 되돌아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생각이 좀 짧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 논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광주시민이나 여러 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80년대 후반에 대학 생활을 했고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저 논문에 있는 저런 특정 표현들은 제 성향이나 제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하며 순수히 제 불찰입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5·18기념재단을 비롯해서 우리 5·18민주유공자회 등 단체에서는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가슴에 한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지요. 이분들은 그런 가슴의 고통을 안고 계시지만 본인들께서 또 가족들께서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앞장서 희생했다라는 그 자긍심 하나로 버텨 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저희들과 다른, 일반인과 다른 특이한 정서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의 철두철미한, 과오였다는 것을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러면 향후에는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다시 한번 좀 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이번 일을 이렇게 경험 삼아서 앞으로 더 조심하고 특히나 우리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제가 추호라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후보자께서 석사 논문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표현 때문에 물의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금일 청문회장에서 사과의 언급을 명확히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으로 돌아갔을 때, 본 위원도 부끄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와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도 젊은 시절 성찰이 부족했다는 점을 저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특히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5·18 기념행사라든지 그런 데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해서, 후보자께서도 금일 사과를 넘어서, 청장이 되시면 그 마음의 진정성을 사과방문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라든지 행동으로 이어서 입증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것이 상속세 등 부의 세대 이전서부터 부적절한 첫 단추를 댄으면서 어떤 기업들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고 이것을 과세의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세제 개혁의 중요한 하나의 징후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일감 몰아주기 상황과 과세 실적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국세청장이 되신 다음에 좀 파악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자료 제공을 좀 해 주시면 저희 본 기재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국세청은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래서 본 후보자께서 이끌어야 되는 것은 국세행정입니다.

맞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박수민 위원** 그러면 2만 명의 국세청 임직원들을 이끌고 국세행정을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모두말씀에서 밝히신 포부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평가할 때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모두말씀이지만 표현을 바꿔서 한번 질문

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후보자 전의 국세청장들이 이끌었던 국세청과 후보자께서 이끄시는 국세청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 것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저보다 이전에 훌륭한 국세청장님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내세운 여러 가지 중에 크게 두 가지는, 우선 첫째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과 납세자를 잘 모시는 또 아픔이 있으면 잘 감싸는 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방문하시는 납세자분 또 문의하시는 납세자분한테 밝은 세정 환경에서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부분이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세청은 세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은 뭐든지 제대로 해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세정도 그 일환으로서 나온 거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여튼 국민과 납세자를 각듯이 모시면서 일 하나는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체계를 잘 갖춰 놓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에서 활동한 경험 더하기 금번 청문회를 위해서 주변에서 제가 의견 수렴을 좀 해 보면, 국세청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찾아갔을 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따뜻하고 친절하면 좋고요. 그런데 국세청은 평소에 안 만나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과학적이고 IT 기반으로 해서 과세자료들을 충분히 미리 분석해서 제공해 준다든지 해서, 국세청을 만나는 과정이 길고 자주 있으면 사실 사업하거나 일하는 데 그렇게 좋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과학행정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눈길이 가는데 그런 부분, 지금까지 국세청이 이뤄 낸 진전이 뭐고 본인이 거기에 추가할 진전은 뭡니까? 한번 질문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지금 과학세정이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저희가 NTIS라고 해서 내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를 많이 덜어 주고 있고, 특히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이라든지 연말정산 하시는 분을 위해서 굉장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조사 대상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뭐랄까, 조금은 덜 체계화된 방식에서 보다 더 체계화되면서 생산성 높고 적시성이 높은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가고, 그다음에 상담도, AI 상담을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여러 국민들이 정말 바쁜 신고 기간에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안 받는다는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력을 보유한 행정기관, 군, 경찰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적은 인력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미 도래했습니다.

국세청 2만 명은 적은 숫자가 전혀 아닌데요. 인구 감소 시대에 적은 인력으로 국세 행정을 이끌 복안에 대해서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되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준비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경제활동이 당연히 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과세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 현장 활동에서 보면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한국은행·금감원 신고가 있고 해외 활동에 대한 국세청 신고가 있습니다. 2개가 통합될 수는 없는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 부분 일부는 저희가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전산끼리 통합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 꼭 국세청의 업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신고의 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아웃데이트(outdate)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큰 상태에서 또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신고를 요청하고 있고.

당연히 모든 기업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실히 제출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쓰는 쓸모에 비해서 자료제출 부담이 큰 것은 아닌지 이중적인 건 아닌지 본 위원은 걱정하거든요. 이 부분 국세청장에 취임하시면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후보자님, 5·18 문제 잠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18 관련해서 논문에 대해서, 잘못 표현된 것 이것에 대해서 표절이네 아니면 몇 퍼센트냐 이런 식의 논쟁 하는 것 아주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5·18 문제에 대해서 광주에 있는 5·18 단체에만 사과하면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오기형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5·18 문제에 대해서는, 12·12 쿠데타가 내란죄고 우리 헌법상에도 내란죄를 범한 자는 현행 대통령이라도 체포해서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란죄 행위에 대해서 어떤 동조나 잘못된 표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과 변명 없는 사과 그다음에 명확한 헌법정신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공직자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됐다’ 이러면 공직자의 자격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좀 더, 오해를 사거나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화를 더 불러일으키는 답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아까 신영대 위원님의 요청 자료가 있었는데 그것 꼭 같이 제공해 주시고, 오전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자체가 오늘 계속 저희가 질의하는 주요 의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신영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와 관련해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례가 이렇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고위공직자가 누나와 아들에게 쪽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게 탈세냐 절세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제기를 하면 저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을 안 할 게 아니라 이 관계자가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분의,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을 보니까 아들이 2020년도에 1000만 얼마 약간 붙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신고한 걸 보면—23년 말 기준이었지요—재산이 약 4년 간에 5억 26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 고위공직자가 설명을 못 한다면 이것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가 공개됐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

제가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일한다면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부동산……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해명이 된다면.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오기형 위원 담당 공무원이…… 청장님이 되셔서 할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국세청 관계자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추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명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해명이 적절하다면 괜찮은 거고 해명이 안 됐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금 애매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2004년도 판례입니다. 실제 사례는 그 전에 발생한 거지요, 2002년도에.

73세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겁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약 2억 5000 정도 대출받아서 하고 그 부담을 승계하면서 했는데 초기에 증여세 771만 원 납부했는데 나중에 금천세무소에서 ‘이것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사실상 단순증여다. 이 돈 받는 구조가 애매하다’ 이래서 조사했습니다, 실제. 그리고 6200만 원을 추가로 증여세 부과했습니다.

본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한 것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은 ‘금천세무서 잘했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드님이 저 사례에서 부담부라고 했지만 아마 실제로 채무를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과세가 된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금천세무서처럼 일을 한다면 방금 이전 사례, 공직자 A 씨의 사례는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관할 세무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오기형 위원 답변 안 하시는데.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위원님.

○오기형 위원 후보자 개인 사례도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후보자 개인 사례입니다.

후보자 개인 사례는, 2003년도에 배우자의 외조모가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2006년도 11월 22일 외조모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갑자기 4억 8000, 약 4억 정도를 빌린 거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23일 지나 가지고 그 배우자 외조모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2분의 1씩 부담부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채무자 명의 변경은 안 됐고, 왜 안 됐냐?’ 질의 답변하면서 서면 답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얼마나 납부했냐? 그에 관한 증거가 있냐?’, 제출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있다가 근저당권 말소·해지됐습니다. 이것이 방금 그 사례, 2004년도 사례가 2006년도 사례…… 실제 이 판례가 있는 그 이후에 후보자의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절세했다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 제출하라니까 자료제출 안 한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저……

○오기형 위원 그래서 이걸 보는 국민들이…… 실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외관상 보기에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금에 관한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라고 믿을 것인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례와 첫 번째 고위공직자 A 씨 사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이것에 대해서 원칙적인 태도를 보여 줘야 되는 것 같은데 후보자의 답변이 애매하다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오기형 위원 다시 물어서, 그러면 다시 제일 첫 화면으로 가서 A 씨 사례를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년 사이에 순재산이, 아들 재산이 공직자의 재산신고 목록에 의하면 5억 이상 증가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례를 그냥 공개야 될 것인가, 별문제 없다고 보실 것인가, 금천세무서처럼 조사할 것인가. 후보자는 금천세무서와 같은 공직자를, 함께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례는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실 것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말씀……

○오기형 위원 이것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루는 어떤 특정 경우뿐만 아니라 탈루의 혐의가 있게 되면 저희가 반드시 한 번 검증하게 됩니다.

○오기형 위원 이 고위공직자 A 씨 편법 증여 의혹, 특히 아들이, 배우자가…… 만약 A 씨가 순자산, 아들 재산이 5억 이상 증가된 것의 해명을 공개적으로 제대로 못 하면 ‘이런 경우에 금천세무서처럼 조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본인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도 답변을, 자료 제공을 명확히 못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부담부증여 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드리고 저 건에 대해……

○오기형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못 하는 겁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루 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보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기형 위원 원칙적 입장 표명이 있어야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기다렸는데 답변을 아직 안 주신 겁니다, 지금.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 석사학위 논문에서 ‘광주사태’ 또 ‘12·12 거사’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석사논문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6·10 민주항쟁을 ‘6·10사태’로까지 표현을 했어요.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광주사태, 12·12 거사뿐만 아니라 6·10사태입니다.

‘사태’가 뭘니까? 왜 사태라는 말을 그렇게 씁니까? ‘광주항쟁은, 광주 민주화운동은 과거에 언론에서도 광주사태라는 말을 썼고 과거 논문에서도 그렇게 썼다. 그래서 그걸 표절 또는 인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변명하고 있는데 6·10사태라는 말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 봤습니다.

‘6월 민주항쟁’ 또 ‘6월 민주화운동’ 이런 표현은 다 썼어요. 그리고 6월 항쟁 이후에 실제로 헌법이 바뀌고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후보자는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학을 다녔잖아요. 대학 다니면서 그 내용도 몰랐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태’지요? ‘사태’가 뭘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윤호중 위원 그러면 이 표현을 광주 민주화운동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표현이 민주주의를 갈구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해 온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권력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을 억압하고 독재 권력을 향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시위가 일어나고 집회나 이런 것들이, 저항 운동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태로 인식한 거, 그런 인식을 똑같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윤호중 위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6월 항쟁에 대해서까지 ‘사태’로 표현한 것 이것까지도 사과의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면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모두발언 하실 때 보니까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

부하거나 누락하는 이런 경우에 엄격하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인사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자료제출을 잘 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창금속이라든가 유로직스, 유창건설 그리고 세원강관 이런 데에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지난 5년간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지난 5년간이 아니라 제가 ‘10년간을 제출해라’ 이랬는데 ‘5년간은 배당소득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10년간을 제출해라’ 그랬더니 10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납세자들한테는 자료제출을 그렇게 강조하고 ‘실효성 있게 자료를 받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후보자 본인은 자료제출 안 합니까? 제가 이걸 왜 자료를 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음, 이걸 봅시다.

우리 후보자, 아까 처조모로부터 받은 용산 아파트 그것을 삼성SDI에다가 전세를 내준 적이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SDI 같은 이런 법인에다가 세를 내주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고위공직자들 보면 여러 공직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권영세 통일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런 예들이 많아요.

(박수영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분들보다 더 특별히, 청장후보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처가 기업인 유창이앤씨가 지난 2018년까지 사업 실적을 보면 거의 80%에 해당하는 68건에 걸쳐서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사업 수주를 받아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창이앤씨의 주된 사업 파트너 내지는 수주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처가 기업하고 구체적인 연관이 돼 있는 삼성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세무조사라든가 과세를 할 때 청장이 이해충돌의 유혹을 느끼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청장이 고위 세무공무원이 되기 이전에 이 회사가 얼마나 실적을 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청장의 배우자에 대한 배당 실적으로 파악을 해 보려고 했는데 배당 실적을 전혀 내고 있지 않아요. 배당 실적이 없습니다. 배당조차 하지 않았던 회사가 갑자기 몇천억의 수주를 하는 이런 회사로 성장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라고 하면 이것이 후보자와 관련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용산에 있는 집에 임대 들어왔던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많은데……

○**윤호중 위원** 그 부분보다도 삼성SDI, 삼성물산 또 삼성엔지니어링과 처가 기업과의 거래 관계 여기에서부터 이해충돌을 피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가 드렸는데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염려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대구 수성구를 이인선입니다.

오늘 후보자 청문회에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재산 공개, 그런 개인 신상이 많습시다. 조금 전에 모두발언을 했는데, 박홍근 위원님이 대표님 시절 말씀하셨듯이 실은 우리가 신상 부분하고 정책 부분하고 나눠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청문회 대상이 되는 분이지만 청문회를 하면서 ‘다시 내가 청문회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앞에 있는 신상발언 내지는 재산 얘기를 하게 되면 언론에서도 받아 가게 되고 또 보좌진들도 그 부분을 잘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전부 매달려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회에, 기재위 안에 특별한 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어떤 전문 분야의 전문 팀이 있어서 재산이나 이런 개인에 관련해서는 전문 팀에서 조사해서 다시 또 후보자한테 보내고 보내고 해서 그 부분을 딱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근 대표님, 22대가 되든 23대가 되든 꼭 기재위 안에 그런 팀들을 만들기를 제가 제안드리면서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논문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논문이라는 게, 예전에는 저희들이 논문의 결과 내는 것만 크게 관심 있었지 중간에 인용을 하고 그런 표현들을 놓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자도 보니까 95년도 논문에 ‘광주사태’라는 것을 표기했는데 지금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바뀌어서 바꾸고 싶은 마음도 많으시겠지만 할 수 없는 것은 공인된, 그야말로 개인 지적재산이 되면서 컴퓨터의 찾아 바꾸기로 그냥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죄를 표하고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리고 뒤쪽에 가면 표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표절은 사실은 황우석 박사 사건 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되면서 실은 2007년도부터 연구윤리에 대한, 확보 지침이 마련이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표절에 대한 환기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후보자도 보니까 논문을 쓸 때 참고문헌에다가 두고 활용을 하게 되면 각주로 밑에 빼야 되는데 각주를 미리 표현을 못 하고 참고문헌에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래도 후보자께서 논문을 적을 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리면서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광주사태’가 ‘광주 민주화운동’하고 지금 현재는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유감의 표현을 지금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논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자기만의 고유한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표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든 이 정부든 하여튼, 문재인 정부 때도 5대 비리에 논문 표절을 넣어서 절대 청문회 통과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논문 표절이, 의혹이 이어졌지만 그래도 다 장관급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나 지금 정부나 그런 잣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듯이 특별한 팀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걸 하나 여쭙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두발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과학세정을 하겠다,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해서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런데 후보자는 형편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아마 당근마켓을 사용을 한 적이 있거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5월에 국세청에서 당근마켓 조사를 했는데요. 이 당근마켓을 우리가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나 많이 하는데, 그래서 ‘당근러’라고 지금 줄여서 씁니다. 당근러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당근러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올해 5월에 500~600명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근마켓에 물건을 내놓을 때는 호기심도 좀 있기도 하고 만나서 가격 협상을 하면 되니까 임의로 좀 높여서 내놓습니다. 높여서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에서는 당근게시판에 적힌 가격만 보고 납부대상자들을 선정해서 납부 안내를 했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끼리 해결을 하고 거래를 해도 국세청에서,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위화감을 느끼고 그런 위협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가 180만 원 하는 의자를 당근마켓에 1원에 올렸단 말이에요. 왜 1원에 올렸냐고 하니까 국세청에서 세금을 물린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얼른 무료 나눔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1원이라는 걸 해서 올렸다 이런 사이트의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고 거래 이용자들이, 특히나 여성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준 없이 안내문을 발송한 것 자체가 탁상공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후보자님이 봤을 때, 얼마든지 AI를 동원하거나 빅데이터를 동원하면 이 흐름을 보고 세금을 발송할 수가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소위 당근러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횡수도 굉장히 많고 금액도 굉장히 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 우려하시는 바를 생각해서 그 한도를 조금 더 올리면, 그러면 소위 일반 당근러가 그런 안내문을 받는 일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추적해서 안내를 보내야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올려놓은 가격만으로 추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근마켓 활용하는 분들이 꼭 이것에 대해서, 청장후보 청문회를 하면 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들을 제가 듣고 지금 전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이번에 국세청장이 되신다고 하면 아마 역대 국세청장 중에 처가가 보유한 자산이 가장 큰 국세청장이 되시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

○천하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후보자님이 아시기에 역대 국세청장 중에 처가가 연 매출 8000억, 자산 총액 5000억이 넘는 기업집단을 보유하신 청장님이 계셨나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사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대통령님의 처가보다도 후보자님의 처가가 보유하고 계시는 자산 규모가 훨씬 크다. 그렇지요?

아시는 대로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걸 여쭙보느냐 하면 사실 처가가 자산 규모가 크고 많은 기업을 갖고 계시는 것은 전혀 그 자체로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저희가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런 처가의 기업집단 보유가 혹여 조세 행정의 집행이나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이해상충을 불러일으킬까 봐 저희 많은 청문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후보자님, 가업상속공제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가업상속공제제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실한 중소·중견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줘서 우리 산업의 활력을 계속 제고하자 이런 취지로 있는 제도인 것 잘 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현행 상속세법을 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법인 중에 조세포탈이나 회계 부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들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천하람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 못지않게 여러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수의 근로관계법 위반이 있거나 공정거래법이나 형사법 위반이 있는 그런 게 확인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최소한 공제 범위 축소 같은 제대로 된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살펴보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후보자님의 처가 기업, 많은 분들

이 지적하셨지만 유창이라는 기업집단이 있지요. 제가 지금 거기의 자료들을 조금 보다 보니까 굉장히 참,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힘든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10년간 유창 기업집단에서 산재사건이 37건이나 터졌고, 지난 5년간 임금 체불 신고가 245건, 부당해고 신고가 23건, 직장 내 괴롭힘 9건, 직장 내 성희롱이 4건이나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수의 근로관계법 위반이 있는 이 기업집단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가업상속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직접 저 경영에 관여, 뭐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송구스럽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여쭙보느냐 하면 지금 유창이앤씨 같은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회사입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것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창이앤씨 같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공제액이 최소 400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후보자님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그걸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천하람 위원 그래서 지금 비록 처가의 회사 집단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가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해상충 우려 없이 불편부당하게 제대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천하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쪼개기 입찰 참여 부분입니다.

지금 유창기업 일가에 속하는 두 회사를 보니까 유창이앤씨랑 송천이앤씨라는 데가 있는데요. 사실상 경영진도 동일하고 거의 동일인, 후보자 처가의 여러 분들이 지배하는 사실상 거의 가족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5년간 이 두 회사가 총 40개의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중에 이 두 회사만 투찰을 한 사업도 10개나 되고 계약 규모가 239억 규모나 됩니다.

이것 후보자 알고 계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40개 사업 중에 유창이앤씨가 낙찰받은 사업이 28개고 이게 체결 규모가 845억이나 되고요. 송천이앤씨가 낙찰받은 사업이 7개고 이것도 143억 규모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모르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후보자께서, 국회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보면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고 쓰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지금 유창이앤씨랑 송천이앤씨가 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입찰담합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

○천하람 위원 지금 사실상 동일회사인 가족회사가 한 조달 건에 함께 참여한 것이 인정돼서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받거나 심지어 사업체 운영자들이 입찰방해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례들이 복수로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문제 있다고 후보자 느끼지 않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저희는 국세청 입장에서 세금 탈루하고 관련된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후보자께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셨던 2022년에 국세청에서 가족회사들을 동원해서 이번 비슷하게 소위 벌떼 입찰, 쪼개기 입찰한 건설 관련사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벌떼 입찰을 했던 세무조사 사례랑 지금 이 후보자의 처가 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입찰 행태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계속 모른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상충 우려 없이 제대로 대응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따져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국세청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청장 재임 중에 본청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나 분석보고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임광현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임광현 위원 쌍방울 세무조사 착수, 서울청장이 결재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위원님께서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저희……

○임광현 위원 아니, 결재했지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특정 건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저는 지금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쌍방울에 대해서 탈루세액이나 또는 탈루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로서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그 절차가 정당했는지 같이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임광현 위원 쌍방울 세무조사 착수, 서울청장이 결재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임광현 위원 아니, 좀 빨리……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임광현 위원 서울청장이 착수 결재하지 않습니까, 종결 결재도 하고?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일반적으로 조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청장이 결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정 건에 대해서 제가 했다 안 했다 말씀을 못 드리고……

○임광현 위원 아니, 그게 왜 특정 건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일반적으로 모든 조사는……

○임광현 위원 아마 서울청 조사4국 관리과장이 결재 판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4국 관리과장이 결재 판을 가지고 왔을 텐데 그렇다 치더라도 경로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본청 조사국에서 시달이 됐을 수가 있고 서울청 조사4국에서 자체 선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서울청장 재임 중에 본청에서 내려온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청장이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모든 조사는 비정기든 정기든 일단은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 업무처리 절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서울청이 자체 선정을 한 겁니까, 쌍방울을? 본청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특정 건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광현 위원 아니, 그러면 본청에서 안 내려왔으면, 본청 조사국이 아니면 서울청 조사4국 선정인데 본청에서 내려온 적이,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서울청 4국에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정기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팀의 분석을 거쳐 가지고……

○임광현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팀이 자발적으로 선정을, 분석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지시를 한 겁니까, 위에서?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특정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임광현 위원 이렇게 답변이 거부가 되면, 지금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에 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특정 기업의 개별 세무조사 탈루 내용이나 개별 과세정보를 물어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처리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치적 세무조사는 국세청 수뇌부와 정권 사이의 은밀한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면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치적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불러온 태광실업 교차세무조사입니다. 부산지방청 관할 세무조사를 교차조사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비정상적으로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쌍방울 세무조사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까, 위에서 지시를 해서 분석을 한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건에 대해서 조사 여부도 말할 수 없는 게……

○**임광현 위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쌍방울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이면 국세청이 하던 세무조사도 중단하는데 그 이유를 아시지요, 왜 그러는지?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 반대로 검찰 수사나 재판 중인 상황에서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광현 위원**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으면 착수를 하고 그 건에 되는, 부과제척기간 임박한 부가세나 그것만 얼른 결정을 해 놓고 중지를 하는 게 관례 아닙니까?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광현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 쌍방울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사 중이면 왜 국세청 직원들이 조사를 하다가도 조사를 중지를 하나 하면 일단 검찰에서 ‘오라, 가라’ 하니까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다 검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가 없고. 세 번째, 그 조사 기업들이 검찰 수사 대응하느라고 정신없는데 거기에 국세청까지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통상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 하던 세무조사도 멈추고 착수하려고 했던 건 좀 뒤로 미루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쌍방울은 왜 그렇게 착수를 했습니까, 검찰 수사 착수하고 나서 바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본청에서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본청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점은 나중에 한번 규명을 해 보면 될 것 같고.

네이버는, 2022년 9월에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위해서 성남FC 후원 혐의로 네이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국세청에서 검찰 압수수색 직후에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렇지요?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직후에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전례가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특정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순환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임광현 위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세적지가 어디입니까? 중부청이지요, 판교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임광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서울청에서 교차조사……

이건 교차조사입니까, 관할 조정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관할 조정입니다.

○**임광현 위원** 관할 조정은 어떤 때 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관할 조정 같은 경우는 각 지방청별로 어떤 조사국의 업무량이라든지 그 지역적 특색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업무량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서울청 조사국이 조사 건수가 많아서 서울청 조사국의 업무를 오히려 중부지방국세청에 내려보내서 그쪽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중부청 것을 서울청으로 와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해에 그러면 중부청에서 서울청으로 몇 건이 와서 조사가 됐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할 조정이라는 게 이렇게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주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를 주는 대신에 또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임광현 위원**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누구보다도 세정 실무에 박학하시고 탁견이 있으시다 보니까 내부 정보를 충분히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질의였습니다.

다음 질의,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국세청장님, 아까 공정한 세무행정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혹시 ‘박기후인’이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자기에게는 박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후하게, 그게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질의 이끌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목동 아파트 신혼집인데요.

청장님, 기억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언제 매입하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게 결혼……

○**김영환 위원** 98년도입니다.

혹시 길 건너에, 공원 건너에 누구 계신가 아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저희가 그때는 처가하고 가까이 살았습니다.

○**김영환 위원** 장인어른댁이 있었지요. 신혼집을 딱 거기다가 이렇게 얻으셨더라고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김영환 위원 알아보고 하신 거예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꼭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관 때인데 그사이에 단기사병으로 근무를 하지요, 1년 6개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총근무시간이 2년 6개월인데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모을 수 있습니다, 한 푼도 안 쓰면.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김영환 위원 여기 대출이 한 2800만 원 끼어 있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김영환 위원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게 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김영환 위원 그 증빙은 저한테 안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 증빙은 안 해 주셨어요, 증여세 신고도 안 하셨다 그랬고.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 3000만 원은 공제세액 이하기 때문에 신고……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 거래내역은 안 주셨고 증빙을 안 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온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저 부분은 필요하면, 제가 이미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 아파트……

○김영환 위원 아니, 증명을 해 주시면 된다고요. 말로써가 아니고 서류로써 증명해 주시면 돼요.

왜 서류를 제출 안 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일단 그 설명을 한번 보시면 제가 대출받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즉 정확하게 써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금이 어디 출처인지 국세청장님이 서류로 저희한테 증명해 주시면 끝난다니까요. 통장 거래내역 딱 그거 하나만 보여 주시면 된다니까요.

왜 안 보여 주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실무자한테 필요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전까지 주기로 하셨지요. 그것 주시면 끝납니다. 아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확인해 보고 최대한 빨리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아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4월 23일에, 이게 부당부증여가 한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대규모 조사 합니다. 4800명 증여세 납부시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배우자 조희정 씨의 외조모, 당시 연세 82세 외할머니께서 울산에서 공시지가 5000만 원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서빙고 아파트를 갑자기, 울산에서 올라오셔서 이 아파트를 매입하십니다. 매입을 하시는데요.

혹시 배우자 외할머니하고 관계가 지속적으로 있으셨습니까? 자주 뵙고 그러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외할머니가 울산에도 사시고 서울에도 사시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주 왕래를 하셨냐고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왜냐하면 증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왜냐하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 5000만 원 증여도, 그 집 증여도 따님들 일부에게 증여하고 재산이 그렇게 크게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빙고 아파트를 매입을 하셔서 외손녀 그리고 외손녀 사위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증여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증여해 주시기 전에, 한 달 전에 대출을 4억을 일으켜요. 그러면 과표가 어떻게 돼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

○김영환 위원 30%에서 20%로 줄어드는 거요. 그렇지요?

이 부담부증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거당이 또 2007년 12월 20일 날 해지가 돼요. 이것도 출처를 좀 주세요. 그런데 지금 안 주셨어요.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실 수 있는 거래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셨어요. 증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국세청이 한 것대로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소상히……

○김영환 위원 어떻게 국세청장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본인이 증명을 못 하는데.

그다음에 이게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혹시 용산에 오신 외조모님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몇 년 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증여까지 해 주시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몰라요? 아니,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몰라요? 외손녀 사위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증여까지 해 주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몰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18년 3월 5일 돌아가셨어요. 저도 압니다, 서류 보고. 어떻게 관계가 그래요?

그런데 증여세를 또 내는데요. OECD 가신 적이 2007년 1월이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증여세 낸 것은 2월, 4월이에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김영환 위원 혹시 배우자님 나오셨어요, 중간에 2월·4월? 출입국 기록도 안 주시더라고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면 직접 안 나오셨으면 누가 냈어요, 대리인? 통장 거래내역도 안 주셨어요, 또.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통장 거래 내역이나 그런 것은 제가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환 위원 아니, 보여 주는 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것만 딱 찍어서 보여 주시면 돼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러니까 통장 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왜 의심을 사느냐? OECD에서 못 나오셔요, 3년 계셨으니까.

그런데 유창빌딩이라고, 바로 거래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1.3km입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 도대체 증여세 1억 2000을 누가 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저희가 프랑스를 가기 전에 살던 집의 전세금 뺀 것을 그대로 낸 겁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거래내역 보여 주시면 되잖아요. 증여세 납부 내역을 보여 주시면 되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것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근거당 말소 그것도 함께 보여 주십시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저희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보여 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오기형 위원 1분 의사진행발언……

○정태호 위원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송언석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정태호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송언석 그러면 정태호 간사님 한 분만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아까 강민수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발견이 돼서 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6조(답변등의 거부) 1항에 ‘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국회 증언·감정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 과정에서, 특히 임광현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보면 업무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위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지적을 해 주시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앞서 오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이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법령의 규정에도 맞춰서,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여러 장관후보자나 청장후보자들의 그동안의 청문회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충실히 제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속 있는, 내실 있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장 송언석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저 간단한 것, 중복되지 않는 것 하나만 잠깐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언석 발언 기회를 줬는데……

하고 난 뒤에 하시겠어요?

○오기형 위원 하고 나서.

○위원장 송언석 예, 하고 난 뒤에.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원 진해구 이종욱입니다.

후보자는 평생을 공직에서 자기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청문회는 정책질의보다는 후보자 신상 관련 질문이 많았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후보자의 95년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국민 앞에 사과하셨습니다. 그다음 많이 나온 신상 관련 질문이 처가 기업과의 이해충돌 우려 그리고 공정성,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앞서 정태호 간사님이 답변 거부 내지 답변 회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시간 제약의 원인도 있었던 것 같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서빙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입자가 삼성SDI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몰랐습니다.

○이종욱 위원 몰랐지요? 그러면 삼성SDI가 처가 기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삼성이라는 명칭은 처가 기업이 수주한 다른 기업하고 겹칩니다만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세입자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경제적인, 비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적 있습니까, 후보자가?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없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처럼 개별적인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 과정을 통해서 소상히 해명하여야겠습니다만 후보자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난 30년간 어떻게 처신을 해 왔고 그리고 만약에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어떻게 공정성을 유지해 나갈지 각오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기 굉장히 외람되지만 그래도 지난 30년간 굉장히 조심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만약에 국세청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걱정하시는 이해충돌이나 또 다른 면에서 정말 조심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국세기본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살펴봤더니 직접적으로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나 심사청구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일단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항상 노력하고, 그다음 필요하다면 불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회피 신청을 한다든지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춰 놓고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후보자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문회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이력을 살펴봤더니 국세청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고요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과장 때는 닦고 싶은 관리자에도 두 차례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론과 실무·소통을 겸비한 준비된 국세행정 전문가’, ‘업무·소통·관리 세 박자를 두루 갖춘 닦고 싶은 관리자’, ‘유쾌맨이 돌아왔다’, ‘일 처리 깔끔한 세정 전문가’ 등 이처럼 현재까지 언론의 반응도 잘한 인사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전 정부 이후 네 분의 청장님과 이력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제가 든 느낌은 일은 참 열심히 했는데 승진 기회가 늦게 찾아왔다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보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청장들보다는 조사 업무에는 조금 짧은 근무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청의 징세국장도 했고 그다음에 전산정보국장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기획인사, 기획조정관에 4년여 경험을 한 게 눈에 띕니다.

후보자는 인사권자가 민생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기획통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청장으로 지명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인사권자의 뜻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경제가 여러모로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 굉장히 신중하게 잘 운영하면서 균형 잡힌 국세행정을 펼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균형 잡힌 국세행정, 그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가 어떤 개혁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개혁 과제라기보다는 지금 일단은 세수가 많이 어려워서 세정집행기관장의 후보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지원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은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그런 수단보다는 세정신고를 도와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일단 재원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도 후보자 취임 후 가장 신경 써야 될 분야가, 국세청장이면 세입징수기관의 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입예산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대규모 세수결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산 대비 실제 국세수입 오차를 보여 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 2020년은 그나마 양호합니다만 2017년, 18년에 23조, 25조 초과 세수 발생했고 2021년에는 61조, 22년에 52조 초과 세수 발생했습니다. 2023년 작년에는 널뛰기를 해서 56조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산 대비 실제 오차가 10~20%에 이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국세청도 기재부 세수 추계에 참여하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어떻게 세수 추계를 지원하고 어떤 자료와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저희는 주로 현장에 있는 의견을 세수추계위원회나 기재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별 세수 진도 상황이라든지 세목별 상황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편업으로 자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나머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질의 전에 간단하게……

○**위원장 송언석** 예, 질의하시기 전에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저희 오전에 자료 요청을 좀 한 게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관련 주식을 다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특수관계 회사들 관련된 일부 자료 제공을 점심에, 조금 전에 받았는데 6개 회사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외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확인서 하나 들어왔고요.

그리고 회사들 중에서도, 회사에서 그걸 확인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함께 좀 제공을 해 주시면 싶습니다. 자료 요청에 대해서 좀 더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성실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정일영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여쭙보는, 질의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사청문



회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후보자가 되었나, 전문성이 있나, 국민상식에 맞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나. 두 번째는 취임한다면 잘할 수 있겠나,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청장후보자께서 아침에, 오전에 얘기한 것도 보면 ‘따뜻한 국세행정’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따뜻한 얘기를. 그런데 보면 서울국세청장 하시면서 반대예요. 차가운 국세행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국세청장을 보통 몇 년을 합니까, 평균적으로?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이 막 갑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한 1년 정도……

○정일영 위원 1년 정도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 얼마 하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2년 됐습니다.

○정일영 위원 2년 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일영 위원 거기에서 세간의 말이 있는 겁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2년 동안 서울국세청장 하시면서, ‘윤심 따라 움직인 강민수의 11개의 칼날’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특별세무조사 이야기인데요. 서울국세청장을 남들보다 2배를 하면서, 2년 동안 하면서, 여기에 보면 소위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특별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11개를 발췌를 했어요.

여기 보면 여가부 폐지 주장을 하니까 불과 하루 뒤에 세무조사가 들어가요.

대형입시학원, 윤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카르텔이다’ 하니까 13일 만에 바로 서울국세청이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특별세무조사 착수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셨지요?

그다음에 일타강사 현우진. 현우진이 정부 정책을 비판해 버려요. 그러니까 일타강사 현우진 발언 13일 만에 세무조사가 또 들어갑니다. 다 그렇게 하셨지요?

나중에 날짜 확인해 보세요. 바로 세무조사를 다 하신 것 아닙니까? 하셨지요?

답을 하세요. 하셨잖아요. 왜 답을 안 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개별 건이라서……

○정일영 위원 아니, 특별세무조사 했냐 안 했냐를 여쭙보는 거예요.

아까 간사께서 했잖아요, 답변을 잘하시도록.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정보 물어봤습니까? 다 자료도 안 내놓고.

특별세무조사 하셨지 않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개별 건은 판례에 의해서……

○정일영 위원 아이참, 언론에 다 나와 있고…… 참 답답하네요.

위원장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세무조사 한 것 그거 물어보는데 답변 안 해요.

○박대출 위원 억박지르는 건 얘기 좀 하세요.

○위원장 송언석 너무 억박지르는 것도 좀……

○정일영 위원 아니, 억박지르긴 뭘……

아니, 상대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런 말씀 하면 됩니까?

○위원장 송언석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정일영 위원 이것 시간 빼세요.

아니, 상대 위원 질의하는 데 끼어들어 가지고……

신한은행, 국민은행도 세무조사 13일 만에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윤 대통령이 발언한 날짜를 계산한 게 아니고, 세무조사를 한 것 아니에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

○정일영 위원 답변을 전부 거부하는 거예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판례에 의해서도 개별 건에 대해서 했는지 여부를 말을 못 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일영 위원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이렇게 청문회에서 묻는 데 전부 거부하면 우리 청문회에서 뭘 물어보니까?

MBC, 나토 순방 1호기 탑승 뭐 어쨌고 하니까 그것도 바로 들어갔잖아요, 한 달 만에. 쌍방울 5개월 만에 들어가고 YTN에서 김건희 여사 하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3개월 만에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2년 동안 11개의 대표적인 칼날을 휘두르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세청장후보자로 올라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들어 보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

○정일영 위원 아니, 좀 답변을 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준비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정일영 위원 아니면 아니다, 틀리면 틀리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준비 과정에서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제가 욕박지르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죄송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11개 했는데 그다음에 이게 검찰 수사로 이어졌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

○정일영 위원 모르면 모른다, 거부를 하려면 거부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추정세액도 어느 정도나 됩니까, 11개의 대표적인 특별세무조사 해 가지고? 그게 뭐 문제를 좀 밝히고 개선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일정 규모가 넘는 기업이 되면 이게 순환조사라 해 가지고 한 몇 년이 되면 그냥……

○정일영 위원 그러면 그 11개 특별세무조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됐습니까, 어디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저희 절차가 현장분석팀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

○정일영 위원 좋아요.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그것은 나중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밝혀질 겁니다, 몇 년 지나서 검찰의 수사가 있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답변을

지금 거의 다 거부하셨습니다.

따뜻한 국세행정, 오늘도 또 몇 차례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다 안 지켜지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분이 정말 국세청장 하시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잘하실 수 있을까? 신중하게 하겠다, 성실하게 하겠다. 전에 서울국세청장 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지켜져요. 따뜻한 국세행정 하겠다, 안 지켜질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조세불복률 한번 보십시오. 조세불복률을 보시면 이게, 서울청장 하실 때 조세불복 심사청구 현황 보면, 국세청에 접수된 것 20.8%가 그 앞의 2년보다 많아요.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서울청 조세불복 심사청구 현황, 무려 51.5%가 높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조세불복 법원에 한 것 19.1%, 경정청구환급·불복환급 현황, 대폭 증가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청장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신뢰 있는 국세행정, 따뜻한 국세행정 그것하고는 반대되는 일을 하셨다는 거지요, 서울청장 하시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인사청문회. 전문성 있냐? 전문성 있으세요, 국세청에 계셨으니까.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의 그런 것을 거쳤냐 그게 의문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잘하실 수 있겠냐? 서울청장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특별세무조사와 조세 징세 이쪽으로, 국민 편의보다는 징수 쪽에 치우치신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청장 하실 때 이렇게 높은 불복률?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이게 변명같지만 특히 조세심판원 저 건수가 수천 건씩 는 것은 작년하고 2년 동안에 종합부동산세 위헌 청구가 2000건, 300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소송이라는 게 사실 지금 제기가 되더라도 실제로 그 부과는 2년 전이나 3년 전에 있었던 것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일영 위원 하여튼 그것 말고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그런데 중요한 열한 가지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개시키고 거부하고 그러시면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죄송합니다.

○정일영 위원 나중에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서울시 강서을 출신 진성준입니다.

용산 아파트 계약 문제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계약서를 직접 체결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SDI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성준 위원 예.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저희 집사람이 가서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부인이 가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평일이라서 제가 그때 세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부인께서는 현장에서 그 계약 상대가 삼성SDI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건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부인께서 후보자에게 전화해 가지고 ‘삼성SDI인데 괜찮겠어요?’ 이렇게 묻지는 않으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은 부인께서 하신 거고 후보자는 잘 몰랐군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진성준 위원 잘 몰랐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맞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언제 알게 됐습니까, 계약 상대가 삼성SDI라는 것은?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 주말쯤에 집에 갔을 때 알게 됐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이것 좀 계약을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오해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진성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치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그 상황을 조금만 더 설명……

○진성준 위원 설명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게 지금 그 계약서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맡긴 중개소가 있고 SDI 쪽에서 임원용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쪽도 중개소가 있고 이게 중개소가 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 계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이쪽 중개소에서 오라고 하니깐 갔는데 저쪽 중개소에서 그분을 데려왔고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일주일쯤 후에 알게 됐잖아요, 계약 상대가 삼성SDI라고 하는 것?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진성준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으로 계셨던 때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리고 차세대 국세행정전산망을 구축하는 수주를 삼성SDI가 맡아서 했

지 않았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진성준 위원 그리고 그 관리를 삼성SDI에서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그 업체는 SDS라고 저희……

○진성준 위원 삼성SDS였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것도 제가 전산국장 가기 전에 옛날에 대기업이 맡아서……

○진성준 위원 예, 물론 그 전에 했던 겁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러니까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진성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은 계약금, 그러니까 전세금이 8억 8000만 원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 8억 8000만 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그때 또 대치동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세가 저쪽에 이어져 오고 저도 이쪽에 이어져 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이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강남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넣은 거예요? 강남 대치동……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용산의 아파트를 전세를 쫓을 때 세입자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에. 앞쪽의 두 분은 개인이었고요, 세 번째 들어온 분이 그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의 분이 들어오시면 앞의 분한테 돈을 내드리고 내드리고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앞의 나가실 분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준 것이네요, 8억 8000만 원을 받아서?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그 용산 아파트에 사시다가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지않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14년도에 이사를 갔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신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때 전세로 가셨지요, 전세 거주라고 되어 있던데?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때 전세보증금은 얼마였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쪽에 처음에는 6억 5000에 115만 원을 쫓다가 2년 있다가 2016년에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는 6억 5000에 145만 원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쪽에서 월세를 제가 다른 개인들에 비해서 올려 받은 만큼 저도 대치동에서 거의 그 정도의 금액을 올려서 드렸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용산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그리고 월세도 받으셨습니까, 그 전에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저는 전세를 했고요. 저쪽 대치동에 살 때는 제가 전월세를 했습니다, 드릴 때.

○**진성준 위원** 반전세?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진성준 위원** 그래서 그 보증금을 가지고 대치동에 저것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의 분 나가시면 새로 들어오신 분 것 가지고 내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묘하게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의 세무조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은 하명 세무조사다 또 정치적 세무조사다 이렇게 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연간 서울청에서 조사하는 세무조사 건수가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연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충분히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업체가 어디 쪽이든 탈루 혐의가 있고 특히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부당…… 이렇게 탈루된, 유출된 혐의가 있으면 거기에 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맡겨진 일을 그냥 했습니다, 위원님.

○**진성준 위원** 탈세 혐의가 있어서 조사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러니까 선정 자체는, 일단은 국장 선에서 조사현장분석팀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고 결재는 마지막에 제가 하게 됩니다, 위원님.

○**진성준 위원**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지요.

그 용산 아파트가 부인의 외할머니께서 증여해 주신 아파트라고 그러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게 부담부증여였다고 하는데 그 근저당은 어떻게 해소된 것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 처 외할머니가 그 은행에 4억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천……

○**진성준 위원** 증여하기 한 달 전에 발생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것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어쨌든 그 근저당이 있었는데 2016년 12월 말에 제가 그것을 증여를 받고…… 2006년 12월에 받고 2007년 1월 2일 자료, 며칠 안 돼서 제가 프랑스의 OECD에 근무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대출을, 저희가 바로 그 은행 것을 당겨쓰면 되는데 이게 절차나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저희 처 할머니 명의로 놓아 놓고 나중에 그 은행 대출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저희 계좌에서 이자와 마지막에 이렇게 대출금 상환금까지 다 나가게 되고.

그것은 제가 아까 우리 실무 직원한테 그 계좌 이체된 내역을 다 말씀드리라, 보여 드

리라라고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채무까지 다 넘겨받아서 채무도 변제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진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일단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하지요.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 볼까요.

지금 현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국세청이 이런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세무조사는 일단 목적 자체가,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든 비정기든 세법상 규정된 요건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소위 특별조사라고 불리는 비정기도 있지만 정기도 있습니다. 정기 같은 경우는 선정 자체가 최소한 1년 전에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니까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혹시 후보자께서 국세청장으로 최종 임명되신다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런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정말 불편부당하게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이런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나 위법행위가 있을 때……

○위원장 송언석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불편부당하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정확하게 불편부당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청장님이 쓰시기는,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부당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중도의 위치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지요.

○최은석 위원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더라도 위법행위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국세청이 그 조사대상이 누구인지 막론하고 엄정하게 세무조사 해서 과세하는 게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탈루 혐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석 위원 그리고 일단 아까 거론된 회사들 중에 일부, 예를 들면 법원에서 판결 난

불법행위에 의한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했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법인세법상 손금부인이 되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기업들 경우에 자금이 부당 유출되거나 할 때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게 되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최은석 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위법행위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 국세청은 앞으로도 엄정하게 세법 집행을 해서 관련된 세금을 징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관련해서, 아까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세수 부족 문제가 되게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미에서 세원 발굴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국세청이 외부로부터 탈세 제보를 받아서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또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프로세스가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 제도에 의해서 세금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좀,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던 그런 세원들이 발굴된 어떤 성과는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아무래도 탈세 제보도 그렇고 저희가 직원들이 수집하는 현장정보에 의해서도,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가상자산 같은 내용 또 주식리딩방 이런 것들은 탈세 제보나 저희 내부 수집 정보에 의해서 과세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최은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2년에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대장동 관련된 이슈 아실 텐데 그 탈세 제보가 있었습니니다. 22년 2월 달에 있었는데 22년 4월에 국세청에서 중간 회신을 통해서 ‘탈세제보전담 관리반에서 분류처리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회신을 한 내용인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이번에 보고받았습니다.

○최은석 위원 지금 벌써 중간 회신한 뒤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났지요. 2년 정도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예를 들면 이것을 세무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좀 명확하게 방향을 결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계속 이렇게 보류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특정한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못 드리지만 이 탈세 제보 내용에 구체적이고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한 번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최은석 위원 그래서 이게 그 제보자의 내용에 보면 한 1000억 정도의 법인세 탈루에 대한 의심 정황이 있고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2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지속할 문제라기보다는 국세청에서 가부간에 판단을 내려서 제보한 분에게 다시 회신을 해 주든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법인세 탈루액이 있으면 징세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탈세 제보가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모두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본 다음에 정말 구체적이고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검증을 하게 됩니다.

○**최은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가부간에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되게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 특히 불법 사금융 그리고 불법 도박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22년도 정부 공식적으로 조직도 만들고 또 일시 단속을 했는데, 지금 불법 사금융 규모를 금융감독원에서는 한 10조 정도 또 서민금융연구원에서 한 20조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불법 고리이자율 규모를 생각하면 여기서 발생한 불법 부당이익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23년 11월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한 431억 정도 징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전체 규모에 비하면 세금으로 추정된 규모가 너무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저희가 민생업종 중에서 특히 대표적인 업종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매년 이렇게 다 검증을 하고 있음에도 조금 모자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한 또는 사업자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민생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안하고 대응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후보자님.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최기상 위원** 국세청장은 차관급임에도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후보자 개인이면서도 2만여 국세공무원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헌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관.

그런데 우리 헌법 제1조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국민주권주의라고 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모여 있는 곳이 이 자리, 국회잖아요. 국회에서는 대답을 못 할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개개의 법률이나 다른 규정, 국세청 내부지침 등을 이유로 발언을 하지 않으시면 헌법 제1조제2항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될 수 있어요. 명심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해서 우선 잠깐 말씀드리지요.

저는 국세청이 국민의 공동자산인 세금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인사 청문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공동자산인 우리 세금을 국세청이 지켜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켜 내야 됩니다.

불로소득 자본주의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무슨 뜻인지는 대강 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최기상 위원** 노력소득 자본주의여야 되는데 불로소득 자본주의예요. 금융자본주의의 외피를 쓴 야바위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야바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최기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최선봉에 서서 국민 대다수의 자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 청문회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관을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증명을 해 주셔야 돼요, 본인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세정을 책임질 사람이다.

지금 부의 대물림과 가난의 대물림 정말 논란이 많이 됩니다. 국세청의 책무는 부의 대물림은 끊어 내고 가난의 대물림도 끊어 내는 세정을 해야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우리 헌법 제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세청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오늘 말씀으로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정치세력의 지시를 받아서 세정활동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한 자를 힘 있게 하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는 세정이 돼야 됩니다. 왜?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불평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불평등을 개선할 책무가 결국 세금을 걷어서 쓰는 데 있거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가치, 헌법관을 지금 여쭙본다고 했어요.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와 평등에 상위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재산권이나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서 정한 수단적 가치예요. 우

리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런데 오도되고 있는 거지요. 재산권을 잘 지킬 자유를 최고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과거 외국에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누진세제나 최고 소득세를 어마어마한 때가 있었거든요.

세 번째로는, 국세청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 징세 절차가 미흡하면 조세 정의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근본적인 변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 국세청의 집요한 징수 사례들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최기상 위원 우리 국세청이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물론 미흡한 점이 많지만 저희 일선에 있는 직원들 중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집요하게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더 잘하도록 많이 이끌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평등과 분배 관련해서, 누진소득세 필요성에 관해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 포괄주의 문제나 우리 헌법재판소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최고 소득세율을 미국이나 영국에서 인하였을 때 불평등이 심화됐고 더욱이 소득세를 인하가 성장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통계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이런저런 불법이나 불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보통 공무원 생활 하는 분들 중에 불의나 불법을 저지르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분은 많이 없지요.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에 만연돼 있는 불의를 묵과하지 않고 개선해야 되는 책무를 다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무행정 30년 하셨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아니면 ‘이래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세요? 어느 쪽이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특히 저희 세무행정도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세 정의나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간절함이나 절실함으로 일을 해 오셨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의 고위공직자들은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별로 없어요.

무전유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유 자가 유인한다는 뜻입니다. 무전, 돈이 없으면 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회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돈이 있으면 죄 저지를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히 후보자가 불법이나 불의를 저지르느니 마느니가 오늘 청문회의 주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PPT를 보시겠습니다.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이렇게 심각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오늘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내용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만 국세청, 이 두 지점에 대해서 어떤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일하실 계획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의 대물림, 특히 부가 정당한 과세 없이 대물림되는 것은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난의 대물림, 저희가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는 한데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약자에 대한 복지 세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녀장려금이라든지 근로장려금이라든지 그런 저희가 하고 있는 각종 복지 혜택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부의 대물림에서 ‘세금만 아니면 뭐들 못 주겠나’, 이렇게 집요하게 세금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점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최기상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황명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서울청장 근무했던 시절이, 몇 년도에 취임했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22년 7월 달에 취임했습니다.

○황명선 위원 앞서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화천대유 세무조사 했습니까? 화천대유.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그게 개별 건이기도 하고……

○황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서울 쪽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개별 건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화천대유는 서울청 관할이 아닌……

○황명선 위원 대전청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확인해서 이후에 자료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쌍방울 언제 세무조사 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그 개별 건은……

○황명선 위원 그냥 했냐 안 했냐 이것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했다라고, 서울청장 계실 때 쌍방울 세무조사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다음에 네이버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황명선 위원 성남FC와 관련된.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성남FC 관련이면 후원금 관련 말씀하시는……

○황명선 위원 관련된 기업들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후원금 사건은 제가 전에 보도에서 보기로는 2015년 사건입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니까요, 세무조사……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서울청장으로 왔을 때는 이미 그 건은 시효가 끝난 건입니다.

○황명선 위원 그 이후에 취임하고 나서……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네이버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 그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건은 이미 시효가 끝난 건입니다.

○황명선 위원 오시고 나서요, 서울국세청장 오시고 나서.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15년 건은 제가 서울청장 왔을 때는 이미 시효가 끝난 건입니다.

○황명선 위원 MBC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언론사들은……

○황명선 위원 YTN.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언론사들은 이렇게 비정기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몇 년마다 딱 정해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황명선 위원 언론에 MBC나 YTN과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장악’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MBC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무조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사가 있어요. ‘MBC, YTN 왜 갑자기 세무조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정권의 요구에 의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혹시 제게 앞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의심의 여지나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정말 불편부당하게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어 가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자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거짓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상자산 보유·거래에 대해서 자료제출 안 했지요, 많은 의원실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그게 일괄 질의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거래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그다음 날인가 바로 오류표를 돌렸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니까 수정 답변 제출해 주신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처음에 할 때 왜 이 자료제출 안 해 주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황명선 위원 과거에 대통령실에도 자료제출을 다 했더라고요, 자기검증질문서에.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황명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위원들께서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뺏더라 말입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일괄 질의에서는 제가 착각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답변을 내보냈고요.

위원님, 조금만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황명선 위원 예, 간단하게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대전청장 하던 22년 1월 달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여러모로, 과세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직원 도움을 받아서 계좌를 열고, 22년 1월 27일 날 계좌를 열어서 딱 한 번 샀다가 팔았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 대통령실에는 과거에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에는 자료제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업체에다가 요구했더니 결국 안 된대요. 그래서 다시 요구해 가지고 결국은 이후에 이렇게 제출하게 됐는데……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내용 보면 ‘귀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국세청장후보자 및 가족의 업비트 가입 여부…… 개인정보 자료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제출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해 가지고, 이후에 우리 의원실에서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거래내역 확인됐습니다.

저는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국세청장후보자로서 국민들 앞에서 모든 알권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누락시켰다라는 것이 잘 납득이 안 돼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22년 1월 달에 딱 한 번 사 보고 말다 보니까 제가 사실 그 계좌가 있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까먹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황명선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4월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삼성SDI하고 전세계약 체결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삼성 대기업은 국세청의 정기 특별세무조사 대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삼성SDI는 홈택스 고도화 등 국세청 중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그 당시에 후보자님은 국세청의 어떤 보직을 갖고 있었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전산정보관리관이었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안 되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그 업체는, 제가 가기 전까지 계약을 했던 업체는 SDS라고 전혀 다른 업체입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니까 SDS든 SDI든 삼성이라는 기업은 국세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무조사를 하는 기관이예요, 징수하는. 그런데 굉장히 부적절하잖아요.

거래한 금액도 7억 5000……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후에 8억 1000. 그런데 후보자는 8억 8000만 원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어요. 이게 그 당시에 그 안에 있는 용산 신동아아파트의 가격인데 굉장히 비싸게 들어왔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이었습니니다, 위원님.

○황명선 위원 특별한 거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명선 위원 이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후보자님, 혹시 검찰의 송강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떻게 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 아래 동서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도 아마 인사청문회 나오면 후보자와 비슷한 형태의 답변을 해야 될 거예요.

자료를 받은 건 아니고 구글에서 검색을 했더니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세월강판, 유로직스, 유창건업, 오이바이오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강민수 후보자의 배우자, 검찰국장의 배우자가 동일하게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송강이라는 분이 뭐 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검색해 봤더니 2021년까지 수원지검 2차장검사, 22년에 대검 기획조정부장, 2023년에 인천지검장, 올해 현재 검찰국장으로 영전했어요. 1급 이상이니까 아마 재산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색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동일해요, 비슷해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김학의 차관에 관해서는 모든 국민이, 잘못된 건 김학의인데 김학의를 수사했던 이성운 검사장을 수사하는 게 맞냐라는 게 국민적인 의견인데 그게 불법이라고

수사했던 검사고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승진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오늘 대상자가 아니라 빼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수 후보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달리 서울국세청 시기에 11건의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동일, 비슷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넘겨 주세요, PPT를.

‘친기업 세정정책을 한다더니…… 대거 특별세무조사’, 조사4국이지요. 이스타항공, 쌍방울, 빗썸, 비텐트.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국세청, 내부거래 급증 네이버 세무조사’.

제가 보기에는, 우연의 일치 치고는 너무 좀 맞지 않아요? 이게 다 보면 쌍방울, 이스타항공, 네이버 등 이재명 대표와 또 연관된 사람들의 회사에 관련한 조사들이 유달리 국세청장이 재임했던 당시에 조사가 진행됐어요.

이것도 정기 세무조사입니까? 네이버, 이스타, 쌍방울, 빗썸, 비텐트 다 정기 세무조사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특정 건에 대해서 이게 정기인지 아닌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임광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네이버는 본사가 성남에 있기 때문에 중부청 관할이에요. 그런데 서울청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진행한 거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네이버 빼고.

관할이 중부청 관할이라서 중부청에서 수사하는 게, 조사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네이버를 서울청에서 조사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청은 한 번도 국세청 본청에서 지시를 받거나 본청의 지휘를 받아서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중부청 관할인 네이버를 서울청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지금 통계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부하고 서울하고 교차 내지는 관할 조정을 한 건이 한 3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정 건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량이나 또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일례로 네이버 등 관할 조정을 하는 경우 국세청 본부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서울청이 하고 싶으면 서울청장님 사인으로 중부청 관할인 네이버를 불러다가 서울청의 조사4국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것 관할 조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본청하고 이렇게……

○김영진 위원 ‘아무래도’가 아니라 정확히 답변하셔야지요! 지금 공직후보자가 ‘아무래도’라는 게 말이 어떻게 돼요!

국세청의 지휘, 공문, 그에 근거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관할 조정은 본청하고 해서 하게 됩니다.

○김영진 위원 본청의 공문에 의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공문에 의해서 하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런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 서울청장 하고 지금 국세청장 후보자로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도 정확히 못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공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 서울청 국장도 하였고 청장도 하였고 대전청장도 하셨는데 공문이 없이 어떻게 중부청 조사를 서울청에서 합니까? 결국은 이 조사 자체가 인위적으로 서울청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국세청, 즉 본청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관할을 조정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은 청문회라 넘어가지만 나중에 조사하면, 예전에 국정조사 했을 때 그런 공문들이 다 나와서 확인이 돼요. ‘아무래도’ 이런 말로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11건에 대한 부분들에 관해서 서울청장으로 있었을 때 본인의 의지였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건 그런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관할 조정이 되면서 진행됐던 사건이 대단히 많다는 게 이렇게 나온 조사와 행정 절차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아마 임광현 위원님이 재차 질의할 텐데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 MBC, YTN, KBS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스터디, 현우진 조사 그다음에……

한번 넘겨 주세요.

물가도 마찬가지로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BBQ 특별세무조사.

하여튼 국세청이 국세행정의 공정과 원칙에 의해서 했다고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극복해야 될 국세청의 과제 아닙니까?

청장 후보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답변은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추가적인 질의는 다음에 하는데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김영진 위원 증언·감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공직후보자로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구미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분들, 다 계시지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 비롯해서 위원님들 답변 요구할 때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그것 관련해서 답변이 좀 부족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때 배석한 분들이 조금씩 해 주세요.

○박홍근 위원 그건 원래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인사청문회인데 어떻게 해요?

○구자근 위원 쪽지 주고 그건 하지요. 하는데……

○**김태년 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뒤의 배석자가 해요?

○**오기형 위원** 본인이 책임져야지요.

○**박대출 위원** 팩트 확인은 해 줄 수 있는 거지.

○**구자근 위원** 기초자료를 좀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자님, 조금 전에 서울청에서 1년에 세무조사 한 건수가 몇 건이라고 그랬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연간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재임 시절 1만 건이 넘네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1만 건 중에 11건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걸로 하고……

그리고 앞서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고 또 후보자의 30년 전 논문에 관련해서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후보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과 역사적 인식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몇 번이라도 사과드릴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 어쨌든 제가 미숙한 상태에서 그런 내용의 논문을 쓰게 돼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80년 당시에 아직 용어 정립이 안 됐을 때 각 언론에서도 예를 들어 광주 사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88년 6공화국 출범하면서 국회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정식 규정했고 또 후보자 논문에도 보니까 각주 46번 이래 가지고 ‘동아일보 80년 5월 22일’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단순 인용이라 하더라도 논문 작성 시에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후보자님,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앞으로 이 일로 인해서 후보자가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관을 의심받거나 업무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더 명확히 하고자 제가 후보자에게 한 번 더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12·12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논문을 인용한 것이고 또 참고논문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대부분 보니까 주로 경제정책의 평가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제가 21년도에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경북 칠곡 다부동전적 기념관에 방문, 연설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3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가 분명히 맞다라고 이재명 대통령후보 시절에 다부동에 와서도 연설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대통령이 공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가 구분해서 돼야 되는 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혹시라도 후보가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예를 들어 그 대통령의 과오를 찬양 하듯이 혹시라도 오해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후보자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한번 더 밝혀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전두환 전 대통령 12·12 사태는 97년 대법원에서 이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다라고 했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공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책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작년에 혹시 국세청에서 조세불복소송 중에 몇 건이나 패소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이게 금액하고 건수하고 좀 다르기는 한데 건수로 따지면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한 135건인데 패소율로 따지면 전체 1500건 중에서 사실은 9%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00억 이상 소송가액 경우를 보면 한 47.4%, 거의 한 50%에 달하는 패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시중에서 국세청의 고액 과세에 대해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

다. 후보자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무래도 100억 이상 되는 건들은 특히 외국계 기업이나 선례가 없거나 이렇게 법리적으로 해석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붙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100억 이상 되면 저쪽에서도 큰 로펌이 붙고 저희도 대리인들을 써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이게 선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여기서 문제는 고액으로 갈수록, 고액의 사건에 패소를 할수록 실질적으로 패소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금액도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아지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서 5년간 보니까 690억,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여기 지금 5년간 지급한 변호사 수입료가 한 330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국세청 관련해서 소송 변호사들 몇 명 정도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한 90명 이상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구자근 위원 그렇게 5년간 변호사 수수료하고 패소 배상금하고 하니까 1000억이 넘어요. 적지 않은 금액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구자근 위원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저희가 아무래도 과세 전에 좀 치밀하게 하고 과세 이후에도 어떤 분야에 특정돼 가지고 잘하시는 대리인분들 좀 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정부법무공단이나 여러 가지 연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리고 지금 세정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혹시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구자근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들에 대해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주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중소기업이 해당되지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것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조금 약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강민수 국세청장후보자, 후보자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모두발언, 인사말씀 읽어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저에게 국세청장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청년 시절부터 간직했던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에 더해 그동안 고민해 온 국세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의지 갖고 계신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청년 시절에 간직했던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어떤 거였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무래도 공직에 나가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익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의 맡은 일만 묵묵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성호 위원 국민민복을 위해서 또 공공선을 위해서 국세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이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성호 위원 그 의지를 모두발언에 다 담았는데 꼭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명심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국세청장 청문 후보자로서 위원들 앞에서 하고 또 국민들 앞에서 하는 그런 약속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성호 위원 여전히 국민들이 국세행정을 바라보는 눈은 좀 차갑습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 위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차갑습니다. 특히 늘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정권 초기에 전 정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더불어서 또 정권의 눈 밖에 났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대개 의심하고 있어요. 관련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후보자가 특별하게 답변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저는 다만 좀 지적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쌍방울 특별세무조사도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쌍방울 같은 경우도 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 하기 전에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돼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시작해 가지고 다방면에서 굉장히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대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중에 다시 국세청이 뛰어들어 가지고서 다시 또 특별세무조사 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을 겁니다,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검찰의 수사가 끝나고 나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새로운 탈세 정보가 나오거나 뭐 하면 또 국세청으로 넘겨 가지고 특별조사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검찰 수사가 막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또 거기에 국세청…… 아니, 서울지방청 조사4국이 뛰어들어 가지고 세무조사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심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청장이야 당연히 법과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다른 제보가 있어 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성호 위원 저는 이런 면에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MBC나 YTN도 마찬가지로입니다. MBC도 정기세무조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MBC 관련해서 문제는 말입니다, MBC 정기세무조사 한다고 하면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세무조사하고 있다 그것 외부에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공개 안 합니다.

○정성호 위원 공개 안 하지요.

그런데 MBC는 정기세무조사 시작되면서 바로 금방 알려졌어요, 외부에.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정치권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또 세무조사 결과, 사실은 세무조사를 한 결과 얼마얼마 추정당했다 이런 것도 다 개별 사안이라고, 정보라고 해 가지고 공개 안 합니다. 그런데 520억 추정당했다 그게 바로 그때 나왔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 수사가 아니라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시작된다는 것 다 알려지고 또 나중에 끝난 다음에 추정됐다는 것 다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다 언론에 유출되고 나니까 이게 정치적이었다 이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성호 위원 저는 이런 면에서는 특히 MBC, 더군다나 이게 서울청장으로 재직 중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 과세 당국만 알아야 될 그런 정보들이 일반 언론에 유출됐어요. 이런 정보는 유출되지 않게 사실 내부감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는 않았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이게 아무래도 회사 쪽에서 이야기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정성호 위원 어쨌든 회사 쪽에서 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본인들이 유출한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거든요.

저는 걱정되는 게 현 정권도 곧 중반기 넘어가서 이제 후반기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어려워요. 이럴 때 국세청을 동원해 가지고 특별세무조사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정치적 외압을 형성하고 다른 분위기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유혹을 받았던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청장이 정말 그런 면에서 엄정하게, 정치적 외압이라든가 권력 내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요구를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말씀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 의지를 갖고 해야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성호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채근담에 나오는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라는 말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성호 위원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춘풍·추상, 정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해야 된다, 자기 식구들 감싸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직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예요.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어쨌든 저는 배우자 가족들이 재산 있고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직자로서 배우자 가족이 부자라고 하면 큰 도움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제 걱정하지 않고서 공직에 충실할 수 있으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그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야 됩니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의해 가지고 공평무사하게 집행하겠다는, 세무행정을 하겠다는, 배우자 가족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상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아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성호 위원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국세청에 고위공무원 가족이 있는 또 더군다나 배우자가 주식을 갖고 있는 그 회사에서 국세청장 표창을 받는다는가 이런 것은 보기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의혹들 제시하는데 저는 거기에 청장이 관여되거나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좀 세워야 돼요.

관련해 가지고 청장뿐만 아니라 국세청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충돌 방지, 되지 않

게 시행해야 됩니다. 이걸 약간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국정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국세청 내부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 노력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사적 이해관계 신고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신고한 것도 대부분이 그냥 원래 한 96%, 통계 보니까, 자료 보니까 그대로 수용하라는 결정이 나오고 있어요.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국민들의 징수업무뿐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무조사라든가 범칙조사 이런 게 준사법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 되지 않게 내부적으로도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항상 유념하고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모든 제도뿐만 아니라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김태년 위원 저요?

○위원장 송언석 예, 순서상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그랬더니 순서가 돼 버렸네요.

후보자 되신 것 축하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니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일체 답변을 거부해 버려요. 그리고 아까 대법원 판례 예를 들던데 그것은 세무조사 결과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공개하지 말라는 거지요. 구체적인 납세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아니,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여기 국회예요.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세무조사 여부, 했냐 안 했냐 이것을 답변 안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대법원 판례도 그게 아닌데.

그리고 아까 정일영 위원님 질의에 보면, 정부에 무슨 불리한 주장을 하는 단체 그다음에 대통령이 언급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 사안 관련해서 10일·11일·13일 후 어김없이 세무조사가 들어가요.

지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긴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김태년 위원 오비이락입니까? 이 조사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10일·11일·13일 후 세무조사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1년 전에 세무조사 계획을 다 세워 놓은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정기의 경우에는……

○김태년 위원 이게 정기가 아니어서 하는 얘데요. 정기가 아니어서 하는 얘기라고.

무슨 학원 세무조사가 그게 정기세무조사입니까? 학원 강사들 세무조사 한 게 정기세무조사예요? 아니잖아요.

여기 국회예요. 답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김태년 위원 정책 개선 사항 관련해서 후보자에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이 중에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또 사후 권리구제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수긍할 수 없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서면 통지를 안 해도 되지요? 의무가 없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 소액 과세대상자들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유가 이런 것일 텐데 지금은 카톡이나 SNS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고지를 하잖아요.

제도개선할 생각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검토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태년 위원 그리고 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거나 기타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또 납세자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그게 그 통지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30일이예요, 주어진 기간이.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생업에 종사하면서 심사청구를 위해 관련 정보를 구하고 절차를 대리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고용하고 증빙서류까지 다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30일이면 짧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태년 위원 그러면 이것 조금 늘려야 된다고, 늘리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드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혹시 이게 유예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넣어서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일단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김태년 위원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의 의무가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같은 조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가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이른바 과세를 한 사람이잖아요. 과세를 한 당사자잖아요. 그 당사자한테 ‘이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대로 구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냥 바로 국세청장한테 이의 신청하는 게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정책 효과를 살리는 데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단은 안 드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래서 최근에 국세청장한테 바로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조금 완화를 했는데 더 완화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세수 핑크가 심각하지요. 작년에는 역대급이었고요, 56조, 59조. 올해도 현재 한 육칠조, 연말까지 가면 한 10조 세수 핑크난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세수 결손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 세수 예측과 관련해서 국세청도 회의에 참여를 하지요? 참석을 하지요, 추계회의에?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세수추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국세청은 제가 보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서 아주 소극적인 대응만 해요. 예컨대 현재까지 법인세 추정 실적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국세청은 최일선에서 징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 상황 등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잖아요. 그런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세수 예측과 관련한 회의 같은 데서 더 적극적으로, 세수와 관련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기재부는 이게 공중에 봉 떠 있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맨날 통계밖에 안 보니까. 그런데 국세청은 그냥 일선에서 알 수 있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무래도 이게 보텀업으로 모든 기업을 모아 가지고 숫자를 올리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숫자를 더 모아서 기재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는 뜻이에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후보자.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박대출 위원 MBC, YTN, KBS 이런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였다고 왜 당당히 답변을 못 하지요?

이것 말이지요 지난해, 지지난해 국정감사 때 다 해명했던 사안들입니다. 학원가도 마

찬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때 그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이것 미디어오늘 기사거든요, 2022년. 미디어오늘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박대출 위원 MBC 관계자,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며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라고, ‘조사를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다’. YTN 관계자, ‘최대 5년에 한 번 정기세무조사를 받는데 그동안 YTN은 4년에 한 번 정도 받았고 이번 세무조사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이렇게 다 밝힌 겁니다.

MBC, YTN이 어떤 곳입니까?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하면 가만있었겠습니까, 이 회사 관계자가? 이런 답변을 했겠어요?

국정감사에서 이게 다 해명되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 자료도 기본적으로 갖고 왔으면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답변을.

그리고 학원가 말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 한번 봐 주실까요.

한번 보시지요. 학원가는 매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PPT요.

문재인 정부 때도 예외 없이 해 왔어요. 2020년에는 반칙·특권 탈세혐의라는 이름으로 했고, 2019년에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8년에는 서민생활 밀집 분야 해 가지고 고액 수강료 신고 누락한 입시컨설팅·일타강사들, 수강료 가상결제시스템 차명계좌 연결한 고액 학원들 다 포함시켜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칙·특권, 민생침해, 서민생활 밀집 이런 게 지금 세무조사의 기준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역린을 건드려서 한 세무조사였습니까? 그래서 칼을 빼 들었습니까? 문심 따라 움직이는 국세청 칼날이었습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못 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정기조사가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조사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밝혀지고 국정감사 2년 동안 이 문제가 얘기가 됐고 질의 답변이 오갔던 내용이에요. 그런 것은 뒤에서 팩트 확인을 좀 해 주셔야지요.

그다음에 5·18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5·18 문제는 말이지요, 역사적인 사건은 시대에 따라서 용어나 표현이 계속 달라져 온 거였습니다. 역사적 사건은 다 그래 왔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과거의 표현을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고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표현은 과거의 잣대로, 현재의 표현은 현재의 잣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말이지요, 이게 1980년에서 1995년 12월 21일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어떻게 불리었습니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지요. 1980년부터 1995년 12월 21일이라는 게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제정된 그걸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뒤

라고 표현했어요? 표현이 다 달랐지요. 그 시기에 언론들도 그랬고 야당들도 그랬습니다.

한번 봐 주실까요. PPT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당시에 경향신문에서, 96년에 난 겁니다, 96년. 96년에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봐 주시지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 1995년 대변인 시절에 광주사태라는 얘기를 합니다. 장재식 전 산업부장관, 이때는 민주당 의원이신 분이었습니다. 연도를 보면 말이지요, 제가 볼게요, 그 쪽은 안 보이니까. 1999년이네요.

그러면 이분들도 표현을 잘못된 거면 이분들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사과를 요구해야지요. 처절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박지원 의원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이니 아니겠습니까. 처절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현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것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후보자가 여러 번 말씀하셨지요, 답변을. 그렇지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은 지금 어떻다라고 분명히 하셨지요. 지금 다시 정리 한번 해 주실래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나 그 사건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얼마나 숭고하면서 또 기념비적인 사건인지……

○박대출 위원 지금 잣대로 보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박지원 의원이나 장재식 의원도 부끄럽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하고.

그리고 처가 문제 말이지요, 처가가 기업이 돼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의 포인트는 말이지요, 불법이 있었느냐 편법이 있었느냐, 부적절한 언행이 있거나 행위가 있었느냐, 이해충돌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업이 크고, 처가가 기업이 집안이 되면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매출이 큰 기업은 안 되고 영세기업은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할게요. 30년의 공직생활 중에서 처가 기업과 관련한 세무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없습니다.

○박대출 위원 특혜를 준 적이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없습니다.

○박대출 위원 모범납세자상 수상과 관련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없습니다.

○**박대출 위원** 향후에 처가 기업과 관련된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성실히 신고하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대출 위원** 그러면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어떤 불법이나 부적절 행위가 없었고 앞으로 어떤 사안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엄중히 처신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거지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서울 중랑구의 박홍근입니다.

마침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질문이 있으니까 연이어서 제가 좀 여쭙보겠습니다.

그 법상 공직자에는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등의 결재선상에는 없지만 지휘와 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은 포함되니까, 안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포함됩니다.

○**박홍근 위원** 권익위 유권해석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사적 이해관계자 여기에는 처가 회사의 계열사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포함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당연히……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포함됩니다.

○**박홍근 위원** 배우자의 직계 혈족이 소속된 법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처가의 계열사이자 배우자가 감사로 재직 중인 유창이앤씨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박홍근 위원** 본사가 서울이고 심지어 작년에는 배우자가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따라서 후보자는 감독권자인 서울청장으로 재직 중에 마땅히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기피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한 적이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왜 안 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그런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공직자로서의 기본이잖아요,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는.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이것 관련해서는 정  
계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그런 처가 쪽 일과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받거나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독권자기 때문에 직접 안 날을 특정하기 어렵다 이 논리를 지금 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미 사전 서면질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반박 논리에 대해서는.

그런데 권익위 유권해석집에 따르면요 전결권자가 담당 국장이라 하더라도 담당 국장을 지휘 감독하는 최종 결정권자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포함되므로, 서울청이 처가 계열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조세의 부과나 징수나 조사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잘못했건 밑의 사람들이 그게 신고 대상, 회피 대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고를 안 했건 둘 다 문제건 이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까? 본 청장 되고 나서도, 만약 된다면 계속 이럴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직원들이 처가 회사에 매년 주기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그런 행위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심각성을…… 당연히 회피와 신고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그래야 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마땅하다는 듯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또 한 가지 더 여쭙보겠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의 문제 이게 최근에 가장 중시되는 국가와 사업주의 의무지요.

배우자는 역대 연봉을 받으면서 지금 유창의 인사총괄부사장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이런 일과 가정의 양립의 문제 그리고 임직원의 임금 지급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시던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홍근 위원** 제가 이 유창의 근로기준법 준수 현황을 봤더니 매년 임금 체불이 발생 합니다. 퇴직 시 금품청산 절차 위반,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진정이 접수되고 있었 고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매 점검마다 시정조치와 과태료도 처분 받았 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 유창은, 즉 장인이 대표로 있고 지금 배우자가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이 유창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요건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거기에 보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하지 않은 자는 추천에서 제한되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물의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지금 저희가 모범납세자 선정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도 각급 세무관서에서 검증이 되고 외부에도 경찰청이나 고용노동부 이런 쪽으로 다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또 국민 검증을 보름간 하게 됩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쭙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외부 검증에서 그런 문제는 안 나왔지 않았겠나라고……

○**박홍근 위원** 심각한 검증 하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저희가 외부 검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찰이……

○**박홍근 위원** 그렇게 허술하게 행정을 처리합니까?

알다시피 모범납세자가 되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시켜 주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다한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 그렇게 허술하게 지금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또한 선정된 후에도 적어도 연 1회 사후검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박홍근 위원** 그것은 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검증은 당연히 했었을 것 같은데……

○**박홍근 위원** 그런데 이 처가인 주식회사 유창은 2021년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됩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서를 써요. 그런데 또 지난해 52시간제 위반해 가지고 지금 대표인 장인과 그리고 처남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 알아요, 몰라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몰랐습니다, 위원님.

○**박홍근 위원** 과연 모범납세자 포상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박홍근 위원** 이게 특혜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는 서울청장으로 계신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여쭙볼게요.

후보자가 정권 바뀐 이후에 1급으로 승진해서 드물게 서울청장 2년씩이나 재직하다가 본청장 후보까지 됐는데 전 정부에서 순위가 밀려 있던 후보자가 이번 정부에서 서울청장, 국세청장 발탁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국세청에서도 1·2급 정도면 기본적으로 실력은 다 비슷할 겁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 충성도가 강하게 있든지 오늘의 정치적 세무조사와 같이 이제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원하는 그런 정치적 세무조사 제대로 해 주겠다는 기대를 보여 줬건 그런 보은이건, 두 번째는 인맥이 작용했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자는 제가 따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어볼 거고 혹시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잘 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모셨던 분입니다.

○박홍근 위원 최근에 만났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최근에는 뵈는 적은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언제 마지막으로 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몇 년 전에 상가에서 뵈던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12·12는 군사 쿠데타인가요, 아니면 군사적 거사인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군사 반란입니다.

○정태호 위원 명확히 군사 반란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대법원 판결에도 군사 반란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전두환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범죄자입니까, 아니면 결단력 있는 지도자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당연히 범죄자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킨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전두환은 반란수괴죄 및 살인, 뇌물수수죄로 일심에서 사형을 받고 이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나중에 사면이 됐지요. 전두환은 반란수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범죄자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 입장 확실하신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광주민주화운동, 광주사태입니까, 민주화운동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민주화운동입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6·10 항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6·10 민주항쟁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이 운영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게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리고 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이라는 것도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태호 위원 대개 권익위 설치법이라든가 청탁금지법 이런 거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태호 위원 거기 보면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선물 또는 향응 등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게 되게 포괄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거는 상관없을까요, 배우자가? 조금 전에 배우자 쪽의 주식회사 유창이나 기업들 관련된 많은 지적도 있고 그런데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이 금전적 수수나 거래가 있다는 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해 보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보기에 좀……

○정태호 위원 그렇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계시잖아요. 서울국세청장을 하셨고 지금 이제 또 국세청장이 되시기 때문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과 관련된 또는 관계된 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국세청장님과 연관돼서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또 정리하실 거는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관련해서,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규율법이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런 결정이 있었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정태호 위원 왜 조심스럽지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빼고,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빼고. 이거는 공직자에 대한 규율법이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하여튼 우려하시는 그런 점이 없도록 제가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배우자와 또 가족이,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들과 관련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청탁금지법에 대한 권익위의 해석에 대해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여쭙보는 거예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정말 조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아까 정일영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임광현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특별세무조사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정기조사와 특별세무조사를 구분하나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태호 위원 당연히 구분이 되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태호 위원 법적으로도 그게 구분을 하게 돼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법에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특별조사를 하게 되는 법적 근거가 국세기본법 81조의6 제3항에 나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태호 위원 다섯 가지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태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쌍방울, 네이버에 대한 수사는 이 근거 중에 어디에 해당이 돼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어떤 부당한 자금 유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기사가 나오고……

○정태호 위원 제가 읽어 줄게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탈세 정보가 있는 경우,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등을 한 경우.

어디에 해당이 돼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특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정태호 위원 아니, 특별세무조사가 있었던 거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어디 조항에 해당되냐고 묻는데 그걸 왜 답변을 못 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4번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비정기조사를 하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이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고요. 이게 4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특정 경우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태호 위원 아니, 세무조사 했다는 거는 다 알려져 있고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했다고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왜 답변을 못 하냐고요. 아니, 국세청장님 되실 분이 이런 정도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참 답답하네요.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정태호 간사님 질의 중에 쌍방울 관련 세무조사를 말씀하신 거였지요? 그러면 그게 특별세무조사라고 하는 점은 확인이 된 건가요?

○오기형 위원 다 보도가 됐겠지요.

○위원장 송언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과세관청에서는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과세관청에서는 특별세무조사라고 하는 점을 인정한 적은 없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특별세무조사로 보도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명시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과세관청에서, 국세청에서 언급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일단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에 다섯 가지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의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평생 몸담았던 기관의 수장이 될 수 있는 후보자로 내정된 걸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30년 공직 하신 조세 전문가가 수장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전문성 살려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두발언 하는 걸 제가 유심히 듣고 읽어 보았습니다. 후보자의 진심이 좀 느껴지고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의지 이런 게 읽히는 모두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업무 줄이고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조세 선진국, 예를 들면 스웨덴 이런 데 가면 연말정산을 개인이 안 합니다. 정부가 해서 통보를 하고, 그걸 오프아웃이라고 그래서 대부분은 오케이하면 그냥 세금이 과세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아니다. 이건 틀려서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오프아웃을 신청해서 본인이 자료를 제공해서 세금을 확정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우리도 그동안에는 미국 방식으로 줄을 쭉 서서 연말정산을 하던 것에서 홈택스가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편해진 점은 있지만 아직도 개인이 파일을 제출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제 경우에도 세무사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시니까, 30년 조세행정 하신 분이니까 또 특히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드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까, 전문가로서?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저도 최근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좀 실수를 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연말정산의 수준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최선진국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오프아웃이나 이렇게 되려면 저희가 의료비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떼 오는 공제자료들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런 공제자료들을 저희가 제출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이 많

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하시는 우리 근로소득자분들도 ‘내가 뭐가 빠졌다 빠졌다’를 한번씩 챙겨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공제자료나 이런 부분을 가져오는 그걸 좀 많이 늘리고 더 확대를 하면 지금 그 수준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청장님 되시면 재임 기간 중에 그 수준까지 한번 만들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박수영 위원 저희가 세무신고를 하면서 잘못하게 되면 가산세까지 해서, 잘못 신고했다고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세청이 개인이 제출하는 정보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한 정보가 있으니까 잘못했다고 또 가산세를 물려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박수영 위원 그런 것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청장이 되시면 우리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해 주시면 큰 업적으로 남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연말정산, 보다 고도화시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다음 질문은 공익법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기재부 질의 때도 했는데 공익법인의 롤 모델은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시면 1년에 연구비를 1000억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제목도 보면 무슨 줄기세포에 관한 것도 있고 AI 컴퓨터에 관한 것도 있고 유기 반도체에 대한, 읽어 보면 영어로 된 제목들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 R&D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지원을 개인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발렌베리 재단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CEO들이 바뀔 때마다 재단을 부인 이름하고 같이 만들어서 현재 3개의 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나라도 이런 재단이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일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박수영 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마 위원님, 지금 출자 같은 것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세금이 더 과세되고 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상호출자제한집단, 즉 돈이 많이 있는 기업에서 출자를 하고 싶어도 면세가 되는 한도가, 주식의 5% 이내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박수영 위원 너무 적게 출자를 하게 되니까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5%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완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 반면에 또 그걸 너무 많이 완화해 주면 큰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악용할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접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게 의결권 행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공익법인을 만들고 거기 출자를 많이 하고 그걸로 또 기업을 운영할까 봐 하는 것 그게 맞거든요. 우회적인 기업지배 때문에 그런데, 의결권 행사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제한되고 있는 건 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건 잘 몰랐습니다.

○**박수영 위원** 2020년에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공익법인에 출자한 돈에 대해서, 그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아예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다만 M&A를 방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경우만 극히 예외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 출자를 했는데, 그건 의결권 행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상증세법에서는 5%로 묶어 놓은 거거든요. 이 공정거래법 2020년 개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셨으니 이제 다시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가지고 이 부분, 공정거래법과 상증세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독일하고 스웨덴은 5% 간의 제한이 아예 없고요, 일본은 50%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법인들이 훨씬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공익법인들은 기업에서 후원을 받거나 회비를 내거나 정부에 기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이 되시면 재임 기간 중에 이 문제도 한번 보셔서 가지고, 공익법인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의로 하겠다는데 그걸 공정거래법하고 달리 상증세법에서 5%로 묶어 놓을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전문가시니까 한번 신중하게 잘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세 분 정도 더 질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치적 세무조사 관련한 질의를 하셨을 때 불편부당하게 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께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있고 그 직후에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사례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것 관련해서 불편부당하겠다고 각오를 다지셨고 모두발언에서도 ‘공정과세’,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 청장이 되시면 조직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국세청의 수장으로서, 다분히 정치적인 배경에 의한 그런 남용적인 특별세무조사의 지시가 외부에서 왔을 때 후보자님께서 청장으로서 바람막이가 되어서, ‘이걸 응하면 공정과세 원칙이 무너진다. 국세청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바람막이가 되어 주고 직을 걸고 막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말 조심해서 정말 불편부당하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직을 거실 각오까지는 안 다지시는 건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만일에 그런 의혹이 발생을 하면 사퇴할 용의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만일 청장이 되시면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고 만일에, 그런 어떤 다분히 정치적인 배경에 의한 특별세무조사에 연루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리고 금투세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후보자님, 시간 관계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금투세의 시행 여부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금투세 투자자들 우려 중의 하나가, 금투세가 원천징수되어서 투자자들의 복리 효과가 줄어든다라는 우려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렇다면 원천징수 하지 않고, 예전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발의한 법안에도 보면 이게 원천징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확정신고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바뀌었는데.

이처럼 원천징수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일에 그렇게 할 경우에 국세청에서 세무행정을 하는 처지에서 이게 가능한지 부담이 되는지 불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지금 저희 주식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이고 펀드 파생상품까지 하면 20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일시에 확정신고를 한번에 하게 되면 그게 납세자분들도 협력비용이 굉장하겠지만 저희도 아마 그걸 부담을 하기가, 그걸 해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차규근 위원 그래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복리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금투세에 반발하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게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 2020년도에 정부가 금투세 법안을 왜 발의하게 되었는지

혹시 그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일단은 과세 합리화 그다음에 특히 과세 형평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2019년 11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에, 현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별지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라는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 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 기재위에 보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20년 정기국회 개회 전에 기재위에 보고할 것’ 이 기한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이따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농지에 관해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2016년에 증여받은 농지를 4년 넘게 직접 경작하지 않다가 재산 공개를 앞두고 뒤늦게 농지은행에 맡기고 매매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지법상 직접 경작 의무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의 해명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일단은 그게 농지전용협의를 끝나고 도시지역 중의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지법상으로 위반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증여받을 당시 해당 토지는 이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보유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유튜버들,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무래도 지금 사업자등록이 안 되거나 또 잘 모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사업자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이분들이 첫째는 일단 금액을 생각보다 적게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득세 신고나 여러 가지 그럴 이유가 없고 또 사업자등록을 냈을 때 크게 본인들한테 유리한 점이 없어서 알음알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급하고 있는 유튜버의 소득 파악이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국외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사실은 많이 커버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환 자료나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커버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튜버한테 이익을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특히 개인 간 계좌 이체를 통해서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유튜버들이 수익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편법으로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탈세를 하고 또 호화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호화생활을 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일단은 외환 자료라든지 FIU 자료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특히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탈세 제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리딩방에 한번 가입해 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현장 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서 큰 부분부터 점검을 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정리보류’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국세청이 사실상 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금액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자가 재직하던 서울청의 23년 정리보류 금액은 22년 대비해서 9216억이나 증가했습니다. 결국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 재임기간에 서울청의 정리보류 금액이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정리 중인 채납액만 해도 약 17조 원이 넘는데요. 이게 상당 부분 세수를 메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정리보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포기를 한 다기보다는 저희가 걷을 수 있는 다른 쪽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잠시 미뤄 둔 부분이라서 가만두는 것은 아니고 금융 조회나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정리보류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보류가 좀 늘어난 점은 있는데 어쨌든 채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조사라든지 탐문 이런 것을 열심히 해 가지고 고액 채납자에 대한 세금을 받아 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현재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경제활동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어떤 세정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임명되신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조세행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저희가 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납기 연장이라든지 유예

이런 부분들이고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환급금을 조기 환급을 한다든지…… 특히 신규나 영세하신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세금 홍보교실을 자주 열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처음에 잘 정착하시도록 그렇게 도와 드리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적극적인 세무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후보자님께 답변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가족 간 관계들 이런 소소한 문제를 제기하면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가상자산 같은 경우들도, 솔직히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100만 원 넣어 봤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렇지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비밀번호 잊어버렸다 이렇게 통칠 게 아니라, 이것 사실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업비트에 어떻게 로그인하는 줄 아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어제 저희 전문가를 통해서 그 계좌를 차고 들어가서 지금 어느 정도 뭐가 이루어졌고 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해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해명을 잘 못해서 오히려 자꾸 의혹이 커지는 과정이 많아요. 우리 보좌진들이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내걸래 제가 이것 금액이 별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후보자님이 해명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렇게 해명하시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직자로서, 후보자로서.

지금 아시지요,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들어가는 것?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신영대 위원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21대 국회에, 2021년도에 법안 발의했습니다.

저는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했느냐 하면요 제가 재산신고 할 때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300만 원 정도를. 이것 팔면 바로 현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재산신고를 안 하느냐 해서 가상자산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할 수가 없어요, 항목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신고할 때 비고란에다 적어 놔했습니다, 가상자산 얼마. 그래 놓고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는 그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액수가 크든 적든 간에 가상자산 신고하는 게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법에 추가돼 있는데 이것 신고 안 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신영대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신영대 위원 오늘 자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하시는 것들이 재산신고에 누락돼서, 일부러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실수했다 하시든 오히려 좀 솔직담백하게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투



명하게, 어떤 주변 관리랄지 내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엄격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맞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영대 위원 농지 부분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농지법 위반으로 실제 조사받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머니한테 상속받은 토지를 경작을 안 하고 한 마디로 소작을 줘서 그분들이 하다가, 결국은 모르고 있다가 의원이 된 다음에 이걸 농지은행에 넣기도 하고 이런 것 자주 있습니다.

아버님한테 상속받은 거지요. 그걸 못 한 겁니다.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이게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여서 농지전용협의를 마쳤고 이것은 도시개발구역이라서 굳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신영대 위원 처음에 이렇게 해명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볼 때 팩트는 이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것 이것 별로 문제 안 되겠다 해서 가지고 계셨던 거고 상속받았는데 아버지한테 농지 임대차계약 써 가지고 돈 받을 겁니까?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땅을 다시, 내 땅이 됐는데 이걸 아버지가 농사짓고 있으니까 ‘아버지 농사지으시고 임대료 내 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못 합니다.

○신영대 위원 못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명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야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그런데 처음에는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하셨더라고,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면서. ‘하다가 이걸 찾아냈어요’ 이렇게 해명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질문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습니다. ‘왜 농지 임대차계약 안 했습니까? 증여를 받았으니까 또 임대차계약 쓰면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야지, 임대료를. 감나무를 농사지었으면 감이라도 받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의해야 되잖아요. 이게 매우 소모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신영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조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세요? 말씀 못 드린다고 하잖아요, 언론에 다 나온 것 가지고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신상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자꾸 면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신영대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에 해명을 정확히 해 주시고.

사실 아까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아직도 안 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관련해서 아버지한테 계약서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요청드렸는데 제 사무실에 도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투명하게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인사청문회 하고 있지만 상식적 수준에서 의사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도록 했는데 아마 아직 못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남을 안도걸 국회의원입니다.

세무조사는 저승사자보다 무섭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또 납세자에게 가장 두려운 공권력의 발동입니다. 그리고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또 기업이 공중분해 되었던 그런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경제사회적 영향이 큰 만큼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막고 또 세무조사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국세행정 개혁TF를 만들어서 다시는 정치적 조사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고 개혁안을 마련해서 시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획 세무조사,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용어가 다시 부활하고 그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주장으로 있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지난 2년 동안 실시했던 세무조사 사례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 특별조사로 나뉘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여기 항목으로 보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아마 정기조사, 4번 이하는 비정기 특별조사로 이해할 수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다른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이 세무조사를 발동하는 요건은 국세기본법 또 내부 규정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법률상의 세무조사 선정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서울청장 시 실시된 해당 조사 건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서 국세청 자체 판단으로 조사에 착수하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안도걸 위원 그런데 국세청 외부에서 조사 필요성이나 방침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착수하지 않았냐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개별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던 배경 그리고 관련 정황 그리고 해당 조사의 전말을 살펴보면 정치적 의도에 의한 조사라는 비판을 지울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로 MBC, KBS, YTN, 언론사의 경우에는 언론사의 지배구조 개편, 경영진 교체라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큼니다. 또 학원가 세무조사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카르텔 수사와 동조해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후보자께서 정치적 의도를 갖는 일련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야말로 칼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신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이토록 세무조사에 능란한 분이 청장이 되시면 정치적 의도로 기획이 되는 세무조사가 더욱 활개를 치지 않겠느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청장이 되고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해야 합니다. 후보자께서 서울청장 재직 시 실시했던 정치적 세무조사 비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만약 청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조차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와서 필요한 경우에 설명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세무조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지를 나름대로 피력하셨는데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외압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립적인 국세행정감독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초반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구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말한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걸 담보할 수 있는지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도걸 위원 적극 검토하고 제도화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후보자께서는 실력과 성실로 국세청 수장 자리까지 묵묵히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이 청문회를 관람한 결과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의 입지전적 행로에서 국세청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이 정점을 찍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 업적 면에서 저는 과학세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국세청에 은행 이체로 들어오는 세수의 비율을 혹시 숫자를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

○박수민 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국민들이 신고를 통해서 은행으로 이체하는 숫자가 95%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신고납부 세수가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신고납부가 그렇게 되고 세무조사를 통한 게 한 이삼 %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한민국 국세행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산으로 신고서가 통보되고 또한 전산으로 은행을 통해서 국세청으로 세금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들을 잘 갖춰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세행정이 IT 면에서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한번 평가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저도 OECD에서 한번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외람되지만 저희 국세청의 IT 전자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연말정산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 개선할 여지는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해외나 이렇게 꺾어 보면 우리나라가 자동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데 본인이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그 신화가 추가적인 발전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연말정산 같은 경우 공전의 히트작인데요, 홈택스 같은 경우. 그러나 최근에 그 진화되는 속도가 좀 더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방식으로 알아서 다 정산을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 내게 하는 것 전산적으로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성공하게 되면 안주하게 되거든요. 홈택스가 워낙 빅히트를 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놓쳐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청장으로서 어떤 족적을 남기시는 데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 달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에 이런 IT 데이터베이스를 갖춘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세청뿐 아니라 본 기재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재정정보원, 통계정보원이 있고요. 또 복지부 밑에 사회복지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같은 경우는 EITC 제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고소득층, 큰 기업의 세무 정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저소득층 소득도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무래도 저소득층인 분들이 신고가 조금 저조한 경우가 있어서 약간 한계는 있는 편입니다, 위원님.

○박수민 위원 이런 부분에 좀 아이디어를 내서……

본 위원이 지난번 기재위원회 업무보고 때 재정정보원, 통계정보원에 ‘국세청과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소득계층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고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지출을 할 때 소득 파악이 엄청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집중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국세청, 재정정보원, 통계정보원, 사회복지정보원이 연합을 하면 저는 충분히 유의미한 소득 파악, 효과적인·과학적인 인프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이 되시면 한번 아주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후보자님, 아까 오전에 했던 것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건이었습니다, 실제 아까 이름은 말 안 했지만. 백이 있으면 세무조사 없고 백이 없으면 세무조사 있고 추가 증여세 납부하고 이런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들의 소득 차액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된다면 국민의 기대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맞습니다.

○오기형 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국감 때까지.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오기형 위원 두 번째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분명히 안 줬다고 제가 아까 지적을 했고 특히 확인서, 부인의 확인서인데 오늘 자료 한 것 중에서…… 얼마나 엉터리인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2항은 ‘배우자는 유창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보수도 받지 않습니다’, 3항은 ‘배우자는 업무를 하고 있는 유창에 대해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확인서 주시면 너무 국회를 기망하거나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오기형 위원 주신 것 그대로 지금 제가 읽었습니다. 2항, 3항의 내용이 모순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내용을 줬는지도, 실무자들이 저희들에게 아무거나 줬는가 모르겠는데……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뭐냐……

○오기형 위원 아니, 이런 겁니다. 똑같이 확인서, 이런 수준의 확인서를 줬다는 거예요. 2항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3항에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창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인서를 지금 국어도 틀린 것들을 갖다 주고 있어서, 물론 자료도 부족할뿐더러.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아마 이해를……

○오기형 위원 다시 보시고 확인하시고 다시 해서 설명 주십시오. 저녁에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부족하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된 것들에 의하면 오전에, 오후에 계속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면서 했던 내용 중에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고 그리고 입찰담합 의혹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관련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조세 부과와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인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나중에 국세청장이 되면 엄격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 의혹이 제기된다 이런 건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겁니다. 김대현 호반건설…… 현재 주식회사 호반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15살 때 0.5억에서 시작했어요. 23살 때 8억, 2019년도에 31세 때 아버지 회사를 합병하면서 1조 7000억이 됐습니다. 지금 약 2조 수천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걸 제가 국감 때 문제 제기했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심결서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가 자세합니다. 여기서 내용이 주된 표현이 별폐입찰 그리고 2세 회사에 대한 편법 대물림 그런 위당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달에 먼저 나왔던 게 국세청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별폐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게 택지 저가 양도하는 것 또는 부의 편법 대물림, 합리성 없는 사업 재편, 경영권 승계,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 제공하면서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것, 이런 형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런 행태가 우리 사회적으로 반복된다면 안 되겠지요? 동의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도가 부족하다면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고민을 한다면, 유창그룹 같은 경우도 이런 데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당연히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전 질의했던 것 중에서 질의 요지가 이거였지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신 것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가업승계 공제제도라는 겁니다. 가업승계 공제제도 자체에 대해서, 적용 대상이 아니냐에 따라서 정책적 입장이 달라지겠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 책자입니다. 이게 국세청의 책자예요,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면 가업승계에 대해서 계속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국세청 입장 맞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이게……

○오기형 위원 부의 편법 대물림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루프홀을 만드는 데 같이 협의해서 아이디어를 짜 주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이게 아무래도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안내 책

자다 보니까 표현이 좀……

○**오기형 위원** 그래서 이런 데서 오해 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도 추가질의 계속하겠지만 유창그룹이 가업상속 승계에 대한 공제 대상 기업이 될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입장이 뭐냐를 묻는 겁니다.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드릴 말씀은, 혹시 제가 더 일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처가 쪽 기업이 손해를 보는 일은 있어도 저 때문에 이익을 보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죽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후보자가 과연 어떻게 국세청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직에 후보자로 임명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하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재부 외청이기는 하지만 국세청이 지금까지 4대 권력기관 중의 하나로 이야기가 돼 왔잖습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특별세무조사가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진행이 된 것 같다는 의문을 계속 제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본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지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른테면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에 세무조사 한 것 이것은 정기조사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 뒤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 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부청 사안을 서울청으로 가져오는데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조사는 서울청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본청에 의견을 내서 승인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이게……

○**윤호중 위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좀 있어 보세요.

그다음에 유가 인상 우려가 있으니까 서울국세청이 현대오일뱅크를 또 세무조사 했어요. 23년 3월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에 본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전청 것을 갖고 온 것입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것도 상부로부터 지시가 없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서울청에서 직접 이것 하겠다고 조사해서, 기획해 가지고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호중 위원 하나만 더 하지요.

전주지검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 수사한 22년 8월 그 이후에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도 서울국세청이 세무조사 했어요.

이스타항공은 전북 군산에 본사가 있네요. 이것은 광주청 관할인데 이것도 서울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상부의 승인을 받은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바로 옆에 최고의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 말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이렇게 관할 조정이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서울청에서는 이리러한 것을 관할 조정 대상으로 이렇게 할게’, 그다음에 ‘중부청에서는 뭘 할게’, ‘대전청에서 할게’ 그러면 그게 본청에서 협의가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거쳐서 본청의 결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일단 본청……

○윤호중 위원 그것 말고도 이런 것도 있어요.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이것은 전국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물가 불안이 있으니까 이를테면 음료 제조업체, 외식업체 또는 소주업체 이런 데에 대한 세무조사도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서울청에서만 계획한 게 아닐 것 아닙니까. 본청에서 계획해 가지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세무조사 착수해라’ 이렇게 내려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도 없다고 대답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

○윤호중 위원 그렇지요? 이상하지요?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관할 조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절차를 아시면서 이것이 다 서울청에서 결정해서 조사가 진행된 것이라 하고 하면 정말 대단한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무적인 감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청장께서 국세청장에 발탁이 됐구나, 이것을 제가 오늘 이해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사가 어떤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하는데 청부 조사하듯이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의 하명 조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명도 있기 전에 하고. 이런 국세청이 과연 지금까지 있었나, 저는 의문이고요. 후보자께서 국세청장이 되시면 과연 국세청의 조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왜곡될 것인가라는 데에 대해서 우려가 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지금 추가질의를 하면서 보니까 인사청문회, 본인에 대한 질의나 결격



사유를 따지기보다는 배우자 가족에 대한 도가 넘는 비난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국민이 청문회를 보고 있을 테고 또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어쨌든 50년이 됐고 이미 1000만 불 수출이나 무역의 날 표창이나 이런 것을 받은 중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쨌든 상습 위법, 악성 비리의 온상 이런 기업으로 몰아갔을 때 그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공직자가 되는 상황에 배우자 가족 내지는 배우자 기업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박수영 위원이 공익재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최근에 기부자 1인당 기부액이 우리나라가 59만 원 이더라고요.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대기업 기부가 줄어들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가 줄어들게 되는 부분도, 후보자는 어떤 부분 때문에 줄어들까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이라면 징수기관으로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어쨌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로서 살아오면서 기부나 봉사나 이런 거 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봉사나 기부도 아마 했을 텐데 그런 계기에 대해서 마무리 때 말씀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저는 산중위에 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은 수출기업들, 수출 강소기업들, 중소기업들 보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수출의 한 41%를 차지하면서…… 이 수출기업들은 매출이 10억 이하고 종사자가 10인 미만인 그런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뭘 원하냐고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서는 ‘수출 확대를 위해서 최우선 과제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마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했겠지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한 것 중에 후보자가 꼭 이 지원은 수출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았다, 유리했다는 게 있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이인선 위원 그 수출 지원에 대해서, 어떤 것 지원을 했는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서 가산금리 감면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감면해 줄 수 있는 상황인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강화 방안에서 가산금리에 대한 감면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산금리를, 기준금리에 대해서?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금리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주관하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간접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 자금 순환이 중요하니까 저희가 가급적 환급금 같은 것을 최대한 빨리 내주고 납기 연장이나 유예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자금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게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첫째 같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접으로밖에 못 하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출하는 기업들이 해외에 수출을 하다 보면 이전가격(transfer price)으로, 그러니까 이전가격에 대해서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압박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지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특히나 수출하는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현지 대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 줘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APA라고 해 가지고 그쪽 당국하고 업무 관련해서 누가 얼마만큼의 과세권을 가져갈 거냐 그걸 의논하는 방식이 있고,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려면 특히 세정이 저희보다 조금 후진국인 나라에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선 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나서 주셔야지요. 기업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이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기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봉사나 기부를 하신 적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무래도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방문하다 보면 또 병원 같은 데서 환아들을 많이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인선 위원 특히나 국세청 직원들이 그렇게 기부하고 봉사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을 할 것 같습니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충돌 우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있습니다. 거둬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처가가 잘사시고 기업이 많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매출 8000억에 자산 규모 5000억짜리 기업집단이라고 하면 앞으로 가업승계, 상속이 됐든 아니면 하다못해 법인세부터 기본적인 조세 처분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해상충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알아주시고요.

방금 오기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처가가 후보자 때문에 덕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의지를 믿고 싶습니다. 의지가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문제는 후보자님의 말만 듣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PPT 7페이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면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있는 지역구의 화성시장이 관보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백지신탁된 주식과 관련된 처분을 한 것을 관보에 신고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후보자님과 관련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배우자가 직접 보유하고 백지신탁되어 있는 주식 외에도 처가 일가 기업집단이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후보자님께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관보의 직접 게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게재 대상인 것은 당연히 게재를 하시고 게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처가 일가와 관련한 국세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을 국세청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관보 게재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게 만약에 제도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저희 기재위에 보고하는 형태로라도 이해상충이 없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실 순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관보 게재나 어디 특정한 개별 정보를 올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이해충돌 관련해서 너무나 말씀을 많이 주셔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이게 그쪽에 피해가 되는 일이든 유리한 일이든 있으면 제가 와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와서 설명을 올린다는 것이, 오셔서 설명을 하실 정도면 저희 기재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이게 또 개별 정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전혀 숨김없이,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책적인 것도 여쭙보겠습니다. 리딩방 관련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요새 리딩방 문자 아마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저도 요새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후보자분 혹시 리딩방 문자 직접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혹시 링크를 클릭해 보시거나 그런 적도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클릭은 안 해 봤습니다.

○**천하람 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PPT만 보셔도 아시듯이 리딩방 문자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사칭한 그런 사안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생침해 행위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불법적인 탈세가 병행되기 때문에 불법 주식리딩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라든지, 국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불법 리딩방 같은 경우는 단순히 불법을 떠나서 탈루가 굉장히

많은 분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라도 실제로 점검을 나갔을 때 세금을 징수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점검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실제로 대전이나 서울에서, 지방국세청장 하실 때 리딩방이나 유사 투자자문업체 이런 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딱 몇 건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많이 해 봤을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그런 경험 있으시면 어떤 특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엄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나옵니까? 같은데 향후의 대책 같은 것 혹시 갖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일단 리딩방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 봐서는 도저히, 분석을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 FIU 자료라든지 현장 정보나 탈세 제보에 의해서 들어가 가지고 하나하나, 특히 송금 부분들이나 수익금 누락들을, 차명계좌 이런 부분 하나하나 훑어야 됩니다.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런 리딩방 쪽을 신경 써서 보면서, 그러한 테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꼭 이것 엄단하고 근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전에 제가 후보자님하고 얘기했던 속기록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서울청장 재임 중에 본청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나 분석보고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두 번이나 ‘한 번도 없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청문회고 위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님께 답변을 정정할 기회를 드립니다.

쌍방울 그룹 세무조사와 네이버 세무조사가 본청에서 하달된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면 서울청에서 조사 결정한 것 맞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저희 분석팀에서 올라와서 대상 선정은 국장까지 하고 보고해서 저는 결재를 했습니다.

○**임광현 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직원들이 탈루 혐의 분석해서 가지고 왔고 본인은 결재만 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임광현 위원** 그러면 4국 직원들이 쌍방울 세무조사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조사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4국 직원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저희 4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고……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성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인 특별세무조사의 절차입니다. 직원들이 탈루 혐의 분석해서 오면, 그러면 서울청장이 결재를 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쌍방울 세무조사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그 정치적 소용돌이에 있는 조사를 선정을 해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 딱 특정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 기본적인 절차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임광현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했다는 말씀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분석팀에서 가져왔고 국장이 선정을 해서 왔고 저는 결재를 했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쌍방울 조사와 네이버 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국세청에 단 4명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장,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그런데 본청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니 국세청장, 본청 조사국장은 아니고 서울청장 아니면 서울청 조사4국장인데 지금 청장님은 밑에서 결재를 가져온 것을 그냥 결재만 했다고 했으면, 그러면 서울청 조사4국장이 선정한 겁니까? 지시한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일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비정기 선정이라는 것은 국장이 결정을 하게 되고 청장이……

○**임광현 위원** 그러면 국장이 결정한 겁니까? 청장님은 그냥 단순히 가져온 것을 결재만 한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저는 보고를 받고 결재를 했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면 서울청 조사4국장이 쌍방울 세무조사 결정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선정이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업무시간이나 업무시간 이후에 대통령실 사람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청장 재임 시에?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없습니다.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범죄 혐의가 없어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국세청을 무서워합니다. 때문에 세무조사는 조세 목적으로만 절제돼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풍 사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사건 모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왔던 비극입니다.

세무조사의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정치적인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지금

쌍방울과 네이버 세무조사에는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국세청이 야당 대표 죽이기에 동원이 됐다면 이것은 국기문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 추후에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오늘 세무조사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정말 유념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국세청 직원들의 승진이 매우 적체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승진이 매우 적체돼 있고, 보통 8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 데 거의 한 20년씩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거에는 국세청 하면 전문직이라고 해서 시험 경쟁률도 높고 그랬는데 지금은 승진도 늦지요 보수도 낮고 또 타 직렬, 타 기관에 비해서 수당도 적고 또 국가직이라 집에서 먼 거리에 배치가 되면 출근거리도 멀고, 그래서 지금 국세청 직원들 사기가 너무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복안 같은 것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일단 급여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승진 적체라든지 특히 업무량이 많은 부분은 전산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여튼 일선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박수영**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질의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대개. 정치적 의도나 외압이 의심되는 세무조사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두 번째는 처가, 배우자 집안이 어쨌든 큰 기업 아니겠습니까? 집안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그다음에 그렇게 의심된다, 그러면서 제대로 회피하지도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2개가 같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와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 장인 입장에서는 훌륭한 사위 얻었을지 모르지만 후보자가 길어야 한 2년 하실 텐데 그 이후에 기업은 또 정치적 외압이 의심되는 세무조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더 엄격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괜히 좋은 사위 맞아 갖고서, 국세청장까지 됐는데 정권이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후보자가 정말 더 철저하게, 후보자의 배우자 가족의 기업에 관련해서는 더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문제가 될 사안들은 철저히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당연히?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정성호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또 처갓집을 위한 거고 본인을 위한 길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 답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가 말

쓰한 대로 정말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게 더 엄격하게 하고 법과 원칙을 지켜 주기를 당부합니다.

관련해서 다른 것 묻지는 않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체납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주무부처는 교육부예요. 그다음에 대출 및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지만 의무상환 및 장기 미상환자 관리, 체납 관리는 또 국세청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서면답변에서도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 얘기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 문제 또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세정 혜택을 더 폭넓게 하겠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의 학자금 체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보고받으셨을 텐데, 5년간 상환유예 신청 및 승인이 2019년도 4000건에서 2023년도에는 1만 2000건 수준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관련해 갖고 올해 1월 달에 윤석열 정부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도 저소득 청년층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체이자를 3%에서 2%로, 가산이자율은 1.2%에서 0.5%로 인하되었는데 문제는 연체가산금 한도 인하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률 개정 사항이에요. 이게 보니까 법률 개정 사항인데,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그런 의제를 말씀했는데, 이게 논의되는데 지금 진척이 없어요. 이게 교육부하고 국세청 간에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청장이 이것 정말 관심 갖고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둘 게 아니라 청장이 나서 갖고, 또 대통령께서도 관심 갖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 중이라는 말만, 양쪽 다 그러고 있어요, 사실.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예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휴업이나 폐업 상태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교육부하고, 주도적으로 해서 빨리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서 일정을 구체화해 갖고요 올해 안에 빨리 이것 정리할 수 있게 국세청장님이 적극 좀 나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지금 얼마나 어려우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갖고 계속 이렇게 연체하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청년층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게 청장이 얘기한 복지세정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 청년들을 배려하는 그런 세정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임광현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인사 문제…… 인사 문제는 물론 하위직의 인사 문제도 있지만 상위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시·비고시 문제 또는 남녀 간에 고위직 진급 문제가 계속 문제 됐던 것 같아요.

(박수영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2020년도 김대지 청장 때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었고 2022년도에 임명된, 아직까지는 청장이지요, 김창기 청장 때도 취임사에서 역시 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인사시스템 구축하고 우수인력 제대로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통계로 보게 되면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후보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그다음에 고위직에 있어서, 4급 이상 또 3급 이상에서 고시·비고시 출신의 형평성 제고 문제 또 여성 고위직의 진출 문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여성 고위직은 사실은 시간이 되면 바로 해결은 되는 문제인데 지금 다른 문제, 고시·비고시 간의 그런 부분은, 능력 있는 비고시를 전격 발탁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성호 위원** 노력해 주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성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워낙 강력한 수단이다 보니까 엄격하게 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이것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마냥 그냥 예측 가능하게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만 갈 수 없는 게 조세정의 구현하는 차원에서는 조사의 효과성 측면에서 불시 조사라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조화하기 힘든데요.

하여튼 만약에 이번에 청장에 취임하게 되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무조사 대상이나 기준을 이번 참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다 투명하게 정비하고 공개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다음에 앞서 제 질의 중에,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세수결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목이 법인세입니다. 작년 세수결손은 52조 중에 한 반, 47% 정도가 법인세였고 금년에도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15조 이상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세수 오차가 큰 것은 아마 법인세가 경기에 민감한 측면 그리고 아무래도 세수 추계의 보수적인 그런 형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법인세수 추계모형에 주요 법인들의 영업 실적이나 전망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개별 법인의 과세정보가 담긴 마이크로데이터는 현재 국세청에서 세수 당국과



공유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IMF는 세수 추계모형에 법인세 미시과세정보 활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체 법인 수 1% 정도만 데이터를 추계에 반영해도 정확도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미국 CBO나 프랑스에서도 개별 법인 과세정보를 세수 추계모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특히 국세통계센터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많이 제공해서 세수 추계나 또 기타 다른 연구 분야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재부나 세수 당국에 이런 데이터 자료를 제공해서 보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민생경제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총조사 건수가 전년 수준인 1만 4000건으로 발표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것보다 조금 밑입니다.

○**이종욱 위원** 보니까 2019년 1만 6000건에서 지금 1만 4000건으로 죽 줄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조사 부담이 적은 간편조사 비중도 현장조사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조사 비중도 보시면 2021년에 17%에서 22%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경기 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총조사 건수를 발표한 1만 4000건 이하로 줄이거나 간편조사 비중도 한 25% 이상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지금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와닿는데 아무래도 간편조사가 성실 납세를 담보하는 기능으로서는 사실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비율을 한 25%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은 조금 힘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이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종욱 위원** 하여튼 주어진 상황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편조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인천 송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아까 제가 처음 질의할 때 ‘윤심 따라 움직인 강민수의 11개의 칼날’ 해 가지고 특별세무조사 한 것 질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거의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청장후보자님의 명확한 입장을 주십시오. 이러면 이렇다, A는 A, B는 B,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에 따라서 또 제가 후속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조세 불복 질의를 했는데 조세 불복률이 엄청 높았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결국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종부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니까. 또 청장으로 임명되시면 저하고 이것을 가지고 같이 확인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지금 체납세액, 누적 체납세액하고 체납자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후보자님, 정리중 체납액은 징수가 가능한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리보류 체납액은 어때요? 거의 포기 상태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포기는 아니고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리보류를 해놓으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금융 조회가……

○정일영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금액이 88조예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민생경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세무조사보다는 세수 펑크 난 것을 이런 정리보류 세액이, 체납액이 88조나 되는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을 나중에 임명되시면 잘 좀 해 주시고.

다음, 보시는 것처럼 세수 펑크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펑크 요인들이 쪽 나온 건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일영 위원 체납액은 받아 내야 돼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 액수도 88조, 거의 90조인데, 한은에서 빌려 쓴 것하고 비슷한데 그것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처가 기업, 유창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완전한 분리된, 독립적인 처가라면 그래도 논란이 좀 적을 텐데 문제는 배우자께서 부사장하고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퇴근해서 집에 오셔서, 주말에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남편분인데? 안 하세요, 유창 얘기?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안 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일영 위원 그것 참 희한하네. 아무래도 같이 사시는데 왜 그것을 안 할까요?

어쨌든 나중에 조달청 통해서도, 조달청 국감 때 확인하겠지만 프리패스나 교육 이쪽에 또 확인이, 수사 중이기도 한데 부정 입찰 의혹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오늘 많이 들었고?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봤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은 그거고.

또 하나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서, 모듈러 이런 게 덩치가 커서 그런지 부피가 커서 그런지 야적장, 도로에다가 마구 그냥 쌓아 뒀어요. 이것 안 되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안 될 것 같은 게…… 안 되지요. 이게 당진시청에서도 지적받고 고발당하고 그랬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일영 위원 이것은 후보자께서 집에 가서서 배우자에게…… 감사시잖아요, 부사장. 치우라고 그래야 돼요, 이런 것 없도록. 그렇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일영 위원 대화가 있어야지 부부간에도.

삼성SDI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관련된 계약서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게 이번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 권영세 전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런 분들 보면 유사한 것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이게 SDI하고……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한 내용 다시 제가 반복은 안 할게요. 그런데 이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개인이 아파트 전세를 놓는데 보통 개인 간에 하지. 그리고 삼성SDI에서 하더라도 와서 집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전세계약 들어가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조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일영 위원 하여튼 이게 흔한 일은 아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증여세는 얼마 내셨습니까? 이게 54평형 서울 신동아아파트지요? 거기 비싼데.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증여세는 저희 집사람, 저 합쳐서 한 2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밖에 안 냈어요?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게 채무……

○정일영 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일영 위원 박근혜정부 때도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생기면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시행됩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일영 위원 아실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자료 보면.

그런데 이번에도 세수결손이 심각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비슷하게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실 건지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청장으로 취임하시면 강력히 추진할 현안업무 세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지금 경기 많이 어렵고 상황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세무조사 강화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 저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고요.

다만 제가 올라가서 일단 해야 될 일, 만약에 올라간다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는 어쨌든 지금 세수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든지 신종 업종이라든지 정말 취약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열심히 해서 거기서 필요하면 세원 조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 큰 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일영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진성준입니다.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공정성 또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후보자의 의지 못지않게 의지를 현실화하고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이셨습니까, 국세행정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2018년 1월에 국세청에 설치되었던 국세행정 개혁TF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여러 가지 있었습니니다.

○진성준 위원 그중에 핵심이 국세청법을 만들자, 그래서 청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고 또 국세청의 공무원들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또 부당한 세무조사 등의 권한 남용이 있을 때 그것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자 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국세청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안에 대해서?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지금까지 역대로 보면 국세청법에 대해서 국세청이 유보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세청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도 가능하도록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진성준 위원 그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무슨 정부 행정의 통일성 이런 걸 이유로 들어 가지고 반대해 왔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극복합시다.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 부분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진성준 위원 아니, 지금 누구보다도 후보자가 청장으로 지명된 것이나 또 오늘 인사 청문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제기되는 문제는 후보자의 국세행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하는 점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는 계속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만 의지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외압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그런 차원에서 국세청법을 입법하자.

실제로 4대 권력기관 가운데 정부조직법 외에 별도의 법을 가지고 있는 데가, 다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데가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진성준 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국세청의 어떤 정치적 독립성·공정성·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자세는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세청법 검토하는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처가의 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국세청장으로서 모든 국세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고 권한이 있는 만큼 처가 기업의 세무행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맞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 점에서 후보자의 처방으로는 처가 기업과 관련된 세무 조치, 세무

행정상의 조치가 있으면 국회에 와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진성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이해충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지금 딱 뭐라고, 제도를 갖추겠다 이 말씀 못 드리지만 회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다 한번 검토를 해서 갖춰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오기까지는 준비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지적될 것이라라고 하는 것은 다 예상하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진성준 위원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장치를 마련해서 이해충돌 문제에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까라고 하는 방안을 내놔야지요. 그런 방안 없이 ‘유념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별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는 말만 갖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연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위원님.

○진성준 위원 검토하고 있는 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저희 실무진하고 상의한 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대리를 만들고 회피 신청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다 저희 실무진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려도 결국 그것은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가 의지를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성준 위원 우리는 후보자의 의지보다 제도적 장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적 장치를 약속하고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제도적 장치를 서면으로라도 제출하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진성준 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진성준 위원 발언시간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후보자님 늦게까지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특별세무조사의 정치적 의도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말씀

많이 하셨지만 후보자님께서 청장이 되시면 불편부당하게 어느 한쪽에 쏠림 없이 공정하게 국세행정이나 세무조사 업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감하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혹시라도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의혹 제기 때문에 비정기조사 자체가 너무 위축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비정기조사를 할 때 보면 국세청의 시스템에 따라서 세금 탈루 의혹이 포착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탈세 제보가 있거나 하는데 이 탈세 제보에는 개인적인 탈세 제보도 있겠지만 언론에 의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정부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산업이나 여러 특성에 의한 탈세의 정황 같은 정보도 포착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필요한 경우, 물론 세무조사가 남발되면 안 되겠지요. 남발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구체적인 세금 탈세 정황이 있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빠르게 그 현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게 원래 국세청 본연의 업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제가 여러모로 따끔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국민과 공정과세와 과세형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오해될 일은 없게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심되는 정황이나 국세청이 나서서 바르게 조세정의를 실천해야 될 때는 빠르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최은석 위원 그리고 아까에 이어서 민생침해 범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불법도박 규모가 한 102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매년 도박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 100조 정도 되는 불법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불법도박업자에 대한 세금 추징 규모가 되게 많이 미흡한 것 같고, 특히 적발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금 징수가 안 돼서 체납되고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1000억 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도 한 3명 되고 또 100억 이상 체납자도 한 1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체납하고 있는 이런 불법도박업자에 대하여 추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론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불법 도박 사업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적시에 들어갈 수 있으면 세금도 징수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다 도망을 갔다든지 다 다른 데로 빼돌린 상황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저희가 제보나 정보가 들어왔을 때 조금 서투른 면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치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그게 지금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진행될 텐데 혹시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닉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교육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안 할 뿐이지 이게 시작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스템이나 또 전문인력 같은 것들을 충분히 보장해서 은닉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같은 것들이 차질 없이 잘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PPT가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이은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의 대물림, 결국 세금만 아니면 뭘든 못 주겠다’ 이 표현은 국민의 공동자산인 세금을 지켜 내는 최후의 보루가 국세청이라는 말씀이에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부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국세청이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제도도 정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있습니다, 위원님.

○**최기상 위원** 누구로부터 세금을 지켜야 되느냐? 이게 부를 생산하는 사람,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람, 즉 노력소득을 생산해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를 추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땀이 아니라 땅이나 부동산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일한 것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게 급여를 받는 CEO들, 직원 평균소득에 비하여 50배, 150배, 200배,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받을. 오로지 그렇게 결정할 힘이 있다는 것밖에는 근거가 없거든요. 국세청에서 그분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투자만으로 과도하게 배당을 받아 가는 자들, 이게 불로소득 자본주의고 아까 야바위 자본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문제냐? 이게 대다수 시민들의 뭇을 뺏어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와 평등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강남에, 서울에 살 자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재산권의 권리, 자유 보장되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이 무슨 권리나 자유가 있어요. 허울에 불과한 거예요. 부의 대물림 이 부분 국세청에서 반드시 끊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결국은 헌법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책임을 지셔야 돼요. 후보자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고위공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이 처지에 눈이 달리고요. 이게 몸 자리의 궤적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후보자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 경력을 보면, 수많은 위원들이 오늘 의심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믿어 달



라? 안 될 일입니다. 증명을 하셔야 돼요. 정말 엄격하게, 철저하게 일하셔야 될 겁니다.

그에 대한 각오 좀 말씀해 주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주시는 말씀 정말 다 새겨듣고, 특히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부분, 제가 일할 기회를 갖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과세나 재원 조달이나 또 약자에 대한 세정이나 이런 부분 정말 주의 깊게 또 오해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요.

국민들이 헌법을 만들어서, 국가에게 이걸 해 달라고 만든 겁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와 평등,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국가를 만들었어요. 국가는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법률을 적용하는 거지요. 결국 재산권이나 조세법률주의는 하위 가치예요, 하위 수단. 왼쪽에 있는 부분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니까? 이 목적이 뭐예요? 5100만 국민들이 단 한 명이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서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

100만이 넘는 사람이 지금 집도 아닌 곳에서 살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의 가난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얼마나 지켜 내고 걷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잘 써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에 관여되는 상속·증여세를 줄이겠다는 문제나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이 헌법 원칙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염치가 없는 논의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국세청, 후보자나 고위공직자들 많이 생각 좀 해 주세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공정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부자감세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부정적이다, 상속세 인하가 자산양극화 심화시킨다. 국민 다수가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이 국민들 다수의 생각?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어요? 어떠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특히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의견이 국민 다수의 의견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살아오신 궤적을 보면 안타깝게도 국민 대다수, 특히 어려운 국민들의 곁에서 살아왔다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그런 의견을 듣고 노력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지 않으시면 결과적으로는 곤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을 많이 들으라는 말씀, 제가 그동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 특히 영세사업자라든지 신규라든지 또 어려운 개인 이런 분들의 의견을 더 자주 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후보자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시간 갑니다. 화면 띄워 주시고요.

삼점삼이라는 내용 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황명선 위원 삼점삼에 대한 과대광고 논란이 국민들한테 많은 문제 제기를 받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1인 평균 19만 7500원 환급, 숨은 환급액을 찾아라. 광고하고 있어요. 아주 매우 현혹적인 내용이에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5월 출시해서 4년 만에 가입자가 한 2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기는 있는데, 그래서 후발적인 서비스 업체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스라든가 카카오펁크, 지엔터프라이즈 이런 세무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일단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면은, 어쨌든 저희가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플랫폼 서비스를 저 정도 수준으로 발전시켜 봐야 되겠다……

○황명선 위원 부정적인 면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부정적인 면은, 이분들이 광고하는 방식이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는 분들도 다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또 세무사한테 가서 하면 환급이 10만 원인데 여기서 하면 정확한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50만 원, 60만 원이 나오는……

○황명선 위원 크게 보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과다 환급 및 탈세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급된다고 광고는 했지만 실제로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시지요, 화면 두 번째.

이게 종합소득세 환급신고하고 경정청구 한 현황입니다. 이게 갈수록, 2020년에서 22년,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세 번째 화면 띄워 주세요.

불편·피해 사례, 이코노미스트 쪽…… 언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결국 지금 PPT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통한 환급 신청했다가 오히려 수수료만 내고 있어요.

수수료 최대 몇 프로 정도 내는지 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10%……

○황명선 위원 20% 정도까지 합니다.

두 번째는 신고 과정에서 불성실 신고와 탈세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고, 세 번째는 납세정보를 업체가 이용함으로써 개인 금융신용이 악용될 우려가 굉장히 큼니다. 특히 이 플랫폼이 소득 출처나 지출 형태, 보험 현황, 의료비 지출 현황, 광범위한 개인적인 민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점에서 이것을 국세청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

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여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지금 저희가 일단 삼짍삼 이쪽 업체 쪽에도 그렇고 세무사회 쪽에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일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기간에 이렇게 개인 정보 스크래핑을 통해서 일반 납세자들이 홈택스에 연결할 때 굉장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지금 국세청에서 이 세무 플랫폼별로 환급신고와 경정청구 이루어진 건수를 요구했는데 플랫폼별로 구분해서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플랫폼별로는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런 내용들이 구분이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경정청구가 훨씬 더 들어온 건수를 보면 전체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플랫폼별로 끊느냐 하는 게, 그게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국민들이 이용하면서 올해 2/4분기에 낸 수수료만 금액이 500억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 플랫폼 파악할 수 없는데 이런 문제점들, 제가 세 가지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국세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알았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황명선 위원 그 대책 세운 내용들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해 피해지역 국민 대상 세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번엔 폭우로 인해서, 저희 논산 지역도 그렇고 금산도 그렇고 이번 폭우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심합니다. 적극적인 세정 지원 대책이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오늘 아침에 저희가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만 납기 연장이나 세무 유예 이런 부분을 최대 2년까지 하도록 오늘 아침에 일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명선 위원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은 당사자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해를 입은 업체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 입장에서 피해 복구에 경황이 없어요. 제가 현장에 가 보면 아예 그냥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내놓고 아니면 회사에 있는 물품들을, 기계들을 전부 다 밖에 꺼내 놓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당사자가 직접 가서 신청할 수 있겠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것도 보시고, 예를 들면 유예조치를 한다든가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황명선 위원 어려울 때 국민의 손을 잡아 주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세청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정 지원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전차 질의에 이어서 같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듯 지금 자료제출에 의해서 강민수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 지금 백지신탁되어 있지요.

옆의 분은 검색하다 나왔어요, 그냥 구글에 검색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보니까 똑같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저렇게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소유하고 매매했느냐에 대해 답변한 자료가 근로소득, 즉 급여를 저축해서 저 주식을 샀다라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누가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두 딸한테 증여한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증여세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고, 그런데 답변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저 주식을 매입했다고 했는데 배우자가 저 유창에 관련한 기업에 근무한 시기가, 2010년부터 근무했어요. 그런데 저 주식의 매입시기를 추정해 보면 2010년보다 전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주식의 매입시기,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 주면 깔끔해지는 부분들을 답변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증여세 납부한 것하고 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증여한 것 맞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근로소득도 있고 증여도 있는데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했습니다, 위원님.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왜 그 답변을 명확하게, 증여했고 그에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클리어되는 부분이고 저렇게 관보에 다 게재돼서 나오는 부분인데 왜 그것 답변을 거부하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아마 이게 저희 실무자들이 설명하러 다닐 때 조금 빠뜨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시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내려 주세요, 다른 분의 자료가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유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한 10

여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10대 그룹이 대부분 비상장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 주고 그를 통해서 불법적인 증여를 하면서…… 그것 수사했던 게 국세청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유창의 형태가 그 초창기 시기에, 일감 몰아주기와 그에 준하는 증여와 상속 이 과정으로 가고 있는 초창기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국세청에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행태와 방향,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세금의 취지가 저런 경우에 제어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랬으니까 자료를 확인하고요.

분명히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 유창이라는 회사가 인사청문회 때문에 지금 딱 나온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제가 보기에선 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서 세금을 냈고 또 비상장주식 관련해서, 증여한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지 않고 그 증여된 주식의 자금 출처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고. 이런 게 맞는 거지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

○김영진 위원 이걸 제삼자인 국민이 신고했다 하면 이게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이게 탈루 혐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진 위원 잘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서울청장으로 재직할 시기에 진행이 됐던 11개 회사의 내용은 현 사안보다도 더 크다고, 더 엄중하다고 볼 수 없어요, 크기를 보면, 규모를 보더라도. 그래서 잘 판단해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장시간 여야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품위나 또 업무수행 능력이나 조직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총괄해서 평가를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넘어서 지금 처갓집 문제 부분이나 특별세무조사에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세무조사를 진행했냐의 유무 등이 쟁점으로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좀 오버랩되는 게 지난 동안 계속해서 제가 들어왔던 것들이 적폐청산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고위공직자들, 기업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재계, 공공기관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사도 받고 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들도 우리가 보고 실질적으로 목도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서울국세청의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11건의 부분에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청장후보자께서 청을 이끌어 가시게 된다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공평하게 부당함이 없이 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배우자 일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기업 운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답답하신 부분도 많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처갓집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모릅니다.

○구자근 위원 제가 보기에 후보자의 기억보다, 실질적으로 후보자께서 알고 있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거나 자료나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도 이해충돌 소지는 충분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 부분 지적사항들은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맞는 말씀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시다만 다들 일면 타당한 부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 청문회 자리에 나오기 전에 당연히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될 거라고 예견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구자근 위원 충분하게 위원님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각오나 여러 가지 사항들은 다 들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해명하고 소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구자근 위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후보자 때문에 기업이 위축되거나 여러 사항이 발생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을 제가 항상 어느 쪽이든, 앞쪽에 말씀하신 큰 두 가지, 중립성 문제든 이해충돌 문제든 제가 어느 한쪽에 안 치우치고 또 오해를 받을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되겠다 그렇게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구자근 위원 후보자께서 30년 정도 국세청 근무하셨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후보자 자리에 오르시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가 사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편의를 봐준 적 없으시지요? 당연히 없으시겠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그쪽 잘 모릅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알면 이상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데 있어서 구구절절 너무 잘 알아도 그것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1급 되시고 재산신고 하고 나면 공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지방청장, 대전청장 할 때도 공개가 됐습니다.

○구자근 위원 대전청장 할 때부터 그랬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연말정산 할 때 오류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들 보기에 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연말정산 할 때 실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그런 실수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도 기재부 국장 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연말정산 오류 내고 빠지고 다 했어요.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판사,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수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차치하고라도 국민들의 불신, 또 아니면 후보자께서 갖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르시는 것 빼고 아는 것 제가 여쭙볼게요.

장인어른댁, 공원 건너 있는 신흔집, 아직 저한테 자료 안 주셨습니다. 자금 출처 안 주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그것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 그건 자료로 제가 주라고 그랬었지요,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자료로써 증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의 외조모님이 별로 재산이 없으신데 어떻게 용산에, 현재 시가 34억짜리를 2분의 1씩……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외손녀 사위까지 챙겨 주셔서 2분의 1씩 증여를 해 주시는데, 그런데 넼름 받으셨어요? 혹시 자기가 공직에 있는데 이 자금이 예를 들면 시골의 선산을 팔았달지, 그런데 그런 재산은 없으셨거든요.

혹시 자금 출처에 대해서 모르셔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왜냐하면 처남에게 부담부증여 한 게 2003년입니다, 처남에게 증여한 게. 2003년도에 완벽한 세팅을 해요. 그래서 그 집을 넘겨줄 때 3일 전에 은행에서 3억을 대출받고 또 그 대출된 것을 8개월 만에 만 25세 아들, 장인어른에게는 아들이겠지요. 그 분이 3억을 갚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갚았는지 그 아드님이 갚았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에 이 세팅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외조모님 사건이 발생한 거지요.

혹시 자금 출처 얘기 들어 보셨어요? 선산 팔아서 사서 증여를 해 줬다 뭐 이런 얘기

들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데.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창 관련된 얘기 많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네이버 세무조사 착수했을 때 내부거래 급증했고 일감 몰아주기, 과도한 할인 이것 정말하게 점검하겠다고 네이버 세무조사 했지요?

유창,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같은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분할을 하는데 같은 주소예요. 혹시 현장은 모르시니까, 제가 제보를 받은 것으로는 이 두 회사가 같은 공장을 쓰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쪽 회사에, 한 번은 이쪽 회사에 일들을 해요.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회사가 분할돼 있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말씀하신 제보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면 현장만 가 보시면 알잖아요, 시흥세무서 한번 시켜서.

그다음에 배우자 소유 주식인데요.

처남 소유 주식입니다.

그런데 유창이앤씨 한번 보세요. 60%, 이것은 부친으로부터 받습니다.

장모님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장인어른, 유창이앤씨 아들에게 60% 증여합니다. 유창이앤씨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유창법인을 이제 신설한, 인적분할을 해요. 나머지 최종적으로 유창이앤씨하고 유창엠앤씨로 분할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만 쫓았는데요 닥트 공시시스템을 며칠을 돌려 보니까 계속 회사가 나와요. 더 있는지도 몰라요, 이건 샘플이니까. 이렇게 많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습니다. 닥트 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를 쫓아서 내부거래를 다 쫓았는데 이 화살표가 나머지는 물음표로 찍히더라고, 하도 많아 가지고. 아까 네이버 보셨지요?

인적분할 계속해 가는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법인세, 부가세.

그다음에 상속세 또 있습니다. 유창이앤씨 지분 60% 양도하지요. 처남입니다.

유창 매출 추이 보세요, 유창이앤씨하고.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일감 몰아주기지요.

특수관계인 매출과 매입 추이입니다. 다르지요. 유창이앤씨 급격하게 성장을 하지요.

특수관계인 비율 변화입니다.

그다음에 담합입니다. 조달청을 특정한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저희가 발견한 건 한 40% 그다음에 2674억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오늘 몰랐던 것을 많이 인지를 하게 됐는데 혹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잠시 정회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후보자, 질의하겠습니다.

국회 대충 보시면 안 돼요. 국회를 대충 보시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교차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 답변을 들으면 마치 서울청과 중부청이, 그러니까 서울청의 관할 기업 또는 세무 이슈, 조사 이슈 또는 중부청의 관할 기업 또는 세무 또는 조사 이슈가 생기면 둘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우리 바뀌서 교차해서 조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려요,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지시받아 가지고 한 거지. 그건 명확하게 지시받아서 했다, 그거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 또 질문을 해 볼게요.

작년에 각종 과세 불복 환급금이 얼마입니까?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등을 통해서.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매년 한 1조 이상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우리가 보니까 한 2조 1800억 정도 돼요, 2조 1800억.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 금액이 그해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과세를 하다 보면, 조사하고 하다 보면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과세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애매한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과세 당국 입장에서, 적극 과세 입장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 건지 납세자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는 건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매하면?

그러니까 불복에 의해 2조 1800억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걸 로펌 좋은 일 시켜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세 당국, 국세청 이익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납세자 이익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애매했을 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당연히 납세자 중심으로 보는 게 맞는데 조사를 하는 입장이나 세원 관리 입장에서 충분히 한번 다뤄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면……

○**김태년 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일단 과세해 놓고 알아서, 소송 등을 통해서 알아서 살아와라 이런 것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요새는 그런 과세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국세청장은 납세자 보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아까 과세 전후 보호와 관련한 규정들 제도개선과 관련한 요청도 제가 했어요, 질의도 했었고. 이 문제도 애매하면 가급적이면 납세자 중심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불복 환급금이 2조 1000억이나 되는데. 그렇잖아요.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제가 학원가 세무조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기억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기억합니다.

○**김태년 위원** 대형 입시학원, 일타강사 세무조사를 했는데 특정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세세하게 아주 자세히, 누군가가 아주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내용들이 특정 언론에 대서특필 됐어요. 그것도 대통령 격노 후에 세무조사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 정보 유출이다, 이것 감사해 봐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감사 안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내부적으로 감사는 해서 일단 결론은 저희 청에서……

○김태년 위원 정보 유출한 적 없다? 어떤 식으로 감사를 했길래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지난 일인데 제가 왜 이 지적을 오늘 또 하나 하면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인 세무조사 없어야 된다.

아울러 검찰이 말이지요, 수사를 해 놓고 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사실상. 언론을 이용해서 대서특필 되게 해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런 일이 우리한테 지금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문제잖아요.

국세청, 검찰 따라 하지 마시라 이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은 겁니다. 이것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작년의 그 사건은 그렇게 보였어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김태년 위원 소소한 건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병역 복무하셨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계급이 이병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 오타인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부끄럽지만 그때 공익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년 위원 아니, 공익이어도 1년 6개월 복무하면 상병이잖아요. 이병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그때 공익은 이병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박홍근 위원이 먼저 하시고 제가 하면……

○위원장 송언석 순서를, 양해하셨으니까 그러면 박홍근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요?

○박대출 위원 예,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송언석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후보자님, 우선 간단한 것 한 가지요.

국세청의 퇴임·퇴직한 고위직들이 대형 로펌 가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많이 갔습니다.

○박홍근 위원 통계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통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박홍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청장 이상을 봤더니 김앤장 11명 포함해서 8대 로펌에 현재 26명이나 가 계세요, 수억대의 급여를 받으시면서. 아니, 후배들이 정말 피땀 흘려 가지고 과세한 내용을 뒤집

어서 또 국가적으로는 결국은 국고 손실이 될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소송 관련해서 변명을 하자면 사실 소송 가서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이런 분들은 영향을 미칠, 그럴 만한 위치나 영향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영향력도 없는데 왜 그런 로펌이 수역을 들이면서 갖다 쓰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러니까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장님 되시고 나면 퇴직하고 나서 로펌 당당히 가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저는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안 가겠습니다, 위원님.

○박홍근 위원 생각을 안 해 봤다는 것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봐서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지금 계속 말씀을 피하시네요. 결국 간다는 여지를 남겨 놓으시네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안 가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발탁이 되었을까. 소위 정무직 아닙니까. 정무직이니까 뭔가 인사권자가 그 이유가 있겠지요.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딱 청장후보로 발탁됐다 했을 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인사권자 뜻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결국은 인맥이나 인연이 작동을 했든지 아니면 뭔가 헌신, 충성에 대한 기대치가 있든지, 그런데 저는 둘 다 뭔가 작동이 된 것 같다고 하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런데 오늘 후자, 소위 정치적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잘해 왔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하는 기대치가 반영된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오늘 많은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너무나 많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은 않고 다만 이것만 좀 여쭙볼게요.

쌍방울 그룹이나 네이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쌍방울은 서울청 조사4국의 인력 절반 이상을 투입한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100여 명 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지요. 검찰이 이미 다 탈탈 털어 갔는데 그리고 또 지금 수사 중인데.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관할 조정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과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습니까,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아직 무슨 기사 나온 게 없어서 그래요. 만약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하다가 아까는 결국은 본청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서울청장 본인도 아니고 조사4국장의 보고에 의해서 결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결재권자는 제가 맞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결재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전 상의 없이 4국에서 올라왔던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비정기 선정은 일단은 담당 국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박홍근 위원 그것은 일반적 원칙인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국장이 서울청장하고 사전 상의가 없었는지 또는 4국장이…… 지금 대통령실에도 3명 파견 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국세청 직원이면 대통령실에 관련된 비서관들이 직접 4국장하고 협의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현재 4국만 별도 계획에 따라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문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공문.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박홍근 위원 제가 결과에 대해서 여쭙보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 공문은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의 절차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문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역시 특정……

○박홍근 위원 아니, 국가 보안의 문제를 가지고도 국방위에서 우리 기재위원들, 당시 국방위원들이지요, 기재위원들만 따로 비공개 열람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할 의사도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개별 과세정보라서 어렵습니다.

○박홍근 위원 저는 이 절차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때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있어 가지고 조사4국 인력 15명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193명까지 늘어났고요.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지금 윤 정부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로 정치적 세무조사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는 근거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후보자께서도 진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그 절차의 투명성,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든지 절차를 더 세부화시키든지 더 엄격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는 점을……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후보자님, 아까 처가 기업과 관련한 답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해 보는 일이 있어도 이익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불편부당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봅시다라는 의지의 천명에 그쳐야 될 겁니다. 사위 때문에 멸절한 기업이 손해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지당한 말씀을 들어서 조금 의지를 과하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이득을 보는 일이 없도록 정말 유념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쌍방울 세무조사를 하는 게 옳았을까요, 안 하는 게 옳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 눈높이, 상식으로 보거나 과세행정의 원칙으로 볼 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개별 건에 대해서……

○박대출 위원 그것도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지요.

아까 처가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신고납부를 했다는 뜻입니다.

○박대출 위원 신고납부를 했다, 일감 몰아주기 부분에 대한?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원래 일감 몰아주기는 6월 중에 신고 안내문이 나가면 거기 보고 자기 거래비율이라든지 지분비율이 맞으면 거기에 맞춰서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세를 말씀드리는데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그 과세를? 그러면 일감 몰아주기 부분에 대한 과세는 집행이 된 거네요, 어쨌든.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박대출 위원 신고납부의 형태로.

그러면 여기서 일감 몰아주기와 이 과세 부분에서 후보자가 부당하게, 부적절하게 관여하거나 개입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없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 부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죽 지금 보충질의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의 끝부분입니다마는.

이전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 이전 정부가 출범할 때 5대 기준 했다가 7대 기준, 2개를 더 추가했지요. 위장전입, 표절 등 연구 부정 행위,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불법적 재산 증식,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이런 7대 기준과 관련한 지적이나 질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듣는다고는 들었는데.

그것은 혹시 없었지요? 오늘 질의에 있습니까, 7대 기준에 포함되는 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현재 이런 개인적 흠결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7대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과세 당국의 수장으로서, 국세청장으로서 합당한 업무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 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공정과세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쉬지 않고 천명한 걸 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비정기 세무조사가 현 정부 들어서 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통계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PPT 나오지요?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의 5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현 2년간 있었던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지요.

비정기 세무조사 이게 특별세무조사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비정기 기준으로 볼게요.

17년 4177건, 18년 3861건, 19년 3661건, 20년 2881건, 21년 3123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에는 2857건, 2023년에는 2928건, 지금 이전 정부 5년보다 훨씬 적어졌지요. 특히 2017년 4177건 이것 적폐 청산의 칼날 휘두를 때 아닙니까? 월등히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정기 비율도 17년 42%, 18년 40%, 19년 40%, 20년 36%, 21년 38%고 그리고 현 정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범 후에는 36%, 35%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이 통계로 보면.

이 통계 맞는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통계 맞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크게 보면 후보자님의 역사관 그리고 처가댁 기업과의 이해충돌 문제 그다음에 또 특별세무조사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질문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원하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될 때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가 있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아까 몇 번 말씀은 드렸는데 일단 특별세무조사, 그러니까 비정기 조사는 2국이나 4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2국이나 4국에서는 관리과라 해 가지고 분석만 전문적으로 하는 과가 굉장히 대규모로 있습니다. 거기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그 분석팀의 의견이 관리과장을 거쳐서 해당 국장한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이 그걸 선정을 해 가지고 지방청장한테 결재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게 어떤 정치적 이슈가 되고 나서 바로 며칠 만에 세무조사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다 비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재 과정까지 가지만 세무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 자체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받으면서 이게 정말 그럴 필요가 있겠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언젠가는 개선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그러면 어떤 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다든가, 그러니까 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타당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어떠세요? 그걸 한번 제안할 의지가 있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비정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한번 걸러지는 절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나 여러 위원님 지적을 제가 받으면서 진짜 그런 기구 내지는 위원회가 한번 중간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오해를 안 받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서울청장으로 계실 때 아까 여러 예에서 나왔듯이 오해받을 만한 그런 특별세무조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좀 억울하겠지만 여하튼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청장이 되시면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안을 한번 해 주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절차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고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태호 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정태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정책적인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다국적 기업 또는 대기업의 경우에 주요 자료가 국외에 있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유명 OTT 기업 같은 경우도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회사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최대 5000만 원 정도까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 3년간 평균을 보니까 10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라든가 아니면 형사처벌 이런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특히나 이렇게 외국계 기업 중에 상당히 대규모의 기업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을 안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과태료 5000만 원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반복 부과한다든지 이행강제금 같은 제도가 도입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것도 개선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분히 잘 답변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을 보니까 국제조세관리관실 여기 근무를 상당 기간 하셨더라고요, 군 복무 기간 포함해서.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래서 제가 국제, 글로벌한 걸 한번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슬라이드 나오면 한번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적인 포털이 네이버하고 구글이 있는데 구글에는 크롬도 있고 포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 2024년 6월의 이용자 수거든요. 저도 수십 번 들어가니까, 한 달 동안 네이버를 4337만 명이 이용을 했고 구글 1억 1681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이용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칼럼의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 네이버 매출액은 5조 6000억인데 구글 매출액은 3653억 원밖에 안 돼요. 사용자 수는 이렇게 구글이 더 많은데 매출액은 네이버가 더 많은 걸로 나오고, 당연히 매출액이 많으니까 법인세도 당연히 네이버가 더 많이 내게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이용자 수가 이렇게 많은데 매출액은 왜 이렇게 구글이 적을까



하는 걸 보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아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특히 이런 외국계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 고정사업장 이슈나 이전가격 혹은 사용료 원천징수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내는 세금이 좀 적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구글이 이렇게 많은 매출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도 이게 다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자회사의 매출로 잡히고 우리나라에 있는 구글코리아에는 매출이 잡히지 않아서 매출이 적고, 매출이 적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디지털 플랫폼 쪽은 국경이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게 큰 쟁점이 돼 있습니다.

청장후보자님, 이것 어떤 방식의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 규제를 위해서?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디지털세라고 그래 가지고 필러 1, 필러 2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그 도입 전까지는 저희가 이런 기업, 특정 기업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정사업장, 원천징수 문제, 이전가격 문제를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박수영 위원** 역시 전문가답게 잘 알고 계시는군요. 필러 1은 시장 소재지의 국가에 과세권을 주는 거고 필러 2는 글로벌 최저한세 15%를 도입하자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현재 논의는 되고 있지만 디지털세가 도입되기 전까지라도, 후보자님 전문가시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매출과 이용자 수가 일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취임하시게 되면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전문가니까 또 여쭙보는데 체납입니다. 체납이 계속적으로 규모가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원칙적으로는 생계형 체납자는 조금 유예를 해 주고 그다음 악의적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 경계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의 탐문이나 수색 이런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납이 크면서 규모가 크고 약간 악의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결국은 계속되는 탐문·수색·추적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을 쫓아가야만 큰 규모의 체납세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담당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체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규모 체납하는 사람들이 특히 서울의 강남에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체납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서 서울에서의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인력을 재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험적으로?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저희가 지금 사실 다른 쪽도 좀 빠듯해서 체납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서울청이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선진화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추적 활동을 좀 더 강화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하여튼 체납이 가장 큰 이슈니까……

시간이 다 돼서 내가 다시 추가질문 때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2차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의는 희망하는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지금 금투세를 유예하자, 폐지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법안은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했던 것인 만큼 이를 되돌리려면 원 포인트라도 조세 소위를 열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미루면 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요.

그런데 정부는 앞에서는 폐지하겠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지금 기재부가 조세재정연구원을 시켜 가지고 증권사 열 곳의 정보를 받아서 금투세의 세수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차규근 위원 모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차규근 위원 시장이 참 혼란스럽고 논의가 참 어렵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청장이 되시면 국세청이 매년 세법 개정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을 하고 올해도 410건을 제출한 것처럼 세무행정상 현행 금투세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세정상에 또 납세자분한테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개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배우자 관련 회사인 유창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들께서 배우자 관련 회사에 지직한 사항 대부분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 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들은.

그런데 유창에서 공사 부분을 떼서 분할해서 만든 회사인 유창이앤씨, 배우자께서 감사로 있는 회사인데요. 그렇지요?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차규근 위원 유창이앤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좀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여당인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백서를 보면 유창이앤씨가 조립식 교사의 구매와 임대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발간한 백서예요. 그러면 유창이앤씨의 감사가 바로 후보자의 배우자 분이신데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기업이 국정감사 지적받았는데 이것 몰랐다는 건 참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처가 회사의 상세 내역이 실시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후보자가 청장이 되신다면 아마 국세청 직원들은 많이 주저하게 될 것 같아요, 그 회사 관련되는 업무를 봄에 있어서.

만일 제가 후보자라면 청장으로 취임해서 1호 지시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청장은 배우자 관련 기업 사안을 다루는 것은 항상 회피하겠다. 청장에게 별도 업무보고 하지 마라. 청장과의 관계를 고려한 직원들의 부당한 편의 제공, 혜택이 있을 경우 감찰 대상이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 청장이나 국세청 소속 직원이 배우자 관련 기업에 편의나 혜택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라.

저라면 제가 말한 발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지시를 1호 지시로 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 입장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해 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우리 공직 비리 가운데 세무 관련 비리가 아직까지 근절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0년 이후로 현재 금품 수수로 인해 국세청 직원 26명이 징계를 받고 이 중 7명만 내부 적발에 의한 것이고 19명은 외부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무원의 금품 수수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도 많이 촘촘해졌다고 생각하는데도 아무래도 자의적인 부분이나 남용을 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국세청장에 임명이 되신다면 국세청은 세무행정 비리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가지고 내부 비리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성훈 위원 다음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이라고 어그레시브 택스 플래닝(Aggressive Tax Planning)이라는 수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성훈 위원 현행 탈세 조력자들에 대한 대응 수단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사전의 어떤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맞습니다. 요즘에 세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요. 또 조세회피 전략을 설계하고 처음부터 전략을 세워 주는 조력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이미 조세회피가 이루어지고 나서 조력자에 대한 사후 제재만 가능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조세회피 전략이 개발되는 초기 단계부터 규율할 수 있는 사전 대응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지금 EU나 미국 같은 세정 선진국에서 아마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한 다음에,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고 기재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현재 미국, 영국, EU 등 총 33개국의 경우에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조세회피로 의심되는 거래를 상담하거나 설계하는 경우 국세청에 보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세회피 의심거래 보고제도는 과세 당국이 잠재적 조세회피 시도를 사전에 포착하고 또 신고검증, 탈세 추정 그리고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세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국세청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기재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후보자님께 세수 결손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요. ‘2020년 4분기 이후에 급격한 경기 둔화로 인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부세 감소는 세수 감소의 원인이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종부세 감소도 분명히 원인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대 위원 어쨌든 보니까 종부세가 2022년도 대상자가 128만 2943명에서 49만 명으로 작년에 줄었고요. 세액도 2조 5247억 원이 감소한 건 사실인 거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신영대 위원 후보자님, 종부세 대상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대 위원 작년에 종부세 얼마 내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작년에 아마 금액이 좀 많이 내려가서 한 이십몇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신영대 위원** 12만 9610원 내셨더라고요.

2022년도에 얼마 내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때는 100만 원 정도……

○**신영대 위원** 127만 9950원 냈습니다.

어떠세요? 후보자 입장에서 127만 9950원이라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금액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신영대 위원** 그러면 종부세를 이렇게 계속 줄여 주다가 이걸 없애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종부세를 폐지하자 내지는 완화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주에 부총리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많이 들었고 또 그 반면에 예를 들어서 황명선 위원님이 지난주에 수직적 형평과 수평적 형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 해 봤습니다.

○**신영대 위원** 후보자께서 종부세 폐지 관련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 해서 서면질의를 드렸더니 이런 말씀 하셨어요. ‘종부세가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는 없다’ 이런 말씀 하셨고 하지만 ‘종부세 개편 시 지방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저는 앞부분은 100% 공감을 못 하지만 뒷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사실 지금 지방을 보면 이 종부세가 적게 걷히면서 지방교부금이, 부동산교부세가 적게 내려가니까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거든요. 실제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있던 지출 사업들은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연히 조세정책 자체가 기재부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후보자께서, 국세청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런 우려를 역시 가지고 계신다면, 지방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계신다면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내 봐 주십시오. 대통령을 만나서라도 이런 이런 재원을 만들어서 지원이 되겠다라는 의견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세제 개편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사실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종부세가 개편된다 하더라도 지금 지방재정 자립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영대 위원** 연구해 보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세청장후보자가 지방재정 자립도까지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안도걸입니다.

종부세 이어서 좀 질의할게요.

강민수 후보자님 용산 아파트가 시세 한 40억 되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종부세는 한 25만 5000원, 부부 공동소유로 돼 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고가 아파트에

지금 종부세가 한 25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계산하는 그것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50% 수준이고 부부 공동소유기 때문에 기본공제 18억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다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25만 5000원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후보자께서 지금 소유한 차가 있네요. 18년 된 구형 자동차인데 작년에 자동차세가 25만 9000원, 그러니까 자동차세보다 조금 덜 나오는 수준이지요. 이렇게 지금 많이 다운이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종부세에 대한 개편이 일어났고 전방위적인 감세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 개인 주택분 종부세를 두고 볼 때 현재 이것을 납세하시는 분들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이지요, 그래서 상위 한 2.3%에 속하는 경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종부세 폐지론이 나오는 거지요.

계속 넘겨 주세요. 다음도 넘겨 주세요.

그런데 이에 대한 이유가 뭐냐? 주택가격 안정효과가 미흡하다 또 세 부담에 대한 임대료 전가가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임대료 전가 문제부터 보면, 현재 후보자께서 40억 주택에 살고 계시지만 종부세는 월 일이만 원, 이게 부담이 돼서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부동산 안정효과가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국병이지요. 부동산 투기 차단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부세가 어느 정도 지금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서울 집값이 들쭉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급지로 주거지를 옮기려는 매입 수요가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집중되고 있지요. 그리고 뚝뚝한 채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가 폐지된 다라고 하면 아마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하는 중과세율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없애면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저는 상당히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위원님 위낙 잘 하시겠지만 집행기관장의 후보가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개인만 본다면 사실 그 정도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고 해서, 한테 국가 정책을 집행하고 세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입장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걸 위원 그리고 부동산 투기 억제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 부분은 제가 깊은 지식이 없어서, 위원님 말씀이 여러모로

일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오후에 주셨던 후보자 답변 중에서, 처가와 관련해서 어떤 건이 있으면 이득을 보는 일은 없겠고 뭐라도 생긴다면 가급적 손해를 보는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답변을 하셨던 심정과 결기와 의지에 대해서는 깊이 존중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과학적 세정이라는 것은 자의성이 없어야 됩니다. 청장이 손해를 줄 수 있는 것도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법은 법에 있는 대로 산식이 나와서 투명하게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런 발언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세정은 자의성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박수민 위원** 같은 취지로, 요즘 제가 많이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단어가 ‘세원의 관리’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성장을 계속해 왔고 또 저희가 세원 확충을 위해서 세제를 잘 설계해서 세금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 왔고 저는 그것이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법인세수가 건히지 못하는 것이 세수 부족의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선진국이 이미 저성장으로 들어가면서 세율을 높인다고 무조건 세금이 건히는 것은 아니고 성실납세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세원이지요. 영업,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면서 기업을 잘 가꾸어서 세금을 잘 내게 하는 세원 관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원 관리의 핵심이 아주 신사적이고 깔끔하지만 엄정한 세무조사입니다.

제가 기업을 경영하는 여러 분들과 인터뷰를 해 보면 ‘미국의 국세청(IRS)은 와서 사무실을 달라 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를 할 때. 자기들의 비용으로 근처에 회의실을 얻어서 자료를 제출받고 깔끔하게 분석하고 따끔하게 지적할 걸 지적한 다음에 돌아가고 세금을 빌링(billing)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협상을 하고 협상이 안 되면 세 번 정도 거쳐서 그 이후에는 결국 법원에 가더라. 하는데, 돈을 더 내고 세금을 더 내는 것도 따끔하지만 합리적이라 느꼈다. 그런데 한국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겪어 보면 아직 그러한 깔끔성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가 아주 최근까지 받고 있는 리뷰입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국세행정을 발전시키는 면에 있어서 세무조사의 자의성도 없어야 되지만 세무조사의 어떤 신사적이면서 엄정함이 필요합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가업승계 공제제도에 대해서 여전히 질문이 필요하고 또 답이 필요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 중에 유창 계열회사들 사이에 입찰담합 의혹 제기도 있었고 일감 몰아주기 또 세습 과정에서의 주식의 처분 과정들이 뭔가 호반건설과 비슷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 정도면 특별세무조사를, 즉 이런 경우 유창 계열사들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세습 과정에 대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세무조사 필요 없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오기형 위원 아니면 나는 처갓집 재산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말 못 하겠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모르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게 됐는데 오늘 끝나고 집에 가면 한번 이런 부분, 세무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돼 있으신 건지, 그러니까 낼 세금을 제대로 내시고 이렇게 하신 건지 한번 꼭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오기형 위원 아무튼 이 주제는 후보자가 공직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물을 겁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지켜볼 겁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오기형 위원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다양한 형태로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오기형 위원 가업승계 제도 관련해서 천하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가업승계 관련해서 이제 600억, 5000억 이 기준에 대해서 논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가업승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세청법에 대해서는 정책 사안이고 뭐든 간에 또 사안별로 선택적으로 많이 정치적 의견, 입장 밝히셨어요. 정책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직접 이해관계가 배우자 쪽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입장을 이런 자리에서 밝혀 두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무조사 공제 대상에 대해서, 확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지금 현재 유창이앤씨가 중견기업입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인 경우에 지금 정부 일각에서 5000억 매출액 기준 없애자고 그래요. 그것 없애면 바로 중견기업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 사후 대책 같은 이런 게, 공제 대상일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위반 건수들에 대해서 제대로 규율하자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위반에 대해서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세법 탈루 말고 다른 사항,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회수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이렇게……

○오기형 위원 그것도 입장 표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 하겠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처해 있는 어떤 개인적인 사정 가지고 제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그 공평무사함이 이렇게 제외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믿으라라고 했는데 실제 구체적인 답변은 오늘 제 질의한 것 중에 대부분 안 하셨습니다.

그 지적 하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추가질의한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후보자님, 힘드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위원님.

○윤호중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셨는데 저는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보고 싶어서요.

아까 비정기 세무조사를 결정할 때 단지 사인만 했을 뿐이다, 결재만 했을 뿐이다, 다 조사4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안을 세워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결재했을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질문을 받으면서 그동안 서울지방청이, 조사4국이 했던 세무조사가 여러 면에서 무리한 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분명히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제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냥 사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보다는 최종적이고 총체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관장으로서의 책임 의식이 오히려 좀 부족해 보였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관장, 특히 국세청장이 되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이 권력을 사용하려는 여러 외압에 시달리게 될 텐데 그런 외압을 막아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국세청장으로서. 그래서 국세청 직원들이 정말 정의감을 가지고 조사업무에서도 아주 공명정대하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지는 또 안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외압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무조건 쉽게 결재를 해 주는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승진을 하게 되시는 건지 아니면 외압의 실체를 잘 숨기고 은폐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으신 건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세청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은 제가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전자·후자도 아닙니다.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은 국민을 위한 국세청으로서의 위상과 영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고하게 지켜 내시는 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말씀 제가 꼭 새겨들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후보자님, 오늘 하루가 경험하지 못한 긴 하루였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긴 하루였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이인선 위원 넷플릭스에 보면 유명한 ‘돌풍’이라는 드라마가 나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요 ‘누명은 한마디로 충분하지만 그 무죄를 입증하는 건 천마디 말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몰아붙이는데 그것을 또 감당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청장이 되시면 가족 회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앞에 추가질의할 때 계신 위원님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국민들이 보기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이고 횡령, 배임 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의 출처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로서는 당연하고 타당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건요, 최근에 국세청 현황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19년도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가 많아 보니까 결국은 20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다 보니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세청 업무를 기피할 만큼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부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4년 사이에 약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실납세지원국 안의 소득재산세과 안에 재산팀…… 팀으로 돼 있다고요. 팀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했을 때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후보자가 청장이 되시면 납세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배치하고 잘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일이 많은 곳에 인력을 조금 더 재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

게 해 보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하람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안 하셨는……

○천하람 위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마지막이니깐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하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님, 윤석열 대통령님 좋아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인사권자시고……

○천하람 위원 좋아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

○천하람 위원 아니,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런 점이 꼭 어느 정부를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거둬들이는 저희 입장에서 국민이 내 주시는 세금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천하람 위원 제가 왜 윤석열 대통령님을 좋아하시냐고 여쭙봤던 게, 올해 5월에 서울 대학교에서 국세청의 역할에 관해서 강연하시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 강연을 하셨는데 굳이 우리 기재위 공통요구자료에는 왜 외부 강연에 대한 자료는 제출 안 하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위원님. 사전 질의자료에서 강연 자료들 내라고 했을 때 제가 낸 걸로 다……

○천하람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따로 찾아본 겁니다.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후보자 동의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논문에 그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그때 있었던 12·12 사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지금 당시 윤석열 대통령후보의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지요.

후보자님이 어떤 측면을 보고 전두환 정부에서 국가의 안정을 내세운 결정을 과감성

있게 발휘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보셨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기술을 하신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저기 화면에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제가 인용 표시, 110이 있는데 아마 그쪽에 있는 내용을 옮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천하람 위원 그럼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제가 이렇게 거듭, 여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전두환 정권 당시에 국세청이 사실상 경제 안기부 역할을 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언론으로 봤습니다.

○천하람 위원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구속되고 수사받고 이런 역대 국세청장도 있었고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제 안기부적인 사고가 다시 부활될까 봐 여러 위원들이 염려하셨던 겁니다. 이런 염려가 없도록 마지막으로 한번 약속의 말씀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오늘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불편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가상자산 보유 문제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죄송합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도 빠진 건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또 동시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국세청의 간부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걸 언제 인지하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가상자산……

○진성준 위원 보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진성준 위원 그런데 잊고 있어서 처분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 생각을 못 하셨던 건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지금 그 계좌를 물론…… 어제 저희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 계좌에 뭐가 남아 있는지는 확인을 했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처분을 한다든

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진성준 위원 글썄요, 제가 보니까 국세청이 공직자윤리법에 입각한 지침을 만들었는데, 국세청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지침 이게 7월 1일 자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런 보유 제한 지침을 만들어서 조세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처분하도록 돼 있고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감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처분했어야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지금 제가……

○진성준 위원 지침 만들어 놓고 이 지침을 이행하는 것을 잘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분이 자기 보유 여부도 체크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 점은 제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진성준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진성준 위원 그런 가상자산 소득세가 내년부터 시행되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이것 제대로 과세할 수 있는 징수 시스템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리고 시행이 된다는 게 내년부터 자료를 저희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가져와서 실제로 신고를 하고 하는 부분은 26년 5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 준비를 갖춰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진성준 위원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이 준비는 잘 갖췄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돼 있기는 한데 원천징수를 하실 분들하고 조금 더 협의가, 미세한 부분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23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ISP 사업이나 전산시스템 개발, 유지 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시스템 측면에서는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어떤 점이 협의가 좀 더 돼야 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지금 손익통산이나 이런 원천징수 할 때 어떤 실무적인 부분이 조금 더 협의가 남아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징세를 하는 데는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진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후보자님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최은석 위원 아까 동료 위원분들이 공익법인 관련해서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전제에는,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국세청에서 2022년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주무관청으로부터 국세청으로 이관된 것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관된 이후에 최근에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24년도에…… 장학재단인데요. 아마 정당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 장학재단에 관련된 분 같은데 한 50억 정도의 횡령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이 건 말고도 예술재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기부금이 수입 누락되거나 자산 매각대금이 부당 유출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공익법인인 한국가이드스타에서 국세청 공시되는 데이터 한 1126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공익법인을 평가했는데 4.3% 정도인 49개만 투명성이나 책무성이나 재무효율성에서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었는데요. 결국 앞으로 국세청에서 의무이행 점검 업무를 이관받고 나서 이런 공익법인들에 대해서 회계 투명성을 좀 제대로 견제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적발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TF 조직으로 공익중소법인지원팀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익법인의 재무 투명성을 위해서 국세청에서 어떻게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선조치나 방안 같은 게 준비되고 있는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공익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별 검증을 해 가지고 세금을 추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공시를 똑바로 하게 하고 또 안 된 부분은 시정 요구를 해 가지고 여러 차례 시정 기회를 주면서 또 공익법인에 있는 분들이, 실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도 시켜 가면서 양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석 위원 대형 횡령사고 같은 것들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항상 있으니까 좀 더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고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거기 한시적인 조직을 좀 더 강화하든지 해서 공익법인의 재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후보자님, 미국 국세청이 지난해 1600여 명의 부자에게 징수했다고 밝힌 금액이 10억 달러에 이른답니다. 원화로 1조 원이라고 하네요. 수년 전부터 세금 신고 누락한 12만여 명의 백만장자들을 의심해 왔는데 본격적으로 추적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1조 원을 징수했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제가 그 숫자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기상 위원 미국 국세청은 과거에도 폭력조직, 마약 카르텔, 갱단 가리지 않고 훔친 물건, 뇌물 등 불법 거래에도 세금을 매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들어 보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 이유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세금 징수가 국가의 근본이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것인데요.

우리 국세청 이렇게 할 수 있지요? 해야 되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해야 됩니다.

○최기상 위원 해야 됩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해야 됩니다.

○최기상 위원 우리 공동체의 도둑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나라의 공간을 지키는 수호자 책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거 해내셔야 됩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조직 정비하시고 추적해서, 미국 국세청 1년 만에 하는데 우리 국세청 왜 못 합니까? 할 수 있게 만드셔야지요.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최기상 위원 두 번째, 지금 소득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파악되지 않는 소득이 곳곳에 여전히 꽤 많이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파악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파악되지 못한 세금은 소득이 부과되지 못하면 조세평등주의 위배됩니다. 맞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불로소득자, 채납자들 세금 추적해서 부과해야 되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국세청에서 어떤 준비를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지금 기존에 있는 과세제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종 플랫폼이라든지 온라인 쪽 그다음 리딩방 이런 신종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진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당연히 과세를 철저히 하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조사 같은 것도,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빅데이터를 동원해 가지고 조금 더 그 표적률 내지는 성공률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성과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검찰이나 법원이나 국세청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때는 정권에 맞는 세정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사람에 대한 국세청장이나 간부들의 의지, 술선수범하는 모습이 있을 때 신뢰를 받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신뢰를 잃어 가고 있고요. 앞으로 2050년, 2060년 어떻게 존속할지 압담합니다. 후보자가 국세청장 하시면 임기는 2년밖에 안 될 수 있지만 2050년, 2060년을 바라보고 일하셔야 되거든요.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 본연의 기능, 제일 중요한 것은 세입예산을 조달하는 것이고 또 그와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게 공정과세와 과세 형평성 제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보다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면서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재보충질의 희망 위원님들 조사할 때, 그때 희망을 안 하신 분들이 지금 계신데 천하람 위원님하고 황명선 위원님하고 김영환 위원님이 추후에 뒤늦게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하람 위원님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황명선입니다.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나온 것 가운데서 첫 번째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외압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성을 가질 것인가,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 보면, 두 번째는 처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로서 이해 충돌.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하면 국세청이 움직입니다. 국세청이 칼을 빼 든다. 김건희 여사 허위이력 보도, YTN. 윤 나토 순방 치적 지적에 대해서 보도를 하니까, ‘바이든, 날리면’ 하니까 MBC. 정순신 학폭 사건 하니까 KBS. 카카오 독과점 대통령 격노하니까 카카오. 사교육 카르텔 대통령이 언급하니까 대형 입시학원. 킬러 문제 배제, 일타 강사. 그다음에 의료개혁 반발, 동국제약과 제약사들 세무조사를 합니다. 희한하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쏟아지면 반대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바로 국세청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을 요구하는 거지요.

오늘 밖에 나가다 보니까 많은 기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것 보은인사 아니냐 이렇게 의혹 제기를 많이 합니다. 후보자께서 앞으로 이 정치적 중립, 외압으로부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겁니까? 불편부당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만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진성준 위원님께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제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오늘 그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진성준 위원님 개혁위원회 같은 말씀도 있으셨고 또 정태호 위원님께서 어떤 위원회 같은 내용을 넣어서, 어쨌든 비정기 조사 대상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저도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제가 앞서 거론했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것 정치적 세무조사다.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이렇게 다 이해하고 있다 이 얘기에요. 그렇게 안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꼭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황명선 위원 삼짍삼 아까 질의를 끝마치지 못했는데 정말 아주 꼼꼼하게 챙겨 주세요.

집 살 때 인감 땡니다. 맞지요? 자동차 살 때도 그렇고.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황명선 위원 불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도 떼는 이유는 재산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 재산권이 개인정보 클릭 한번으로 민간기업에 유출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지금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 또 수사 중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점을 유념해서, 또 저희가 민간기업에 대해서 뭘 하라 마라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공문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표시하고 그게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대안을, 제도를 꼭 보완해야 됩니다. 제도 보완에 대해서도 저한테 꼭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황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전차 질의했던 부분들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될 사안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는데 배달의민족이 현재 배달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실제로 3% 대폭 상향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배달의민족은 시장점유율이 63%로 독과점 기업이고 실제로 작년 7000억 이익 중에 4000억을 배당한 기업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 시대에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 전체 시장경제나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이 들여다볼 사안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단순히 이익이 많이 난다고 그게……

○김영진 위원 아니, 이익 다 떠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탈루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배달의민족이

독일로 넘어가면서부터 독과점이 강화되고 더 심하게 배달수수료를 인상하고 그에 따라서 전체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들어다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금투세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기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준비가 돼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돼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러면 금투세 과세 대상이 대략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그 과세 대상에 대한 전체 과세액이 어느 정도로 추정될지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더니 답변을 못 하던데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저희가 이 금투세……

○김영진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과세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판단하기가……

○김영진 위원 과세 인원, 과세 금액 추정.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것을 아직은 저희가 사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파악하신 것은 뭐 있어요?

지금 현재대로라면 5개월 후에, 1월 1일 날 시행이 됩니다. 징세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기존의 양도세는 대주주 상장주식이나 주가지수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그쪽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김영진 위원 그것 세부적으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김영진 위원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종부세 관련한 세액이에요. 인원이 2022년 120만 명에서 작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9만 명으로, 과세총액은 6조 7000억에서 4조 1000억으로 줄었어요. 인원은 대폭 줄었고 세액도 2조 5000억이 줄었고, 그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로 가는 부분들이 대폭 주는 거지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아까 작년 세수 부족 이유 중의 한 부분이고 이것도 기여했던 부

분이지요. 이 종부세 개편의, 징세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징세에 대한 과세 대상자들의 반응은 어떻다라고 국세청에서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이게 과세형평이나 이런 점에서 보면, 당초의 종부세 도입 취지를 보면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어떤 계층에 있는 분이든지 기존에 종부세를 내던 분들은 일단 세금이 좀 내려가니까…… 아까도 정일영 위원님, 저희 불복 청구 관련해서 보면 종부세 위헌청구가 한 2000건, 3000건이 매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내려간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위기는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가 가진 그 원래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달리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이 부족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아닙니다.

○**이종욱 위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후보자님도 한 번 실수를 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2022년에 수정해서 납부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실수하기 좋은 환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교롭게도 최근에 개각 발표했습니다만 거기 장관후보자 두 분도 경제관료 출신입니다만 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이종욱 위원** 100만 원 이하만 공제할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세대주가 신고를 하게 되고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 이상 되는지, 특히 미성년 자녀가 알바해서 100만 원이 되는지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홈택스 시스템적으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적공제를 체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체크를 할 때 실수가 많은 부분이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팝업창을 띄우거나 아니면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 파악 정보, 물론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거지만 그때 시점에서 그나마 파악할 수 있는 몇 개라도 띄워 줘서 최대한 신고화면에 표시하면 납세자 실수를 최대한 줄여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집행기관장 후보로서 천하람 의원실 지적을 받고 10년 치를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제가 몇 번 실수가 있는 것도 봤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팝업창 띄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동의를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을 바로 당겨 와서 자동적으로 공제가 안 되게 하는 것 또 부양가족을 뺐으면

당연히 특별공제가 빠져야 되는데 부양가족을 뺐는데도 또 특별공제를 실수로 체크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이번에 다 겪어 봤습니다. 그것 반드시 제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시간 활용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보자님, 하루 종일 과세정의, 공정과세 여러 번 말씀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께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 그리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말씀도 함께 들으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게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절대적인 개념이라는 것 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무한합니다.

‘12·12 거사’라는 표현 때문에 하루 종일 사과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지금도 사과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 통치자금, 이런 불법 자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 있고 만약에 그게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 최근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김옥숙 씨 메모가 나왔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언론에서 봤습니다.

○김영환 위원 총 얼마지요, 메모가?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때 300억……

○김영환 위원 아닙니다. 904억 5000만 원입니다. 현금 그다음 채권 다 포함해서 904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우리들은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김영환 위원 그리고 그게 증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잘 모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김영환 위원 국세기본법 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항 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김영환 위원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증여세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그 메모 내용을 보면 현금, 채권, 선경 이런 데 은닉되어 있었습  
니다.

국세기본법 26조의2 5항 4호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해당될  
것 같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시효라든지 또 관련 법령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과거에 확인되  
지 않은 돈들입니다. 이게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금이고요. 국세청에서 단호  
하게 환수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후보자님.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위원님.

○**박대출 위원** MBC, YTN. 그 당시, 제작년에 할 때 정기 세무조사였습니까, 비정기  
세무조사였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때 국감장에서, 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정기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때 봤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정기 세무조사는 언제 확정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정기는 원래 최소한도, 만약에 올해 2024년에 조사를 할 분  
이다 그러면 24년 1월이나 혹은 재고량에 따라서는 23년 1월에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  
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정기 조사는 매년 1월에 확정한다고 전임 국세청장이 국감에  
서 답변한 게 있어요.

지금 정치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대통령 언급 관련이나 아니면 관련 보도 나  
온 30일 후에 있었고 그것이 특별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계속 주장이 나오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정해진 정기 세무조사가 어떤 언론사의 보도 후 30일 후에 이  
루어진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셔야지요. 시점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

○**박대출 위원** 그 당시에 답변을 다 했어요. 그다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  
인된다고 언론보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MBC·YTN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건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힌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언론보도가. 그것도 미디어오늘입니다.

YTN의 경우에는, 통상 5년에 받는데 그동안에 YTN은 4년에 한 번 정도 받았대요,  
MBC의 경우에는 5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정기 세무조사가 언론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둔갑되는데 왜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세  
요? 그냥 건강부회적 해석해 가지고 정치적 해석을, 의미를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헛수도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박대출 위원 윤석열 정부 2년 동안보다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매년 훨씬 더 많았다고,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적폐청산 할 때 더 많았다고. 4000회가 넘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매년 3000회가 안 됐지 않습니까. 천이삼백회가 더 많아요. 이런 게 내로남불이잖아요.

명확하게 이런 건 자신 있게, 있었던 것은 답변을 하세요. 정치공세에 그렇게 답변 안 하시면 되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시간을 많이 안 줘서 그냥 짧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국세청 인사 문제 좀 여쭙볼게요.

당연히 실력과 탕평에 따라 해야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홍근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지금 현재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고공단 출신 분석해 보니까 용산의 강력한 의지가 보여진 것 같아요. 사정의 핵심 라인, 영남과 TK 라인이 주로 배치됐습니다. 본청의 조사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TK 출신이지요. 그래서 청장, 차장, 본청의 조사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모두 TK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 이상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세무조사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지요.

1급 이상에 호남 출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지금은……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홀대론 제기가 됐던 것이지요.

고위공무원 지역 분포도 보니까 영남이 40% 이상, 조사국 라인은 영남이 58% 차지합니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될 국세청에 너무나 특정된 코드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지요. 아마 조만간 있을 대규모 인사에서 오히려 더욱 색채가 강화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국세청장이 된다면 인사의 제일 원칙 무엇으로 삼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당연히 능력이나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점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오늘 여러 질문 중에 처가와 배우자 회사의 수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짧게, 본인의 소신을 한번 물어볼게요. 징수기관의 수장으로서 여기에 후보 자격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실질과세원칙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이게 만약에 폐지되면, 유창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데 이게 중견

기업으로 가면서 최대 수혜자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본인의 소신은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이게 과세형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에 제가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실질과세 관련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부총리님 말씀하시는 국가경제나 장수기업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정부의 어떤 정책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박홍근 위원** 정책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장수기관의 장 후보자로서는 좀 다른, 자기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오늘 제가 모범납세자제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올해 3월에도 윤석열 대통령 단골 한 우집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는데 그 식당이 선정 6개월 전에 불법영업으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고 시정명령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은 데가 모범납세자로 정해졌단 말이지요.

저는 모범납세자제도 이제는 점차 폐지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정부가 최근에 배당 잘 하는 기업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주겠다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당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세무조사 유예까지 해 주는 혜택을 주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합니까? 폐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위원님, 제가 이번에 준비 과정에서 모범납세자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많으셔서 미리 검토를 좀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범납세자제도는 존치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세무조사 유예나 여러 가지 혜택은 없앴으로써 단순히 명예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박수영입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

정책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넥슨의 김정주 회장님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지고 상속세 부과하고 또 걷는 데 아주 애를 많이 쓰셨지요. 주식으로 현물납을 하셨는데 지금 잘 보관되고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물납재산이 일단 들어오는 순간부터 관리나 매각은 사실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박수영 위원** 현금으로 안 내고 그렇게 주식으로 물납을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현금이나 이렇게 유동자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먼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 말고 부동산이라든지, 도저히 세금을 낼 만한 어떤 유동자산이나 현금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물납을 어느 정도 받아 주게 됩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수익이 난 게 없어서 낼 현금이 없는데 무리하게 걷기 때문에 물납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얼마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지금 현재 50%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대주주 할증을 하면?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주식으로 돼 있으면 60%까지 가능합니다.

○**박수영 위원** 60%까지 할증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주주 할증 60%는 세계 최고의 세율을 맞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최고세율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다음에 일본이 55%, 그다음에 프랑스 45%지요.

OECD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들만 넣었을 때랑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까지 넣었을 때 조금씩 차이 나는데 안 넣었을 때는 이십몇 프로, 넣으면 한 십몇 프로 이 정도, 그러니까 실효세율……

○**박수영 위원** 그렇습니다. 26.5%, 12.5% 두 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인 26.5%, 부과하는 나라만 평균 한다 하더라도…… 안 하는 나라 하면 12.5%가 되는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60%라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세율 맞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게 최고세율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또 실효세율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높은 수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높은 수준인 것은 틀림없는 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매일경제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 상속세율이 완화돼야 된다고 하는, 찬성이 55%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상속세율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절반을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속세율을 완화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국내 부자들이, 이게 100만 불 이상입니다, 소위 백만장자. 100만 불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거라고 하는 예상치를 계산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1위인 중국보다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율이 완화가 돼야 되고 그래야 물납으로 내는 이런 불편함도 없어지고,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소득 없이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게 되는 것이지요, 해외 이주도 많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목소리 들으시면 기재부에 건의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상 네 분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 있다 보니까 오늘 질의를 못 했는데요. 오늘 청문 과정을 지켜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공직 배제 5대 기준, 공직 배제 7대 기준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동산 투기라든지 위장전입, 연구 부정이라든지 병역 기피, 음주 운전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한때 청문회장에서 굉장히 많이 질타가 되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청문회장에서 그런 공직 배제 5대 기준이나 7대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처가 쪽 기업 관련한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자 간에도 재산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자식 된 도리로서 자기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확인해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도덕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가 쪽의 어떤 재산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후보자의 입장에서 체크하기가, 물어보는 것조차도 괜한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새삼스럽게 깨달은 그런 측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후보자는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처음에 공직에 뜻을 두고 들어온 이후에 지금까지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리인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자질이나 인성이나 역량이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인사청문회의 하루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에 고위공직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분들, 앞으로 후보자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배우자의 집안 관리도 중요한 논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되는 그런 측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신공격성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오늘 인사청문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강민수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긴 시간에 걸쳐 따끔한 충고와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들을 항상 유념하면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강민수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번 주 내에 조속히 날짜를 정하는 데까지는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의사일정을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6분 산회)

#### ○출석 위원(26인)

구자근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홍근 송언석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윤호중 이인선 이종욱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정태호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황명선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전문위원 이정은

#### ○출석 공직후보자

강민수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세청

기획조정관 이동운

감사관 김지훈

징세법무국장 양동훈

자산과세국장 안덕수

조사국장 정재수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이상 6건 7월 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이상 3건 7월 11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김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사회적경제기본법안**

(2024. 7. 11.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5)

이상 5건 7월 1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2)

이상 3건 7월 15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69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